

연구보고 2016-19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초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에 머물며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부담과 함께 청년층의 낮은 혼인율 혹은 만혼화 등이 거론되어 왔다. 특히 혼외 출산을 터부시하는 문화 등 보수적인 가족관이 강했던 한국의 경우 출산이 법적 혼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결혼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독려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청년층 결혼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청년층 미혼 남녀의 비혼화 실태와 결혼 및 가족관,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즉, 청년층 미혼 남녀가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 간에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누구에게 어떠한 지원이 보다 필요하며 적합한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제 3차 저출산 대책에서 결혼 지원 정책이 갖는 의의와 개선점을 되짚어 보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모쪼록 본 연구의 성과가 청년층의 결혼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짧은 연구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준 연구진과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눠주신 보건복지부 관계자, 바쁘신 중에도 실태조사와 심층면담에 성실히 응해주신 응답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4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14
II. 연구의 배경	19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층 및 결혼지원 경과 및 현황	19
2. 청년 비혼화에 관한 선행연구	25
3. 청년층 결혼 및 가족 형성 관련 현황	38
4. 소결	61
III. 청년층 미혼 실태 및 결혼 가치관	65
1. 조사 개요	65
2. 청년 미혼 실태	73
3. 결혼 가치관에 대한 견해	93
4. 비혼 및 1인 가구에 대한 태도	108
5. 청년층 결혼지원 대책에 관한 의견	117
6. 소결	135
IV. 청년 미혼자의 가족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139
1. 출산 의향 및 조건	139
2. 가족 가치관 변화	152
3. 저출산 대응정책 전반 및 청년층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164
4. 소결	187
V. 결론	191
1. 저출산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	191

2. 정책 대상별 중점 지원 방안	197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99
참고문헌	200
부록	205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07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220
부록 3.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	225

표 차례

〈표 I-3- 1〉 심층면담 인원	14
〈표 II-2- 1〉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결혼의향 및 결혼연령과의 관계	31
〈표 II-2- 2〉 가치관과 결혼의향 및 결혼연령과의 관계	34
〈표 II-2- 3〉 미혼 상태에 대한 구분	36
〈표 II-3- 1〉 성별 혼인율 변화 추이(1995~2015년)	38
〈표 II-3- 2〉 성별 평균초혼연령 변화 추이(1995~2015년)	39
〈표 II-3- 3〉 성 및 연령별 혼인율 변화 추이(1995~2015년)	40
〈표 II-3- 4〉 연도별 청년층(20-44세) 혼인상태	41
〈표 II-3- 5〉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 및 연령별 미혼자 비중	42
〈표 II-3- 6〉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 및 혼인상태별 학력	43
〈표 II-3- 7〉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	44
〈표 II-3- 8〉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 및 혼인상태별 직업	45
〈표 II-3- 9〉 세대별 초혼 연령 변화	49
〈표 II-3-10〉 세대별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걸리는 기간	50
〈표 II-3-11〉 연령별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걸리는 기간	52
〈표 II-3-12〉 청년층 1인 가구 변화 추이(2000년~2015년)	53
〈표 II-3-13〉 남성 청년층 1인 가구 현황(2000년~2015년)	54
〈표 II-3-14〉 여성 청년층 1인 가구 현황(2000년~2015년)	55
〈표 III-1- 1〉 최초 목표 표본	66
〈표 III-1- 2〉 중요 설문 항목	66
〈표 III-1- 3〉 응답자의 인적 특성	67
〈표 III-1- 4〉 응답자의 가구 특성	68
〈표 III-1- 5〉 응답자의 취업 상태	68
〈표 III-1- 6〉 응답자의 일자리 특성	69
〈표 III-1- 7〉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69
〈표 III-1- 8〉 인적 특성별 1인 가구 현황	70
〈표 III-1- 9〉 지역 및 취업상태별 1인 가구 현황	71
〈표 III-1-10〉 소득별 1인 가구 현황	71

〈표 III-1-11〉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된 시기 및 계기	72
〈표 III-2- 1〉 인적 특성별 결혼 의향	74
〈표 III-2- 2〉 결혼 연기 사유	75
〈표 III-2- 3〉 인적 특성별 결혼 연기 사유 : 1순위 응답 기준	76
〈표 III-2- 4〉 결혼 연기의 자발성(1~3순위)	77
〈표 III-2- 5〉 미혼 사유	78
〈표 III-2- 6〉 학력별 미혼 실태	79
〈표 III-2- 7〉 지역 및 취업상태별 미혼 실태	79
〈표 III-2- 8〉 일자리 특성별 미혼 실태	80
〈표 III-2- 9〉 소득별 미혼 실태	80
〈표 III-2-10〉 인적 특성별 미혼 결정 시기 및 결혼 의향 변화	81
〈표 III-2-11〉 지역규모 및 취업상태별 미혼 결정 시기 및 결혼 의향 변화	82
〈표 III-2-12〉 과거에는 결혼 의향이 없었으나 현재는 결혼하고 싶은 이유	83
〈표 III-2-13〉 결혼 연기자의 결혼 조건	84
〈표 III-2-14〉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학력(1)	85
〈표 III-2-15〉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학력(2)	86
〈표 III-2-16〉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소득(재산)(1)	87
〈표 III-2-17〉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소득(재산)(2)	88
〈표 III-2-18〉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사회적 지위(1)	90
〈표 III-2-19〉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사회적 지위(2)	91
〈표 III-2-20〉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연령(1)	92
〈표 III-2-21〉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연령(2)	93
〈표 III-3- 1〉 미혼상태별 결혼의 의미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95
〈표 III-3- 2〉 성 및 연령별 결혼의 의미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96
〈표 III-3- 3〉 성 및 학력별 결혼의 의미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97
〈표 III-3- 4〉 미혼상태별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00
〈표 III-3- 5〉 성 및 연령별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01
〈표 III-3- 6〉 성 및 학력별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03
〈표 III-3- 7〉 인적특성별 결혼 적령기에 대한 생각	104
〈표 III-3- 8〉 일자리 특성 등 결혼 적령기에 대한 생각	105
〈표 III-3- 9〉 미혼상태별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06

〈표 III-3-10〉 성 및 연령별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	107
〈표 III-3-11〉 성 및 학력별 가족내 성 역할 분담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	108
〈표 III-4 1〉 미혼상태별 비혼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10
〈표 III-4 2〉 성 및 연령별 비혼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11
〈표 III-4 3〉 성 및 학력별 비혼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11
〈표 III-4 4〉 비혼을 위한 선결 조건	113
〈표 III-4 5〉 미혼상태별 1인 가구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15
〈표 III-4 6〉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16
〈표 III-4 7〉 성 및 학력별 1인 가구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17
〈표 III-5 1〉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의 도움 정도(1) ...	119
〈표 III-5 2〉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의 도움 정도(2) ...	119
〈표 III-5 3〉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의 도움 정도(3) ...	120
〈표 III-5 4〉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도움 정도(1) ...	121
〈표 III-5 5〉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도움 정도(2) ...	121
〈표 III-5 6〉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도움 정도(3) ...	122
〈표 III-5 7〉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1) ...	123
〈표 III-5 8〉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2) ...	123
〈표 III-5 9〉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3) ...	124
〈표 III-5-10〉 청년 대상 창업프로그램 도입·지원(1)	125
〈표 III-5-11〉 청년 대상 창업프로그램 도입·지원(2)	125
〈표 III-5-12〉 청년 대상 창업프로그램 도입·지원(3)	126
〈표 III-5-13〉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충(1)	127
〈표 III-5-14〉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충(2)	127
〈표 III-5-15〉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충(3)	128
〈표 III-5-16〉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증가(1)	129
〈표 III-5-17〉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증가(2)	129
〈표 III-5-18〉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1)	130
〈표 III-5-19〉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2)	131
〈표 III-5-20〉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증가(1)	131
〈표 III-5-2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증가(2)	132
〈표 III-5-22〉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증가(1)	132

〈표 III-5-23〉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증가(2)	133
〈표 III-5-24〉	연령에 따른 신혼부부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 부여(1)	134
〈표 III-5-25〉	연령에 따른 신혼부부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 부여(2)	134
〈표 IV-1- 1〉	성 및 미혼상태별 출산 의향	140
〈표 IV-1- 2〉	인적 특성별 출산 의향	140
〈표 IV-1- 3〉	지역 및 취업상태별 출산 의향	141
〈표 IV-1- 4〉	소득별 출산 의향	141
〈표 IV-1- 5〉	성 및 미혼상태별 희망 자녀수	142
〈표 IV-1- 6〉	연령 및 학력별 희망 자녀수	142
〈표 IV-1- 7〉	지역 및 취업상태별 희망 자녀수	143
〈표 IV-1- 8〉	직종별 희망 자녀수	144
〈표 IV-1- 9〉	소득 수준별 희망 자녀수	144
〈표 IV-1-10〉	1인 가구여부별 희망 자녀수	145
〈표 IV-1-11〉	인적 특성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	146
〈표 IV-1-12〉	월평균 소득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	146
〈표 IV-1-13〉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	148
〈표 IV-1-14〉	성 및 미혼상태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1+2순위)	148
〈표 IV-1-15〉	연령 및 학력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 (1+2순위)	149
〈표 IV-1-16〉	거주지역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1+2순위)	150
〈표 IV-1-17〉	성 및 미혼 상태별 첫아이 출산 희망 시기	150
〈표 IV-1-18〉	인적특성별 첫아이 출산 희망 시기	151
〈표 IV-2- 1〉	성 및 미혼상태별 자녀 필요성	152
〈표 IV-2- 2〉	연령 및 학력별 자녀 필요성	153
〈표 IV-2- 3〉	취업상태별 자녀 필요성	154
〈표 IV-2- 4〉	일자리 특성별 자녀 필요성	154
〈표 IV-2- 5〉	미혼상태별 자녀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156
〈표 IV-2- 6〉	자녀 필요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157
〈표 IV-2- 7〉	성 및 연령별 자녀에 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158
〈표 IV-2- 8〉	성 및 학력별 자녀에 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159
〈표 IV-2- 9〉	미혼상태별 기혼자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161
〈표 IV-2-10〉	자녀 필요성에 따른 기혼자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162

〈표 IV-2-11〉 성 및 연령별 기혼자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163
〈표 IV-2-12〉 성 및 학력별 기혼자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164
〈표 IV-3- 1〉 청년 대상 취업·창업 지원의 도움 정도(1)	166
〈표 IV-3- 2〉 청년 대상 취업·창업 지원의 도움 정도(2)	167
〈표 IV-3- 3〉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도움 정도(1)	167
〈표 IV-3- 4〉 신혼부부 주거문제 지원 도움 정도(2)	168
〈표 IV-3- 5〉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의 도움 정도(1)	169
〈표 IV-3- 6〉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의 도움 정도(2)	170
〈표 IV-3- 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의 도움 정도(3)	170
〈표 IV-3- 8〉 고위험 산모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도움 정도(1)	171
〈표 IV-3- 9〉 고위험 산모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도움 정도(2)	171
〈표 IV-3-10〉 고위험 산모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도움 정도(3)	172
〈표 IV-3-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움 정도(1)	173
〈표 IV-3-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움 정도(2)	173
〈표 IV-3-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움 정도(3)	174
〈표 IV-3-14〉 다양한 가족(한부모 가족 등) 지원의 도움 정도(1)	174
〈표 IV-3-15〉 다양한 가족(한부모 가족 등) 지원의 도움 정도(2)	175
〈표 IV-3-16〉 다양한 가족(한부모 가족 등) 지원의 도움 정도(3)	175
〈표 IV-3-17〉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도움 정도(1)	176
〈표 IV-3-18〉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도움 정도(2)	176
〈표 IV-3-19〉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도움 정도(3)	177
〈표 IV-3-20〉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도움 정도(1)	178
〈표 IV-3-21〉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도움 정도(2)	178
〈표 IV-3-2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도움 정도(3)	179
〈표 IV-3-23〉 가정내 양육을 위한 놀이·소통 공간 제공의 도움 정도(1)	180
〈표 IV-3-24〉 가정내 양육을 위한 놀이·소통 공간 제공의 도움 정도(2)	180
〈표 IV-3-25〉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의 도움 정도(1)	181
〈표 IV-3-26〉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의 도움 정도(2)	181
〈표 IV-3-2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의 도움 정도(1)	182
〈표 IV-3-28〉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의 도움 정도(2)	183
〈표 IV-3-29〉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 조성의 도움 정도(1)	184

〈표 IV-3-30〉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 조성의 도움 정도(2) … 185
〈표 IV-3-31〉 남성의 육아참여(남성 육아휴직제도 등) 활성화의 도움 정도(1) …… 186
〈표 IV-3-32〉 남성의 육아참여(남성 육아휴직제도 등) 활성화의 도움 정도(2) …… 187

그림 차례

[그림 I-4-1] 미혼자 범주 구분	17
[그림 II-1-1]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23
[그림 II-1-2]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	23
[그림 II-2-1] 주요 선진국의 여성 초혼연령과 초산 연령 분포	26
[그림 II-3-1] 연도별 청년층 취업여부 및 혼인상태별 비중(2004~2016년) ...	46
[그림 II-3-2] 성 및 연령별 미혼 취업자 비중 변화(2004~2016년)	47
[그림 II-3-3]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 증가 추이	56
[그림 II-3-4] 합계출산율 및 출생건 수 변화 추이	57
[그림 II-3-5] 모연령별 출생율(천명당) 변화 추이	58
[그림 II-3-6] 혼외 자녀 출생아 비율 변화 추이	59
[그림 II-3-7] 지역별 합계 출산율 변화(2000년 : 2015년)	60
[그림 III-2-1] 성 및 연령별 미혼 실태	78
[그림 III-3-1] 결혼의 의미 및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	94
[그림 III-3-2]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99
[그림 III-3-3] 성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 (동의함 응답 비중)	106
[그림 III-4-1] 비혼자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비중)	109
[그림 III-4-2]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14
[그림 III-5-1] 청년 대상 결혼 및 출산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평균 점수) ...	118
[그림 IV-2-1] 자녀에 대한 태도	155
[그림 IV-2-2] 기혼자에 대한 태도	160
[그림 IV-3-1] 저출산 대책의 도움 정도(평균 점수)	165
[그림 V-2-1] 정책 대상별 중점 지원 정책	198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청년 미혼 남녀의 만혼 및 비혼 현황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서의 결혼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특히, 청년층의 결혼 연기가 자발적 원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인지, 혹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기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고, 결혼 연기와 달리 결혼 의향 자체가 없는 비혼의 원인과 실태를 보다 면밀히 고찰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음.

나. 연구 내용

- 기존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만혼화 실태 및 청년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분석
- 저출산 기본 계획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비혼 및 만혼 사유 등에 관한 경향 정리
- 청년층의 미혼 남녀의 향후 결혼 의사 및 계획 등 비혼 실태 파악,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족관의 변화를 고찰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인구총조사 등 통계자료 분석, 청년 미혼자 1,073명의 결혼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40대 미혼 남녀 16명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실시

라.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 청년의 정의

○만 20~44세의 미혼 남녀를 의미함.

□ 비혼의 정의

- 협의의 비혼의 의미를 사용하여, 스스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즉 결혼할 의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함.
- 비혼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결혼 연기라 하며, 개인적인 가치관 혹은 신념에 기인하여 결혼을 미루는 경우 자발적 결혼연기, 사회·제도적 장벽에 의한 결혼 연기를 비자발적 결혼 연기로 구분함.

2. 연구의 배경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층 및 결혼지원 경과 및 현황

- 2009년 이후 결혼을 통한 출산 유도 방식으로 전환
 -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결혼지원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성이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제로 등장
- 2016년부터 결혼 장려정책으로 청년층 고용과 거주 대책의 강조
 - 기존의 가족관계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약화되고, 청년층 대상 일자리 대책과 주거대책이 강조됨.

□ 청년 비혼화에 관한 선행연구

- 남성의 경우 결혼 전 취업과 경제적 기반 마련의 영향이 큰 반면, 여성의 경우 연령 규범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여성의 사회진출로 여성의 삶에서 개인의 커리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혼 적령기에 대한 영향보다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
- 남성 경우 취업을 하거나 상시직을 가질 경우 결혼 확률이 높아지지만,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할 경우 결혼 확률이 낮아지고 초혼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임.
-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결혼 희망 연령은 낮아짐.
- 혼전 동거에 수용적일수록 결혼 희망연령이 높음.

- 점차 혼자 살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결혼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짐.
- 청년층 결혼 및 가족 형성 관련 현황
 - 혼인율 변화 및 미혼자 특성
 -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
 - 남녀 모두 30대에 미혼 취업자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40대 초반에도 미혼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취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동안 미혼 상태로 남아 있는 청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세대별 초혼 연령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사이의 변화가 특징적임.
 -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걸린 기간은 모든 세대에서 약 6년가량임.
 - 1인 가구 증가 추이 및 출산율 변화 추이
 -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남성은 30세 이후, 여성은 25~29세에서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초산 연령도 증가하고 있어, 특히 30대 여성의 출산율 제고가 관건임.
 - 전체 출생아 중 혼외 자녀의 비중은 2% 내외이며, 지역별로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음.

3. 청년층 미혼 실태 및 결혼 가치관

가. 조사 개요

- 실태조사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 20~30대 미혼 남녀 1,000명을 목표로 성, 연령,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73명(남성 536명, 여성 537명)이 조사됨.
 - 연령별로 20대가 51.8%, 30대가 48.2%이며, 학력별로 남녀 모두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가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 대도시 418명, 중소도시 430명, 농어촌 225명이 조사됨.

- 심층면담은 40~44세 미혼 남녀를 대상을 실시됨.
 - 1회 면담에서 각 4인씩 4회의 면담이 실시되었으며, 성별 및 소득수준별로 집단 면담 실시

나. 청년 미혼 실태

- 결혼 의향
 -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74.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자 비중이 높아짐.
 - 결혼 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결혼 연기자들의 미혼 사유는 1순위가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26.4%)'였으며, 다음으로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21.7%)', '소득이 적어서(14.1%)' 순이었음.
 -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비혼자)의 미혼 사유는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 비중이 높음.
- 미혼 실태
 - 자발적 결혼 연기자 45.9%,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28.6%, 비혼자 25.5%로 조사됨.
 - 인적특성별로 30대 남성의 경우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높음.
 - 결혼 연기 사유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39.7%)'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결혼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33.0%)',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15.3%)' 순임.

다. 결혼 가치관에 대한 견해

- 결혼의 의미 및 개방적 성관계 대한 태도
 - 결혼의 의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은 80% 이상의 동의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40% 이하의 동의정도로 낮은 평가를 나타냄.
 -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혼과 결혼의향이 있는 결혼연기자 사이에 견해 차이를 보임.

- 성별, 연령별로도 견해 차이를 나타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라는 의견에는 30대(남성 96.1%, 여성 97.1%)가 20대(남성 92.2%, 여성 91.2%)에 비해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냄.
 -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점에서는 여성(20대 74.3%, 30대 69.7%)이 남성(20대 80.0%, 30대 82.0%)보다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냄.
 -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혼전 성관계(80.3%), 결혼 후 아이 출산의무(76.2%) 등에 대해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낸 반면, 혼인신고 외 동거(57.1%), 혼외 출산(42.%)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게 나타남.
 - 결혼 의향이 없는 비혼의 경우 '혼인신고 외 동거'(86%), 혼외 출산(50.4%)에 대한 동의정도가 결혼연기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신고 외 동거', '혼외 출산'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내어 보수적인 결혼관을 보이거나 '결혼 후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결혼 문화 및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
- 결혼 문화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67.6%), 결혼보다 지금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63.7%)에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비혼자들이 결혼연기자에 비해 '신혼집은 신랑이 살림은 신부' 및 '결혼식은 격식을 차려야 한다' 등의 전통적인 결혼문화에 대해 유의미하게 낮은 동의 정도를 나타냄.
 - 비혼자들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90.5%)은 결혼연기자보다 33%이상 높게 나타나며, '결혼하고 싶은 욕구'(18.6%)는 결혼연기자에 비해 55%이상 낮게 나타남.
 - 30대 여성의 경우 결혼에 비해 현재 생활이 좋다는 의견(71.6%)이 20대 남성(53.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결혼 시기에 대해서는 '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72.6%)라는 의견에 동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58.5%)라는 의견에는 비교적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냄.

- 여성이 '결혼적령기가 없다'(20대 53.6%, 30대 57.9%)는 의견에 남성(20대 40.7%, 30대 40.6%)보다 더욱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냄.

□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

-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 87.1%로 매우 높았고, 자녀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중은 39.9%로 낮게 나타남.
- 다만, 다른 영역의 가치관에 비해 미혼상대별,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20~30대 남녀의 전반적인 인식으로 보여짐.

라. 비혼 및 1인 가구에 대한 견해

□ 비혼자에 대한 견해

- 전반적으로 비혼자는 여가를 더 즐길 수 있고 자유롭지만(90.8%)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는 의견(64.3%)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고(46.1%), 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받는다(30.1%)라는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미혼상대별 의견을 보면 비혼과 결혼연기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문항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의 의견은 결혼연기자는 50%이상의 동의정도를 나타낸 반면 비혼자는 26% 동의정도를 나타냈으며,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 할 것 같다'라는 의견에도 결혼연기자들은 70%이상의 동의정도를 보인 반면, 비혼자들을 33.6%만이 동의하였음.
- 비혼으로 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경제적 능력(66.6%)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안정적인 일자리(11.45%) 및 독립적인 성격(9.9%)이 그 뒤를 이었음.

□ 1인 가구에 대한 견해

-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로는 전반적으로 능력개발(90%), 간섭받지 않음(89.7%),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음(87.3%), 가족부양 책임 없음(84.3%), 자유로운 이성교제(78.4%) 등에 높은 동의를 보임.

마. 청년층 결혼지원 대책에 관한 의견

- 전반적으로 주거대책이 일자리 대책에 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됨.
 - 세부 사업별로는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평균 3.10점(만점 4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평균 3.0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이 2.5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이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남성의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짐.
- 청년 주거대책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0.7%와 80.2%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며, 성별과 연령별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임.

4. 청년 미혼자의 가족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가. 출산 의향 및 조건

- 출산의향
 - 본 조사에 응답한 1,073명 중 출산의향에 관한 질문에 75%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 및 미혼상태별로 결혼연기자는 90%가 출산 의향이 있는 반면 미혼자는 남성 45.8%, 여성 33.5%만이 출산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 희망 자녀수에 관한 질문에 2명이 59.6%로 가장 많고, 3명이상 20.5%, 1명

19.9%였으며, 20대는 평균 2.2명, 30대는 2.0명으로 20대가 조금 더 많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희망 자녀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37.3%)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28.7%)와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14.9%)가 뒤를 이음.

□ 출산 및 양육 조건

- 자녀의 출산 및 양육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었고, 그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으로 나타남.
 - 성 및 미혼상태별, 인적특성별, 일자리특성 그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뽑았음.
- 첫 아이 출산 희망 시기로는 ‘적정소득 수준유지’가 38.4%로 가장 많았고,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가 24.0%, ‘출산 적령기를 넘지 않을 때’가 10.4%로 뒤를 이음.

나. 가족 가치관

□ 자녀필요성

-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43.0%는 ‘있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였으며, 36.2%는 ‘없어도 괜찮다’, ‘꼭 있어야 한다’ 14.8%, ‘없는 것이 낫다’ 6.1%로 나타나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이 57.8%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
 - 특히, 결혼연기자는 과반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혼자는 남성 77.6%, 여성 84.5%가 필요성에 낮은 동의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남.

□ 가족관 및 가족가치

- 조사 대상자들에게 자녀에 대한 태도를 물어본 결과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90%가 동의하고, ‘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83.2%가 동의하였으며,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77.4%,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데 62.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혼자에 대한 태도는 '행복해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48.4%만이 동의해 절반에 못 미쳤고, 오히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는 데 58.4%가 동의해 기혼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가 적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비혼자의 경우 기혼 가정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가 적으며, 자녀 필요성에 낮은 동의를 보이는 경우 비슷한 성향을 보임.
- 남성보다는 여성이, 20대 보다는 30대가 그리고 대졸미만 보다 대졸이상에서 기혼 가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 저출산 대응정책 전반 및 청년층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 저출산 대응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지원 영역의 모든 사업들이 평균 3.1점 이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결혼지원을 위한 청년 주거·일자리 대책은 가장 낮은 평가를 나타냄.
-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에서는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문제 해결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인식한 비율이 72.7%로 일자리 대책보다 높은 평가를 나타냄.
- 전반적으로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20대에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일자리 대책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임신·출산 지원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이 72.7%로 가장 높고, 산모와 신생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70.3%로 순으로 나타남.
- 특히 20대 여성의 도움 정도 인식 수준이 두드러지게 높음.
- 자녀 돌봄 지원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이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해당 비율은 특히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에 80.5%에 달함.
- 일·가정 양립지원에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의 조성 및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6.0%와 75.1%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미혼상태와 자녀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도움 정도 평균 점수가 두드러지게 높음.

5. 결론

□ 미혼 청년층을 위한 결혼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의의

- 가족됨과 자녀 양육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인식 개선 필요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초·중·고등 학교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강화
- 양성 평등적 육아문화의 정착과 확산
 - 양성 평등적 육아문화의 형성과 이러한 인식의 확산이 청년 미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요구됨.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중심의 남성 육아 참여 지원 방안을 넘어선 일상 생활에서의 아버지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지원 정책의 확장이 요구됨.
- 일자리 및 주거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의 실효성 제고
 - 일자리 및 주거 지원은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청년들의 결혼으로의 이행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다만,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이 제한적으로 실제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 촉진을 위해 보다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청년 미혼 남녀의 만혼 및 비혼 현황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서의 결혼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초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¹⁾에 머물며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양육 부담과 함께 청년층의 낮은 혼인율과 만혼화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삼식·이지혜(2014)는 연령별 출산율을 혼인력 지표와 출산력 지표로 분해하여²⁾ 분석한 결과,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유배우 출산율의 저하보다는 유배우율이 낮은 현상에 기인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2005~2013년 기간에는 20대와 30대의 유배우 출산율이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가 유배우율의 감소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삼식·이지혜, 2014: 87).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청년들의 만혼화 및 혼인율 저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취업 및 경제적 부담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결혼 연기(유홍준·현성민, 2010; 안태현, 2010; 김승권 외, 2012; 오창섭·최성혁, 2012; 최필선·민인식, 2015 등)와 둘째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연기 혹은 결혼 기피(박정윤·김예리, 2010; 진미정·정혜은, 2010; 문선희, 2012; 원아름·박정윤, 2016 등)를 들 수 있다³⁾. 그런데, 이들 연구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력이 결혼 연기 등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는 있으나,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소 분절적으로 수행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최근 청년층의 결혼 연기 혹은

1)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2016.11.30. 인출).

2) 저자는 유배우율을 만혼화 관련 측정지표로, 유배우 출산율을 기혼여성의 출산력 관련 측정 지표로 활용하였다.

3) 일부 만혼화 및 비혼 연구는 미혼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만혼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혼자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별도의 만혼 원인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은 결혼 기피 현상이 실제 일자리 및 주거비용과 같은 사회·경제적 부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인지,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과론적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사회·경제적 원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대한민국정부, 2016: 26).

그런데,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청년층의 결혼 연기가 사회·경제적 요인을 넘어선 가치관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201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34세(10.2%)와 25~29세(10.0%)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⁴⁾. 특히 각 연령대별 총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청년층에서의 1인 가구 증가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포착되는데, 25~29세의 청년 중에서 1인 가구는 2000년에는 7.8%에 불과했으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7.2%까지 증가하였고, 30~34세 전체 청년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도 2000년 5.7%에서 2015년 14.8%로 15년 사이에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⁵⁾.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에 실시된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20~44세)의 60.8%⁶⁾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여전히 다수이긴 하지만, 응답자의 33%가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응답도 3.9%로 상당수가 결혼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이삼식 외, 2015: 332). 특히, 결혼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취업자인 경우에도 매우 높아서, 취업 미혼 남성의 38.2%와 취업 미혼 여성의 57.4%가 이에 해당하였다(이삼식 외, 2015: 333~334). 이는 미취업 남성의 35.0%와 미취업 여성의 58.8%가 결혼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이삼식 외, 2015: 333~334),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 할지라도 청년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 의사를 갖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청년층 결혼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

4)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2016.10.13. 추출)

5)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2016.10.13. 추출)

6)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18.1%, 하는 편이 좋다 42.7%를 합산한 값이다.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에도 일자리, 주택 지원 등 청년층 결혼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청년층의 만혼 및 비혼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36).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및 결혼관과 가족관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청년층의 결혼 연기, 즉 만혼 현상이 자발적 원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인지, 혹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기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고, 결혼 연기와 달리 결혼 의향 자체가 없는 비혼의 원인과 실태를 보다 면밀히 고찰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저출산 대책의 방향에 대해 숙고해 보고, 만혼화 및 비혼화 현상이 단순히 사회구조적 문제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닌지 점검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 확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이 2개월 남짓으로 매우 짧아, 전반적인 연구의 내용은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 및 비혼 실태와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족관 변화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즉,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서의 청년층 결혼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만혼화 실태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만혼화 실태 및 청년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분석하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비혼 및 만혼 사유 등에 관한 경향을 정리하였다. 둘째,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층의 미혼 남녀의 향후 결혼 의사 및 계획 등 결혼 관련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족관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셋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현행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고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청년층의 비혼화 경향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유추해보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년층의 미혼 원인 및 전반적인 인식 변화, 현행 저출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청년 1인 가구 증가 추이 분석 및 청년층 미혼 현황 정리를 위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인구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기존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 및 가족관 변화, 결혼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 연령, 지역 규모에 따라 표본을 유의 표집하였으며, 총 1,073명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실태조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II장 1절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넷째, 실태조사 시 표집에 어려움이 있는 40대 미혼 남녀에 대해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결혼 의향 등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2회의 정책실무 협의회를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표 1-3-1〉 심층면담 인원

단위: 명

회차	면담 대상	비고
1차	40대 남성 4인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
2차	40대 여성 4인	월평균 소득 400만원 미만
3차	40대 남성 4인	월평균 소득 400만원 미만
4차	40대 여성 4인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가. 청년의 정의

본 연구에서 청년이라 함은 만 20~44세의 미혼 남녀를 의미한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위키백과, 2016.11.28. 자료인출). 그런데, 실생활에서 통계청은 15~29세의 남녀를 청년으로 간주하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39세까지의 남녀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대한민국 정당은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

정(위키백과, 2016.11.28. 자료인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연령 범주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법 제도상에서 청년의 연령도 동일하지 않은데, 고용 촉진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서의 청년은 만 15세~29세 혹은 만 15~34세이며⁷⁾,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⁸⁾를 청년층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산 혹은 결혼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도 청년층 혹은 미혼자 연령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법 제도상의 연령 범주에 비해 다소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은 만 20세~40세 미혼자로 보는 경우(김성준, 2015)부터, 20~39세(김도희, 2012), 30~39세 미혼자(이성희·권현수, 2015 등), 25~39세 미혼자(호정화, 2014 등), 만 20~44세로 보는 경우(김중백, 2013 등) 등 연구 목적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만혼화 경향 및 여성의 출산 연령⁹⁾ 등을 고려하여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의 미혼자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표본 모집단에서 40대 미혼 남녀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다, 본 조사의 표본이 1,000개 내외로 한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20~39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때, 전체적인 모집단 표본의 수는 적지만 만혼 및 비혼 현상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기대되는 40대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비혼 경향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나. 비혼의 정의

비혼(非婚)이란, ‘미혼(未婚)’이라는 단어가 ‘언젠가 결혼할 것이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의 변화를 담자는 의미에서 제안된 용어이다(정현희, 2011: 233). 비혼(非婚)의 사전적 의미는 명확치 않으나 네이버 오픈사전(2016.11.29. 인출)에 따르면, ‘미혼은 혼인은 원래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 하지 않은 것’의 의미를 일컫는 경향이 크다고 하여 ‘혼인 상태가 아님’이라는 보다 주체적인 의미로 여성

7) 고용정책 기본법 제 25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2조에 근거한다.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에 근거한다.

9) 최근 45세 이상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35세 이상의 출산이 의학적으로 고령 출산에 해당하고(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3), 45세 이상 출산율이 2015년 기준 0.2%에 불과(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 2016.11.29. 인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45세 이상은 청년 미혼자에서 제외한다.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라고 정의되어 있다¹⁰⁾. 다른 한편으로는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미혼(未婚)과 달리 '결혼을 스스로 혹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사회적 용어로, '비혼'이라는 단어 속에는 결혼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137)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혼주의자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를 일컫는 말로, 혼인할 의지가 없거나 나아가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사람(네이버 오픈 사전, 2016.11.29. 인출)으로 구분되며, 독신 혹은 독신주의와 맥락을 같이하곤 한다(나무 위키백과, 2016.11.29. 인출).

1990년대말 즈음부터 '비혼'이라는 단어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¹¹⁾, 초기 비혼에 관한 연구는 주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고학력 혹은 고소득 미혼 여성의 결혼 기피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여성학계를 중심으로 '비혼'이라는 단어를 '미혼' 혹은 '독신'을 대체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함에 따라, '미혼=비혼'으로 개념이 정착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즉, 비혼의 개념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협의의 '비혼'에서 시작하여, 점차 '결혼하지 않는 상태'인 광의의 의미(심경미, 2003: 11)로 확장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같은 개념의 혼재는 결혼 및 가족 가치관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비혼자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¹²⁾(김혜영 외, 2007)로 보는 경우부터,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자(호정화, 2014; 이재경·김보화, 2015 등)를 지칭하는 경우, 결혼 연기와는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혼을 사용하는 경우(진미정·정혜은, 2010; 이성용, 2013 등)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미혼이 증가하는 원인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미혼 집단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의미에 초점을 두어 '미혼'을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

10) 하지만, 미혼의 사전적 의미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2016.11.29.인출)고 되어 있어, 미혼과 비혼의 개념이 다소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1) 한국에서 '비혼'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비혼'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확산된 계기는 언니넷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비혼선언문(2007년3월10일)>이라고 여겨진다(김미숙, 2011 :p.29~31).

12) 결혼 경험이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사별, 이혼 등을 포함한다.

로 보고, '비혼'은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여 '스스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즉 결혼할 의향이 없는 사람을 '비혼자'로 구분하였다. 반면, 미혼자 중 '언젠가는 결혼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비혼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결혼 연기자'로 구분하였다.

결혼 의향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자발성 및 적극성	미혼사유 : 자발적	미혼사유 : 비자발적	비혼 사유
	1.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3.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4.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9. 결혼보다 일이나 자기계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0. 결혼 후의 사회적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2.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5. 소득이 적어서 6.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실업상태라서 7.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주택마련 및 결혼 비용 등) 8. 결혼생활과 직장 일 병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11.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 아무런 이유 없이 결혼이 싫어서 2.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 3.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4. 직장과 가정생활을 다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 자아 계발에 제약이 생기므로 6.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싫어서 7.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8.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대상 구분	자발적 결혼 연기	비자발적 결혼 연기	비혼
미 혼 자			

- 주: 1) 비혼 사유는 비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제시된 것으로,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2) 사유 앞의 일련번호는 설문지상의 항목 번호를 의미함.

[그림 1-4-1] 미혼자 범주 구분

한편, 본 연구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결혼 연기자'를 자발성 혹은 적극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발적 결혼 연기와 비자발적 결혼 연기로 다시 구분하였다¹³⁾. 이는 결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자발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는 결혼 연기 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적인 가치관 혹은 신념에 기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경우로, 사회·제도적 장벽에 의한 결혼 연기를 비자발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¹⁴⁾. 이러한 구분 방식은 자의성이 강하여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결혼이 지연되는 사유가 하나의 이유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가 Stein(1981)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p.137에서 재인용), 본 연구도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미혼자의 범주 구분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I-4-1]과 같다.

13) 본 연구가 미혼자를 자발적 미혼과 비자발적 미혼으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본 연구에서의 사용하는 '미혼'의 정의상 '미혼' 자체가 어느 정도 미혼자 자신의 적극적 의사 선택의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며, 둘째, 미혼자 집단을 자발성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점이었다.

14) 본 연구는 실태조사 당시에서는 미혼 사유를 3개까지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구분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층 및 결혼지원 경과 및 현황

2016년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계획)”에 의하면,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잠재적인 출산 인구로서 청년층에 보다 주목하고, 이들의 결혼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발표된 청년층 대상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을 다루되, 이에 앞서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 대한 저출산 대응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았다.

가.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의 저출산 대응 추진 경과

결혼 지연 및 포기과 그에 따른 출산을 저하는 2006년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주된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이에 대해 결혼지원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발표된 제1차 저출산 계획 보완판에서부터이다. 다시 말해, 만혼화와 비혼화 현상 등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는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주목해왔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은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가족가치관 확립 즉 가족문화 조성이 강조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결혼을 통한 출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기존의 출산과 양육 이외에도 결혼을 추가함으로써 그 포괄범위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다른 한편으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포용성도 동시에 강조되므로,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저출산 대응의 측면에서 상충되는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제1, 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 대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2006~2008년)

: 양성평등 교육, 가족지원서비스 내실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결혼관 및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를 들고 있었다(관계부처 합동, 2006: 16). 즉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가 결혼연령의 상승, 미혼율의 증가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점과제로서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06: 22). 또한,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목표는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가사와 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이 제시되었다. 학교교육 부문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 가족가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 개발이 미흡하므로, 결혼과 가족의 가치, 그리고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06: 72~73) 사회교육 부문의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교육과 동일한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가족가치와 양성평등 의식의 고취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민간단체의 사회교육사업과 민관협력사업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부문에서는 가족관계 증진과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 미흡하고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연계 등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이에 따라 세부 계획으로 가족유형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문화 유형별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가족 단위 여가문화(문화예술 체험 등) 지원, 지역내 도서관과 박물관 등 부모와 자녀, 이웃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06: 74).

이처럼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변화된 결혼 및 가족가치관에 대한 저출산 대응으로, 양성평등 및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 및 사회교육, 그리고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강화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에 주력하였다.

2)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보완판(2009~2010년),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년):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과 결혼장려 대책

가)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보완판

2009년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보완판에서는 2006년과 유사하게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가임 기간 단축, 불임 증가 등이 저출산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공감하나, 단 기간 만혼화에 대한 “직접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대한민국정부, 2009: 60). 이에 따라 만혼화에 대응한 세부 정책으로 이른바 결혼장려 대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출발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결혼지원 사이트 확대 개편을 통한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과 대학생 및 결혼예정자 대상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9: 61). 다음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방안으로는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및 주거비 경감을 통해 결혼 및 출산을 촉진하고자 보금자리 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계획이 마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9: 63). 즉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민임대 주택,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60㎡ 이하 소형분양주택의 30%와 전세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 기금을 통해 저리 구입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나)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2011년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20~30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약화되는 추세임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① 고용과 소득불안정, ②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③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부족 등,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유사하게 진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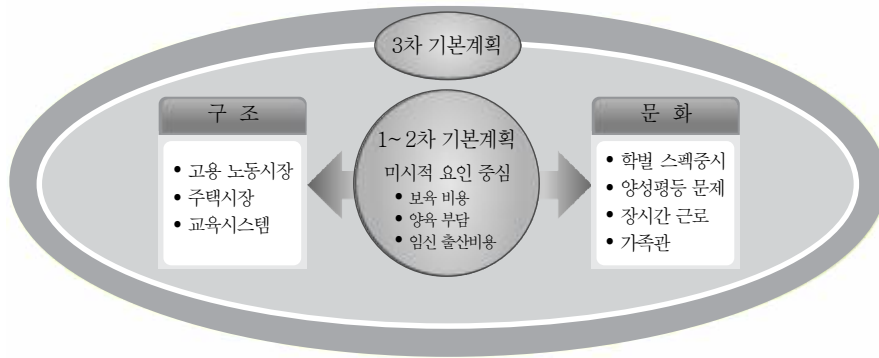
이에 따라 동 계획에서는 주요 과제로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결혼을 덧붙여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을 설정하고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추구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72). 이를 위해 이전 시기부터 추진되어 온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부담 완화,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 더하여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가 세부 과제로 새롭게 명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72~73). 우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에 무주택 기간 제한을 폐지하였고,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72). 또한 결혼장려대책으로는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 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한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등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73). 또한 결혼 준비 등 결혼관련 종합정보의 제공, 지자체·지역기관·기업 등과 연계한 임신·출산·육아체험 등 결혼준비 프로그램 제공, 결혼관련 교양프로그램 개발 운영 유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내실화 등이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11: 74).

나. 청년층 대상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2016~2020년)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최근 발표된 보완판을 위주로 청년층 대상 결혼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만혼과 비혼화에 따른 결혼율 하락과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었으나, 그간의 결혼지원이 주거 분야 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특별공급 등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26). 즉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준을 2010년 부부 합산 소득 연간 5천만원에서 2011년 5천 5백만 원, 2014년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만혼 및 비혼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여 인식·문화 개선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일자리·주거·결혼비용 등 결혼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 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응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37)(그림 II-1-1 참조). 다시 말해 보육대책 중심의 저출산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 등 구조·문화 대책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그 일환으로 만혼 문제의 해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38). 또한 청년 일자리·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연령별 결혼률을 약 10% 제고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47).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38.

[그림 II-1-1]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방향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확대 교육개혁	일 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주거 안정 결혼친화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출산 국가 책임 포용적 가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 부모 관점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격차 해소 행태 문화 개선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 활성화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결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출산 사회시스템 확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보육 돌봄 지원체계 강화 교육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가정양립실천 분위기 확산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실천 격차 해소 일 가정양립 지원제도 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55.

[그림 II-1-2]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

이를 토대로 동 계획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새롭게 명시된다(그림 II-1-2 참조). 즉 저출산 대응의 주요 방향으로 기존 대책의 맞춤형 돌봄지원과 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이외에도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만혼 추세의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청

년고용 활성화와 주거문제 해결에 주력한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54). 각 세부 계획으로는 다음이 제시된다.

1) 청년고용 활성화

주요 배경으로는 성장과 고용 연계의 둔화와 인력 미스매치 및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의 전제가 되는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고, 특히 낡은 노동시장 제도 관행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어 청년을 중심으로 취업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56~57).

이에 따라 추진 계획으로는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 질 제고,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및 일자리 영토 확대, 주된 일자리로서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계 강화,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이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57~60). 구체적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의 제도 및 관행 전반을 개혁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서비스 산업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국가별 직종별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상생서포터즈 청년 창업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창업 선도대학 내 거점형 프로그램 확산 등을 통한 창업을 활성화한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활성화, 진로지도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유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충과, 청년이 정부지원 사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처별, 사업별로 산재된 청년고용정책을 워크넷을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편의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주요 배경으로는 매년 약 30만 가구가 결혼하지만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5년, 10년 특별공급 등 약 1, 2만호 수준에 그치고,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61).

이에 따라 추진 계획으로는 청년 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 학생부부와 주거여건 개선,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61~63).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며, 예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결혼 전이라도 공공임대 주택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국립대 기숙사 건립 시 기혼 대학(원)생 숙소를 5%이상 확보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며(수도권 1억 → 1.2억, 비수도권 0.8억 → 0.9억),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금리 우대(0.2%)를 실시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며(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 이하 → 70% 이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을 향후 5년간 5.3만호 공급하고, 국민, 5년 10년 임대 등 공급 확대, 장기 거주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신혼부부 나이가 어릴수록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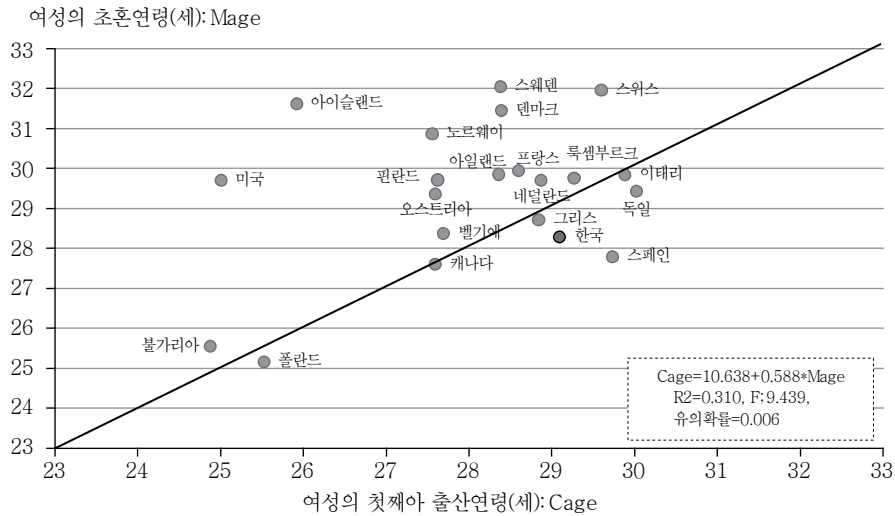
한편 올해 8월에 발표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서는 2016년 5월까지 출생아수가 1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1만명) 감소하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가 12.0만 건으로 작년 대비 7.3% 감소하였다고 지적하고, 고용 및 주거 등 결혼지원의 성과 및 한계점으로 다음이 제시된다(보건복지부, 2016: 3). 즉 주요 성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주 지원 → 청년자산형성지원) 신설과 고용디딤돌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존 11개소에서 16개로 확대된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입법 지연, 임대주택 공급 시차 등의 영향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의 체감도가 낮은 점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2. 청년 비혼화에 관한 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청년 비혼 및 만혼화 현상을 출산율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청년 비혼 및 만혼화 현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먼저, 비혼 및 만혼화 현상의 배경으로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를 결혼에 대한 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비혼 및 만혼화 현상의 원인을 인구사회학적 원인, 사회경제적 원인, 가치관의 변화의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혼 및 만혼화 현상과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가. 결혼 및 만혼화 현상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2005년 30.9세에서 2015년 32.6세로 증가하고,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같은 기간에 27.7세에서 30.0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16). 이러한 미혼의 비율과 초혼연령의 증가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저출산 현상에는 전체적인 인구의 감소로 가임여성의 수 자체의 감소, 유배우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과 함께,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의 비율과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진미정·정혜은, 2010: 32). 특히 여성들의 초혼연령이 높아지면 초산연령이 높아져서 결국 가임기의 출산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만혼화 현상과 출산율은 높은 연관성이 있다(김연옥, 2016: 147).



자료: Eurostat(2010). 출산 및 결혼연령 자료 DB (김태홍·김동식·김은지·배호중·민현주, 2011.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p.43에서 재인용).

[그림 11-2-1] 주요 선진국의 여성 초혼연령과 초산 연령 분포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림 11-2-3]에서 보듯이, 미국,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등 많은 나라들이 초혼연령보다 초산연령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거나 결혼보다 출산

을 먼저 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얼마나 강하게 결혼을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보는지의 가치관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또한 OECD 26개 국가의 혼외 출산율 수치를 보면 통계기준 연도 2005~2007년의 혼외출산율이 아이슬란드(64.1%), 멕시코 (55.1%)가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38.5%), 아이슬란드(32.8%) 등 26개국 중 20개국이 30%이상의 혼외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Eurostat, 2010: 김태홍·김동식·김은지·배호중·민현주, 2011: 44에서 재인용). 이는 우리나라에서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결혼을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의 유무와 결혼의 시기가 저출산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을 둘러싼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결혼의 의미

전통적인 관점에서 적정시기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던 시대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결혼이 특정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비혼 및 만혼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 결혼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준거를 통해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지 결혼이 갖는 의미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성준(2015: 59~60 재인용)에 따르면, 결혼을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최초의 경제학자인 Becker(1981)는 신가정경제이론에서 결혼은 결혼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결혼을 하지 않을 때보다 클 때 선택하게 되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결혼에 의한 일반적인 이점은 가족 내의 성별에 따른 노동의 분업이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가정 내에서 경제적 부양의 역할을 하고 여성은 가사일과 양육의 일을 맡음으로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점차 여성의 학력도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입장에서 경제적 부양을 위한 노동을 하면서도 가사 일에 육아를 해야하는 부담을 더 느끼게 되어, 결혼으로 인한 이익이 감소한다(김성준, 2015: 60).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으로 인한 이익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한편, Oppengeimer와 Lew(1997)은 결혼시점이론을 제창하면서 여성의 교육수준향상이 비혼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결혼시기 연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여성의 교육수준향상은 여성의 결혼시기만 연장할 뿐 여성도 경제

적인 독립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연장한다는 이론이다(이성용, 2013: 614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 주장은 가치관의 변화로 혼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비혼의 경향은 설명하지 못한다.

다. 비혼 및 만혼화 현상 원인

비혼과 만혼화 현상에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교육수준, 취업유무, 소득수준,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력과 관련된 변인들을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의한 요인들을 가치관 변화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 성별

성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현상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결혼의 유무와 결혼의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절변수로 작용한다. 은기수(1995)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자료 중 개인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 남녀가 결혼으로 이행할 때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결혼적령기, 즉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혼의 적절한 나이(연령규범)에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결혼 전에 교육, 취업 등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순서규범)에 영향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남성은 순서규범에 더 영향을 받고, 여성은 연령규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높았다(은기수, 1995: 90~91).

여성과 남성이 결혼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 이후에 살펴볼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변수의 영향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나) 연령

연령과 결혼률에 대해서 최필선·민인식(2015: 74)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 여성 모두 결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점차 증가하다가 남성은 35세에, 여성은 33세에 급격히 결혼발생이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연령과 결혼의

향에 대해서도 20대에는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과 결혼선택의 관계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2006: 65; 김혜영·선보영, 2011: 28; 문선희, 2012: 15; 김중백, 2013: 12).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적령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줄어드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임선영·박주희, 2014: 183).

2) 사회구조적인 요인

가) 교육 수준 및 취업유무

1980년도에 남성의 경우 18%, 여성의 경우 6.3%이던 대학졸업률이(30-39세 기준), 20년 후인 2000년에 남성의 경우 64%, 여성은 3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¹⁵⁾. 이렇듯 20년 사이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교육기간이 늘어나면서 초혼연령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비혼 및 만혼의 원인을 연구한 1990년대 초기 연구들이 교육수준의 향상과 초혼연령의 증가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지하였다(이삼식, 1993; 은기수, 1995). 교육수준별 결혼에 미치는 차이는 남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김성준(2015: 7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변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여성의 경우는 석박사 졸업자는 대졸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0.4배 낮아졌다.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33)은 1998년에서 2002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0년 이전, 1990~1997년, 1998년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코호트별 비교를 통해 산업화로 인한 직종의 변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 여성 가치관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의 결혼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속되는 현상으로 낮은 교육수준은 상용직을 가질 확률을 떨어뜨려, 초혼시기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동시에 1998년 이후 포함된 취업변수는 초혼시기를 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51). 반면 여성의 경우는 1990~1997년 사이에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초혼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교육수

15) 2000년 인구총조사(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p. 35 재인용)

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업을 할수록 미취업 여성에 비해 초혼이 늦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55).

최필선·민인식(2015: 80~81)의 연구에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도 취업이 결혼으로의 이행률을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은 남성에게만 결혼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김중백(2013)은 성별, 연령, 취업유무, 부모의 이혼, 취업, 가치관의 변화 등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조절변수라고 설명하였는데(<표 II-2-1>에서 자세한 내용 참조), 각 분석변인들과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별과 결혼의향간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결혼의향을 보이거나, 30-34세일 때, 4년제 대졸이상일 때, 취업을 했을 때 특히 다른 연령의, 4년제 대졸 이하의,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 더 낮은 결혼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직종 및 기타 경제적 변수

청년 실업률, 상시직 비율, 주택 가격 등 경제적 여건이 결혼에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오창섭·최성혁(2012: 106~109)의 연구에서는 실업률과 임시직 비율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초래하여, 결혼률 및 초혼연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택가격의 상승 역시 신혼살림의 주택을 마련할 확률을 낮추어 결혼률을 낮추고 초혼연령을 상승시키는 현상을 초래한다. 또한 경제력에 대해서는 남성 취업자의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1.65배 높아졌고, 상시직을 가진 사람이 상시직이 아닌 경우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1.60배 높아졌다(김성준, 2015: 70). 이렇게 경제적 요인이 결혼 의향이나 결혼의 연장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게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난다.

일부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결혼의향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에 따라 엇갈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미혼여성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을 하려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가 있는 반면(문선희, 2012: 15),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 300만원 이하의 집단이 300만원 이상의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혜영·선보영, 2011: 22). 이 외에도 연령,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 및 경제력에 관련된 변수들이 결혼의향 및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표 II-2-1>에 정리하였다.

〈표 II-2-1〉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결혼의향 및 결혼연령과의 관계

저자	분석 자료	분석 변인	종속변수	분석결과
김성준 (2015)	한국노동 패널 (만20~40 세 남녀 총 524명)	학력, 경제력(직업유무, 직업 안정성 여부, 월평균 소득, 만 14세 때의 가정형편), 탐색비용	결혼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학력 높을수록 결혼확률 낮아짐 • 남성: 취업자일수록, 상시직일수록 결혼할 확률 높아짐 • 가정형편 낮을수록 결혼할 확률 낮아짐 • 형제수 많으면 결혼확률 높아짐
김중백 (2013)	20-44세의 미혼 남녀 3,314명	성별, 연령, 부모와의 동거, 부모의 이혼, 형제관계, 교육, 취업, 가구수입, 부모경제지원, 가치관 변수(남녀성역할 자녀가치)	결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여성이 남성보다, • 연령: 33-44세가 20-24세보다, • 부모가 이혼할수록 결혼의향이 낮음 • 취업할수록, 결혼의향 높음
김혜영· 선보영 (2011)	29~44세 미·기혼 여성 1500명 설문조사	연령, 교육수준, 직종, 직장만족도, 지원정책 종류	결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낮을수록, • 교육수준 낮을수록, • 블루칼라 집단일수록, • 직장만족도가 낮을수록, • 직접적 지원정책이 있을수록 결혼의향 높음
문선희 (2012)	여성가족 패널자료 2차년도 (824명의 미혼여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고용상태	결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낮을수록 • 가구소득 낮을수록 • 취업중일수록 결혼의향 높음
			기대 결혼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많을수록 기대결혼연령 높음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한국노동 패널조사	학력 취업여부 직종의 지위	초혼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1998년 이후- 고학력일수록, 취업할수록, 결혼시기가 빠름 • 여성: 1997년 이전은 고학력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결혼시기가 빨랐으나, 1998년 이후 취업할수록, 결혼시기 늦어짐

(표 II-2-1 계속)

저자	분석 자료	분석 변인	종속변수	분석결과
이만우· 김시광· 김란영 (2012)	한국노동 패널조사 (2008년 기혼 된 사람들)	부모의 경제적 의존 부모와의 동거 (=경제적 지원)	결혼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의존은 영향 없음 • 부모와 동거할수록 결혼연령 빠름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패널 (1~7차)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 교육수준, 거주지역, 일자리여부, 평균임금, 일자리 유형	결혼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35세 결혼 이행을 가장 높음, 취업률 높을수록, 임금 높을수록, 결혼 이행을 높임 • 여성: 33세 결혼 이행을 가장 높음, 취업률 높을수록 결혼 이행을 높임. 임금은 영향 없음
오창섭· 최성혁 (2012)	시도별 패널자료, 노동패널 자료	임시직비율, 주택가격종합지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15~39세 인구수	혼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직, 실업률 높을수록, 전세가격이 높아질수록, 혼인율이 감소
			초혼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직, 실업률 높을수록, 전세가격 높을수록 남성 초혼연령 증가, •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15~39세 인구 증가는 남성 초혼연령 하락시킴

- 자료: 1) 김성준(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p. 70.
 2)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pp.12-13.
 3) 김혜영·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p.28.
 4)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pp.15-16.
 5)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pp.49-53.
 6) 이만우·김시광·김란영(201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55-69.
 7) 최필선·민인식(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헤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pp.74-77.
 8) 오창섭·최성혁(2012). 저출산 원인의 실증분석: 혼인율 하락과 초혼연령 상승의 경제적 요인. 복지행정논총, 22(1), pp.106-109.

3) 가치관의 변화

기존의 비혼 및 만혼화의 원인이 여성의 고학력, 남성의 높은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요인 위주로 논의가 되어 왔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비혼 및 결혼연령의 상승을 설명하는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2~30년간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및 경제활동 진출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했음에도 가족 내 성역할이나 회사 내의 제도 등은 여전히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결혼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창순, 2012: 50).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이나 희생이 적다고 평가되고 있음에도, 개인이 가족, 출산, 양육 등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등의 가치관에 따라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달라질 것이다.

진미정·정혜은(2010)은 자녀의 필요성, 전통적 성역할분배, 결혼의 필요성과 혼전동거의 동조성 등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2005년과 2009년에 미혼남녀 5,98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2005년과 2009년의 5년 사이에 미혼 남녀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먼저, 남녀 모두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남성의 경우 남성생계부양모델에 대한 동조성은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는 혼전동거에 대한 동조성이 높아졌다(진미정·정혜은, 2010: 39).

임선영·박주희(2014)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부모와의 동거 여부만을 고려한 모델 1과 이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제공 정도를 변수로 추가한 모델 2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학적 요인만을 분석한 모델1에서는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제공이라는 요소를 추가한 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월수입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졌다. 그리고 가족가치관 중 결혼관,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고, 부모의 자원 제공 중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 부분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임선영·박주희, 2014: 189).

김중백(2013)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별, 연령만 고려한 모델 1, 가족배경(부모와의 동거, 부모의 이혼, 형제관계)을 추가한 모델 2, 사회경제적 변수(교

육, 취업, 가구수입, 부모경제지원)를 포함한 모델 3, 가치관 변수(남녀성역할, 자녀가치)를 추가한 모델 4로 나누어 로짓회귀분석을 하였다. 모델 3까지의 결과 30-34세의 4년제 대학 졸업의 취업 여성이 특히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으나, 모델 4에서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 배분에 긍정적이거나 자녀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 결혼의향에서 남성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김중백, 2013: 12~13). 이러한 결과로, 여러 인구학적인 배경,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도 개인이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나에 따라, 결혼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성희·권현수(2015: 611)는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관,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 이혼에 반대할수록, 재혼에 찬성할수록 보수적 결혼관을 가질수록,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의향 및 기대결혼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표 II-2-2>에 정리하였다.

<표 II-2-2> 가치관과 결혼의향 및 결혼연령과의 관계

저자	분석 자료 및 대상	분석 변인		분석결과
김중백 (2013)	20-44세의 미혼 남녀 3,314명	성별, 연령, 가족배경, 사회경제적 변수, 가치관 변수	결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취업 효과 통제후, 남녀성별가치관, 자녀가치관 높을수록 결혼의향 높음
김혜영·선보영 (2011)	29~44세 미·기혼 여성 1,500명	결혼 및 가족가치관, 결혼적령기, 결혼의 조건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결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은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 전통적 자녀관을 가질수록 결혼의향 높음 • 일 가정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할수록 결혼의향 낮음
문선희 (2012)	여성가족패널자료 2차년도 (824명의 미혼여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고용상태	결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 자신의 성취 점수가 낮을수록 • 전통적 결혼가치관을 가질수록 결혼의향 높음
			기대 결혼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결혼가치관을 가질수록 • 부부관계 가치관이 평등할수록 기대결혼연령 높음

(표 II-2-2 계속)

저자	분석 자료 및 대상	분석 변인		분석결과
이성희·권현수 (2015)	2012년 사회조사 자료 (30대 미혼여성 529명)	거주지역, 연령, 교육정도, 가족관계, 가족관,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견해, 경제활동 여부	결혼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낮을수록 •이혼에 반대할수록 •재혼에 찬성할수록 •보수적 결혼관을 가질수록 •경제활동 할수록(35-39세만)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높음
임선영·박주희 (2014)	30,40대 미혼남녀 300명 (서울근교 거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부모와의 동거,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요소	결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자원제공이 많을수록 •결혼성역할태도 전통적일수록 결혼의향 높음
진미정·정혜은 (2010)	2005, 2009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미혼남녀 5,894명)	결혼의 필요성, 혼전 동거 동조성, 자녀필요성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결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이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 가질수록 결혼의향 높음
			결혼 희망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이 높을수록(남녀모두) 결혼희망연령 낮음 •혼전동거에 대해 수용적일수록(여성) 결혼희망연령 높음

자료: 1)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pp.12-13.
 2) 김혜영·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p.28.
 3)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pp.15-16.
 4) 이성희·권현수(2015). 한국 30대 미혼여성의 결혼견해 영향요인: 2012 사회조사 기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 2015. p.611.
 5) 임선영·박주희(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p.189.
 6)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pp.42-44.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연기시키는 현상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다. 강은영·진미정·옥선화(2010: 141)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으로 나누었는데, ‘자발적 비혼’을 학업이나, 경력, 개인의 성취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혹은 결혼제도에 대한 반대나 개인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137)를 말한다.

<표 II-2-3>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비혼 구분을 포함하여, 선행연구에서의 결혼 상태에 대한 자발성 구분 기준을 정리하였다. 강은영·진미정·옥선화(2010)는 여성을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으로 나누고,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개방적 결혼관, 다양한 가족 수용도,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부여, 자유로운 성의식 등의 가치관의 영향이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개방적 결혼관을 가질수록,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를 부여할수록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142).

〈표 II-2-3〉 미혼 상태에 대한 구분

저자	결혼의 자발성 구분	구분 기준 (비혼 사유)
강은영·진미정·옥선화(2010) ¹⁶⁾	자발적 비혼	결혼 시기가 아님, 결혼 생각 없음
	비자발적 비혼	경제적 이유, 결혼이 주는 부담,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거나 결혼 기회 상실
이창순(2012)	여건미비형	주택마련 등의 결혼을 위한 외적 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선택형	학업이나 개인의 일을 우선시, 결혼 후에 수반되는 일련의 일들의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미스매치형	결혼할 의지, 결혼할 여건이 만족되어 있으나, 결혼할 상대를 만나지 못하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료: 1) 강은영·진미정·옥선화(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p.139.

2) 이창순(2012). 한국사회 비혼의 인가사회학적 특성. 사회과학연구, 38(3), p.57.

이창순(2012: 57)은 20세에서 4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비혼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에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혼의 유형을 1)여건미비형, 2)자기선택형, 3)미스매치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여건미비형은 취업, 주택마련 등의 결혼을 위한 외적 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

16) 강은영·진미정·옥선화(2010)의 연구에서는 ‘비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발적 비혼, 비자발적 비혼에서의 비혼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되어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 선택형은 학업이나 개인의 일을 우선시 하고, 혹은 결혼 후에 수반되는 일련의 일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미스매치형은 결혼할 의지, 결혼할 여건이 만족되어 있으나, 결혼할 상대를 만나지 못하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세 그룹에 속할 확률을 연령,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의 변수로 살펴보았는데,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여건미비형이나 자기선택형보다 미스매치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건미비형보다 자기선택형이나 미스매치형 비혼에 속할 비율이 높아진다. 남성은 여건미비형에, 여성은 자발적선택 또는 미스매치형에 해당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구직자일수록 여건미비형에 속할 확률이 미스매치형에 속할 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이창순, 2012: 64).

라. 비혼 및 만혼화 현상과 1인가구

최근 몇 십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대도시의 성장, 여성의 사회진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확산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출산율저하, 이혼율 증가, 만혼과 비혼율 증가 등 가족 인구학적 지표들의 변화를 가져왔다(김연옥, 2016: 146).

이러한 변화와 함께 청년 1인가구의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청년 1인 가구 형성은 대학진학과 취업 등의 상황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지만(김혜영, 2007: 1050), 초혼연령의 증가로 비혼으로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청년 1인가구의 비율 증가에 기여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가족구성원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미혼 남녀들도 가치관의 변화로 자발적 독립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도희(2012: 14~15)는 미혼 청년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원인으로 1)만혼과 비혼의 증가 2)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3)학업성취를 위한 인구의 이동을 언급하였다.

호정화(2014)는 1인가구의 증가를 가치관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시각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 및 거주형태에 따른 가치관을 비교해 보았다.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5~39세, 1)비혼이며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비혼-1인가구), 2)비혼이며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비혼-가족가구원) 3)기혼이며 가족과 사는 경우(기혼-가족가구원)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고, 이에 해당하는 샘플은 총 19,558명이었다(호정화, 2014: 33-34). 먼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혼 1인가구, 비혼-가족가구원이 기혼-가족가구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태도를 보였고, 비혼 상태의 동거 및 비혼 상태의 자녀 양

육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는 비혼 1인가구가 비혼-가족가구원과 기혼-가족가구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태도를 보였다(호정화, 2014: 36).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 1인 가구확대 현상과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3. 청년층 결혼 및 가족 형성 관련 현황

이 절에서는 청년층의 결혼 관련 주요 통계 현황 및 1인 가구 현황, 출산율 관련 현황 등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관련 현황은 주로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관련 통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취업 및 결혼시기에 관련된 현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일부 활용하였다. 한편, 1인 가구와 출산율 관련 현황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혼인율 변화 및 만혼화 현황

1) 혼인율 변화 추이

먼저, 전반적인 혼인율 변화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인율은 인구 천명 당 결혼한 건수(남녀 한 쌍)를 의미한다. 1995년부터 2015년 사이의 혼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995년 천명당 22.9건에서 2000년 17.8건, 2005년 16.1건, 2010년 15.7건, 2015년에는 13.9건으로 크게 줄었다. 여성의 경우, 1995년 22.5건에서 1999년 19.2건으로 20건 아래로 내려갔고, 2013년 이후로는 15건 아래로 떨어져 2015년에는 13.7건으로 나타났다.

〈표 II-3-1〉 성별 혼인율 변화 추이(1995~2015년)

단위: 천명당 건

성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성	22.9	24.6	21.7	20.5	19.6	17.8	16.9	16.1	15.8	16.0	16.1
여성	22.5	24.2	21.3	20.1	19.2	17.5	16.6	15.8	15.5	15.7	15.8
성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	16.8	17.2	16.2	15.1	15.7	15.7	15.4	15.1	14.2	13.9	
여성	16.5	16.9	16.0	14.9	15.5	15.5	15.2	14.9	14.0	13.7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1995~2015년), 시도/일반혼인율¹⁾.

평균초혼연령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결혼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995년 28.4세였던 평균 초혼연령이, 1999년에 29.1세, 2003년 30.1세, 2006년 31세, 2012년 32.1세, 2015년 32.6세가 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1995년 평균 25.3세에서 2000년 26.5세, 2005년 27.7세, 2010년 28.9세를 지나 2015년에는 30세가 되었다. 초혼 연령의 증가는 1995년 28.4세에서 2015년 32.6세로 4.2세 상승한 남성에 비해 1995년 25.3세에서 2015년 30.0세로 4.7세 상승한 여성이 좀 더 연령 증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의 차이는 1995년에는 3.1세였으나, 2015년에는 2.6세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2〉 성별 평균초혼연령 변화 추이(1995~2015년)

단위: 세

성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성	28.4	28.4	28.6	28.8	29.1	29.3	29.6	29.8	30.1	30.5	30.9
여성	25.3	25.5	25.7	26.0	26.3	26.5	26.8	27.0	27.3	27.5	27.7
성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	31.0	31.1	31.4	31.6	31.8	31.9	32.1	32.2	32.4	32.6	
여성	27.8	28.1	28.3	28.7	28.9	29.1	29.4	29.6	29.8	30.0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1995~2015년), 시도별 평균초혼연령¹⁸⁾

한편, 연령대별 남녀 혼인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3>과 같다. 남성의 경우, 1995년에는 25~29세의 혼인율이 93.9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2008년에는 30~34세의 혼인율이 5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30~34세 사이의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남성의 혼인율은 30~34세가 62.4건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41.2건, 35-39세가 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때, 1995년 당시 혼인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25~29세의 혼인율이 천명 당 93.9건이었던 반해, 2015년 혼인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34세의 혼인율은 천명 당 62.4건에 그쳐, 남성의 혼인 연령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혼인율 자체가 감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95년 당시 25~29세 혼인율이 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세 73.6건, 30~34세 13.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5년에도 25~29세가 76.9건

1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4&conn_path=I2 (2016.12.02. 인출)

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2016.12.2. 인출)

으로 가장 많았지만, 30-34세가 26.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20~24세의 혼인율이 26.2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 2015년에는 25~29세가 72.9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긴 하나, 30~34세가 51.8건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25세 미만의 결혼은 15.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전반적으로 결혼 연령이 미뤄지고 있으며, 특히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3-3〉 성 및 연령별 혼인율 변화 추이(1995~2015년)

단위: 천명당 건

연도	남성					여성				
	20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20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1995년	20.0	93.9	38.1	10.3	5.8	73.6	76.1	13.7	6.7	4.2
1996년	23.3	99.2	42.4	11.8	6.4	78.7	84.5	15.8	7.4	4.6
1997년	19.2	87.9	39.5	10.6	5.8	66.9	78.7	14.8	7.0	4.4
1998년	17.0	82.5	39.3	11.1	6.1	60.2	78.2	15.7	7.4	5.0
1999년	14.6	77.3	40.1	11.6	6.6	52.5	78.4	16.8	8.3	5.6
2000년	12.3	70.7	39.0	11.2	6.1	44.8	74.9	17.4	7.8	5.0
2001년	10.6	66.3	39.0	11.7	6.6	37.9	74.5	18.5	8.4	5.5
2002년	9.2	62.7	39.8	11.7	6.3	33.1	73.9	19.5	8.3	5.4
2003년	8.1	60.3	41.1	12.6	6.9	29.6	75.3	21.4	8.5	5.9
2004년	7.8	56.8	44.0	14.0	8.1	27.6	76.4	23.8	9.5	6.9
2005년	7.5	54.5	46.0	15.7	9.0	26.2	76.9	26.3	10.2	7.4
2006년	8.0	56.7	51.0	17.4	8.9	28.1	81.8	29.7	10.3	6.6
2007년	7.7	56.8	55.7	19.2	9.2	27.2	85.6	33.6	11.1	6.8
2008년	6.6	51.8	54.5	19.7	9.4	24.1	79.0	35.4	11.3	6.6
2009년	5.6	48.0	53.6	19.5	8.8	20.4	74.3	37.0	11.3	6.4
2010년	5.9	49.6	58.5	21.7	9.6	21.5	79.1	42.0	12.2	6.4
2011년	5.7	50.5	61.2	22.6	9.4	20.4	81.2	46.4	12.6	6.1
2012년	5.3	48.2	63.4	23.4	9.6	18.5	80.3	50.0	13.4	6.2
2013년	5.3	47.1	64.2	24.0	9.5	17.6	79.9	51.7	14.0	6.2
2014년	5.3	42.7	61.0	24.1	9.7	16.0	73.6	50.3	14.9	6.3
2015년	5.2	41.2	62.4	25.1	9.9	15.5	72.9	51.8	15.7	6.5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1995~2015년), 시도/일반혼인율¹⁹⁾

2) 청년층 혼인 상태 및 미혼자 특성

여기서부터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미혼자 비중 및 청년 미혼자들의 인적 특성 변화 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¹⁹⁾의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혼인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인구총조사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조사가 실시되는 점과 인적 특성 변인의 활용이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통계 자료이면서 개인의 인적 특성 및 혼인상태가 비교적 쉽게 식별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년층(만20~44세)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미혼이 36.1%, 유배우 61.1%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 20~44세 남성 중 미혼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47.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청년 미혼자 비중은 12년 동안 11.7%p 증가한 반면, 사별 혹은 이혼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기혼 유배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4〉 연도별 청년층(20-44세) 혼인상태

단위: 천명(%)

연도	미혼	기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2004년	7,691 (36.1)	12,123 (61.1)	-	546 (2.8)	19,838 (100.0)
2005년	7,266 (37.2)	11,710 (60.0)	-	553 (2.8)	19,529 (100.0)
2006년	7,433 (38.6)	11,241 (58.3)	145 (0.8)	449 (2.3)	19,269 (100.0)
2007년	7,472 (39.3)	10,953 (57.5)	87 (0.5)	523 (2.8)	19,035 (100.0)
2008년	7,557 (39.9)	10,835 (57.2)	70 (0.4)	486 (2.6)	18,948 (100.0)
2009년	7,520 (39.9)	10,841 (57.6)	54 (0.3)	420 (2.2)	18,834 (100.0)
2010년	7,634 (40.9)	10,593 (56.7)	53 (0.3)	391 (2.1)	18,671 (100.0)
2011년	7,722 (41.7)	10,357 (55.9)	58 (0.3)	382 (2.1)	18,519 (100.0)
2012년	7,828 (42.4)	10,186 (55.2)	54 (0.3)	379 (2.1)	18,447 (100.0)
2013년	8,032 (43.5)	10,035 (54.4)	45 (0.3)	350 (1.9)	18,462 (100.0)
2014년	8,202 (44.7)	9,759 (53.2)	39 (0.2)	342 (1.9)	18,342 (100.0)
2015년	8,460 (46.4)	9,374 (51.4)	42 (0.2)	358 (2.0)	18,234 (100.0)
2016년	8,651 (47.8)	9,081 (50.2)	43 (0.2)	330 (1.8)	18,104 (100.0)

주: 1) 2004년과 2005년은 이혼과 사별의 구분이 없어, 이혼으로 분류하였음.

2) 2015년 이전은 12개월 자료를 연간화 하였으며, 2016년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4-2016년), 2016.10.19. 인출후 가공하여 사용.

1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2 (2016.12.02. 인출)

<표 II-3-5>를 통해 성 및 연령별로 청년층의 미혼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2005년 대비 2016년 청년(20~44세) 남성 중 미혼자의 비중은 11.3%p 증가하였으며, 청년 여성 중 미혼자 비중은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간별로는 20~24세에는 전반적으로 미혼자 비중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자 비중도 감소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25~34세 사이의 미혼자 비중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05년 대비 2016년 25~29세 여성 중 미혼자는 19.2%p 증가하였으며, 30~34세 여성 중 미혼자는 16.6%p가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미혼자 비중이 증가하는 연령이 좀 더 많아서, 동기간 동안 30~34세 구간에서는 13.6%p, 35~39세는 12.8%p, 40~44세는 12.0%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미혼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긴 하나, 30세 이상 미혼자 비중은 해가 지나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상에서도 미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3-5〉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 및 연령별 미혼자 비중

단위: %

연도	성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남성	2005년	97.0	79.4	37.0	15.2	6.7	41.9
	2010년	98.6	82.8	44.5	22.7	12.0	46.4
	2015년	98.3	87.7	49.3	27.1	17.2	52.0
	2016년	98.4	88.5	50.6	28.0	18.7	53.2
여성	2005년	93.2	55.8	16.2	5.7	2.8	32.6
	2010년	93.5	65.6	21.6	10.2	4.3	35.4
	2015년	94.6	71.9	30.9	14.3	7.2	40.7
	2016년	94.8	75.0	32.8	15.2	7.9	42.3

주: 1) 미혼자 비중은 각 특성별 인구 수를 미혼자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2) 2015년 이전은 12개월 자료를 연간화 하였으며, 2016년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4~2016년), 2016.10.19. 인출 후 가공하여 사용.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별·혼인상태별 학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6>과 같다. 남성의 경우, 2005년에 미혼자는 고졸이 59.1%, 대학졸 19.5%, 전문대졸 14.7%, 중졸이하 5.2%, 대학원 졸 이상 1.6%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 기혼자는 고졸이 46.4%, 대학졸 31.3%, 전문대졸 11.3%, 중졸이하 6.2%, 대학원 졸 이상 4.9%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남성 미혼자의 학력은 고졸 51.5%, 대학졸 27.9%, 전문대졸 16.4%, 중졸이하 2.6%, 대학원 졸 이상 1.6%였으나, 남성 기혼

자의 학력은 대학졸 41.4%, 고졸 31.9%, 전문대졸 17.2%, 대학원 졸 이상 7.5%, 중졸 이하 2.0%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005년 미혼자의 학력은 고졸 46.9%, 전문대졸 25.0%, 대학졸 24.5%순으로 나타났고, 기혼자는 고졸 56.8%, 대학졸 19.5%, 전문대졸 11.5%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미혼자는 대학졸 37.1%, 고졸 36.9%, 전문대졸 22.2%로 나타나 대학졸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였다. 기혼자는 고졸 38.1%, 대학졸 34.2%, 전문대졸 20.6% 순으로 나타나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커졌다. 2005년에 비해 2016년도에 대졸 비중이 미혼자는 12.6%p 증가하였고, 기혼자는 14.7%p 증가하였다. 2005년 대비 2016년에 기혼 남성의 대졸 이상 비중 12.7%p 증가한 반면 기혼 여성은 17.3%p 증가했으며, 미혼 남성의 대졸 이상 비중은 8.4%p, 미혼 여성의 대졸 이상 비중은 13.6%p 증가하였다.

〈표 II-3-6〉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 및 혼인상태별 학력

단위: %(천명)

연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 졸 이상	총원(천명)
2005	남성 미혼자	5.2	59.1	14.7	19.5	1.6	100.0(4,037)
	남성 기혼자	6.2	46.4	11.3	31.3	4.9	100.0(5,598)
	여성 미혼자	1.9	46.9	25.0	24.5	1.8	100.0(3,230)
	여성 기혼자	10.5	56.8	11.5	19.5	1.7	100.0(6,665)
2010	남성 미혼자	4.1	55.1	16.1	23.2	1.5	100.0(4,315)
	남성 기혼자	2.8	40.1	16.2	34.8	6.1	100.0(4,993)
	여성 미혼자	1.4	41.1	23.6	31.4	2.5	100.0(3,318)
	여성 기혼자	4.5	49.7	17.9	25.3	2.6	100.0(6,045)
2015	남성 미혼자	2.3	52.0	16.6	27.6	1.5	100.0(4,772)
	남성 기혼자	1.8	33.7	16.9	40.8	6.8	100.0(4,412)
	여성 미혼자	0.9	37.3	23.2	36.2	2.4	100.0(3,688)
	여성 기혼자	2.8	40.0	20.4	32.7	4.1	100.0(5,362)
2016	남성 미혼자	2.6	51.5	16.4	27.9	1.6	100.0(4,864)
	남성 기혼자	2.0	31.9	17.2	41.4	7.5	100.0(4,283)
	여성 미혼자	1.0	36.9	22.2	37.1	2.8	100.0(3,787)
	여성 기혼자	2.7	38.1	20.6	34.2	4.3	100.0(5,170)

주: 1) 기혼자는 유배우, 이혼 그리고 사별을 포함함.

2) 2015년 이전은 12개월 자료를 연간화 하였으며, 2016년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4~2016년), 2016.10.19. 인출후 가공하여 사용.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별·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7>과 같다. 남성의 경우, 2005년 미혼자는 취업자 64.6%, 비경제활동인구 28.8%, 실업자 6.5%였으나 기혼자는 취업자 94.1%, 비경제활동인구 3.6%, 실업자 2.3%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취업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6년에 미혼자는 취업자 64.5%, 비경제활동인구 28.6%, 실업자 6.9%이고, 기혼자는 취업자 95.9%, 비경제활동인구 2.7%, 실업자 1.4%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취업자의 비중이 다소 늘었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3-7>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명)

연도	구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총원(천명)
2005	남성 미혼자	64.6	6.5	28.8	100.0(4,037)
	남성 기혼자	94.1	2.3	3.6	100.0(5,598)
	여성 미혼자	68.1	5.0	27.0	100.0(3,230)
	여성 기혼자	53.0	1.4	45.5	100.0(6,665)
2010	남성 미혼자	63.0	6.2	30.9	100.0(4,315)
	남성 기혼자	94.3	2.2	3.5	100.0(4,993)
	여성 미혼자	65.7	4.6	29.7	100.0(3,318)
	여성 기혼자	53.2	1.4	45.4	100.0(6,045)
2015	남성 미혼자	64.4	6.1	29.5	100.0(4,772)
	남성 기혼자	95.6	1.7	2.7	100.0(4,412)
	여성 미혼자	67.2	5.0	27.8	100.0(3,688)
	여성 기혼자	53.7	1.6	44.7	100.0(5,362)
2016	남성 미혼자	64.5	6.9	28.6	100.0(4,864)
	남성 기혼자	95.9	1.4	2.7	100.0(4,283)
	여성 미혼자	66.6	6.1	27.3	100.0(3,787)
	여성 기혼자	54.8	1.3	43.9	100.0(5,170)

주: 1) 기혼자는 유배우, 이혼 그리고 사별을 포함함.

2) 2015년 이전은 12개월 자료를 연간화 하였으며, 2016년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4~2016년), 2016.10.19. 인출.

여성의 경우, 2005년 미혼자는 취업자 68.1%, 비경제활동인구 27.0%, 실업자 5.0%로 나타났고, 기혼자는 취업자 53.0%, 비경제활동인구 45.5%, 실업자 1.4%로 미혼자에 비해 취업자의 비중이 작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미혼자는 취업자 66.6%, 비경제활동인구 27.3%, 실업자 6.1%로 실업자가 다소 늘고 취업자가 줄었다. 여성 기혼자는 취업자 54.8%, 비경제활동

인구 43.9%, 실업자 1.3%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줄고 취업자 비중이 다소 늘었으나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미혼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였지만, 기혼자의 경우 남성의 취업자의 비중은 90%가 넘었으나, 여성 기혼자는 취업자의 비중이 50% 중반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 취업자는 남성 취업자에 비해 관리자 및 전문가 비중이 높고, 미혼 여성은 특히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2005년 여성 미혼자 중 사무종사자 비중은 28.5%였으며, 2016년에는 이 비중이 31.9%로 증가하였다. 반면, 동 기간 동안 여성 취업자 중 관리자 및 전문가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특히 미혼자 중 관리자 및 전문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동 기간 사무종사자의 비중은 여성 기혼자의 경우에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8〉 연도별 청년층(20-44세) 성 및 혼인상태별 직업

단위: %(천명)

연도	구분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 임업 및 어업종사자	기타	총원(천명)
2005	남성 미혼자	35.0	11.9	17.2	1.1	35.0	100.0(4,037)
	남성 기혼자	23.7	17.7	18.4	1.9	38.4	100.0(5,598)
	여성 미혼자	44.7	28.5	21.2	0.1	5.6	100.0(3,230)
	여성 기혼자	47.0	11.4	24.8	1.4	15.4	100.0(6,665)
2010	남성 미혼자	21.5	15.6	21.3	1.4	40.2	100.0(3,324)
	남성 기혼자	27.2	19.9	16.4	1.4	35.1	100.0(4,897)
	여성 미혼자	37.4	33.2	24.2	0.1	5.2	100.0(2,660)
	여성 기혼자	26.0	23.4	31.1	1.2	18.4	100.0(3,869)
2015	남성 미혼자	20.4	17.0	24.5	1.1	37.1	100.0(3,621)
	남성 기혼자	26.8	22.5	15.7	1.2	33.8	100.0(4,333)
	여성 미혼자	36.6	30.9	25.6	0.1	6.8	100.0(2,898)
	여성 기혼자	31.4	26.8	25.1	0.9	15.8	100.0(3,387)
2016	남성 미혼자	20.5	17.1	24.3	1.0	37.1	100.0(3,684)
	남성 기혼자	27.9	21.8	16.4	1.2	32.8	100.0(4,211)
	여성 미혼자	36.0	31.9	24.7	0.1	7.2	100.0(2,991)
	여성 기혼자	32.0	27.6	25.0	0.7	14.8	100.0(3,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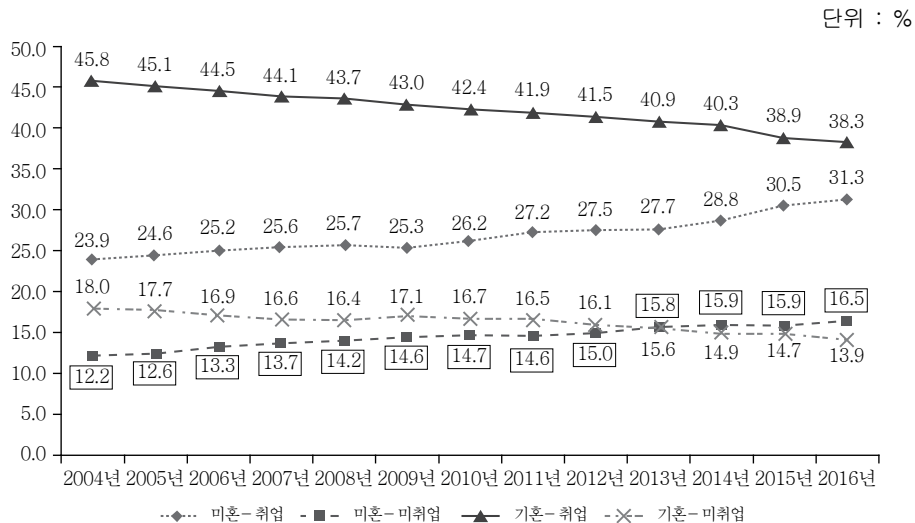
주: 1) 기타는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의미함.

2) 2015년 이전은 12개월 자료를 연간화 하였으며, 2016년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4~2016년), 2016.10.19. 인출후 가공하여 사용.

3) 청년층 취업 여부에 따른 미혼 현황

청년층(20~44세)의 취업 여부와 혼인 상태를 조합하여,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2004년 이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당시 기혼 취업자가 4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혼 취업자 23.9%, 기혼 미취업자 18.0%, 미혼 미취업자가 12.2%였다. 이후 기혼 취업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16년도에는 38.3%까지 줄어든 반면, 미혼 취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31.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 미취업자 비중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미혼 미취업자 비중이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4년 대비 2016년 기혼 취업자는 7.5%p, 기혼 미취업자는 4.1%p 감소한 반면, 미혼 취업자는 7.4%p, 미혼 미취업자는 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미혼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미혼자 중에서도 미혼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기혼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통해, 청년 취업자의 상당수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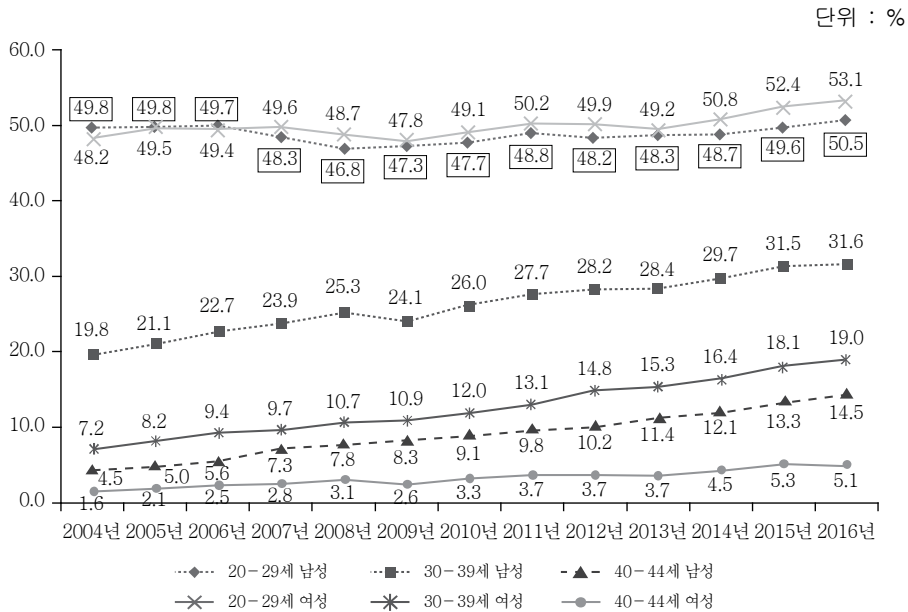


주: 2015년 이전은 12개월 자료를 연간화하였으며, 2016년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4~2016년), 2016.10.19. 인출후 가공하여 사용.

[그림 II-3-1] 연도별 청년층 취업여부 및 혼인상태별 비중(2004~2016년)

미혼 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성 및 연령에 따라 미혼 취업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전반적으로 미혼 취업자 비중이 약 절반정도인데, 2004년 이후 증가폭은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20대 여성 미혼 취업자는 전체 20대 여성의 48.2%로, 이 비중은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53.1%로, 4.9%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 미혼 취업자 비중은 2004년 49.8%였으며, 2016년에 50.5%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2015년 이전은 12개월 자료를 연간화하였으며, 2016년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4~2016년), 2016.10.19. 인출후 가공하여 사용.

[그림 II-3-2] 성 및 연령별 미혼 취업자 비중 변화(2004~2016년)

한편, 30대의 경우 미혼 취업자 비중이 남녀 모두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2004년 19.8%이던 미혼 취업자는 2016년 31.6%p 증가한 11.8%p에 달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2004년 7.2%이던 미혼 취업자 비중이 11.8%p 증가한 19.0%에 달했다. 40대의 경우에는 남성의 미혼 취업자 비중 증가가 확연한데, 2004년 4.5%이던 미혼 취업자 비중은 2016년 14.5%로 10.0%p

가 증가했다. 40대 여성의 경우에도 미혼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30대에서 미혼 취업자 비중이 확연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4년 대비 2016년 여성의 경우에는 20대와 40대에서 4%p내외의 증가가 있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 40대에서의 증가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취업자이더라도 미혼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을 미루는 만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4) 세대별 초혼 시기 및 취업 후 결혼 이행 시기 변화

청년층의 결혼 관련 현황 중에서 마지막으로 세대 간 초혼 시기 및 취업 후 결혼 이행 시기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KLIPS) 5차(2002)~18차(2015년) 총 14개 차수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취업 후 결혼 이행을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람의 취업 시기, 초혼 시기와 같은 생애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이러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 시계열이 구축되어 있고 여러 세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초혼 시기 및 취업 시기를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또한, 자료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본고는 분석 대상을 1940년생~1979년생까지로 제한하였으며, 2015년 기준 미혼자이거나 15세~49세 사이에 혼인을 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즉, 50세가 넘어서 초혼을 경험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²⁰⁾. 분석 대상자의 출생년도를 제한한 이유는 자료의 우측 절단으로 인한 편의 때문인데, 1980년대생은 2015년 기준 연령이 26~35세로 미혼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초혼 시기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한편, 코호트 중 1970년대생의 경우에도 2015년 기준 36~45세로 우측 절단이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II-3-9>를 통해 세대별 초혼 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40년대생의 경우 15~29세 사이에 초혼을 경험한 비중이 87.6%로 매우 높았으며, 이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1960년대생은 71.4%가 15~29세 사이에 결혼하는 것을 나타냈다. 그런데, 1970년대생들의 초혼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15~29세에 결혼했다고 응답

20)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특정 코호트만 도달 가능한 연령에서 극단치로 인해 평균 초혼연령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 비중이 43.7%로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70년대생의 23.5%가 30~39세 사이에 결혼했다고 응답하여 30대 초혼 비중의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때, 1970년생은 2015년 기준 36~45세로, 30대를 다 보내지 않은 응답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미혼자 비중이 향후에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즉, 향후 이들이 30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결혼할 경우 30대에 결혼한 사람 비중이 약간 더 높아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970년생의 경우 20대 결혼 비중이 그 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것으로, 1970년대생이 20대에 결혼한 경우는 남성 31.9%, 여성 55.7%로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1970년생부터 20대에 결혼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30대 결혼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크게 증가한 시기가 1980년대 말엽이라는 점에서, 1970년대생 여성의 대학 진학으로 인한 만혼화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II-3-9〉 세대별 초혼 연령 변화

단위: %(명), 세

구분	미혼자	초혼연령			평균 초혼연령	총원
		15~29세	30~39세	40~49세		
전체						
1940년대생	1.2	87.6	10.6	0.6	24.8	100.0(2,088)
1950년대생	2.2	84.1	12.7	0.9	25.5	100.0(2,913)
1960년대생	9.1	71.4	17.5	2.0	27.0	100.0(3,556)
1970년대생	32.2	43.7	23.5	0.6	28.3	100.0(4,348)
남성						
1940년대생	1.3	80.0	18.5	0.3	26.8	100.0(1,017)
1950년대생	2.7	74.6	21.5	1.9	27.5	100.0(1,398)
1960년대생	13.5	57.2	26.5	2.7	28.8	100.0(1,576)
1970년대생	37.0	31.9	30.3	0.9	29.8	100.0(1,381)
여성						
1940년대생	1.1	95.0	3.0	0.9	22.9	100.0(1,046)
1950년대생	1.7	93.4	4.2	0.7	23.6	100.0(1,451)
1960년대생	4.4	86.3	8.1	1.3	25.2	100.0(1,658)
1970년대생	27.3	55.7	16.7	0.4	27.0	100.0(1,586)

주: 1) 미혼자이거나 15~49세 사이에 혼인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함.

2) 초혼 연령은 기혼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1970년대생은 2015년 기준 관측되는 최대연령이 44세로, 평균 초혼연령이 과소평가되어 있음에 유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PS 5차(2002년)~17차(2014년) 공개용원자료 및 18차(2015년) 학술대회용 자료.

세대별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표 II-3-9 참조), 1940년대생은 평균 24.8세에 초혼을 경험했는데, 남성 평균 26.8세, 여성 22.9세에 결혼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초혼 연령도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1960년대생은 평균 27세, 남성 28.8세, 여성 25.2세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혼자와 30대 결혼 비중이 크게 증가한 1970년대생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3세로, 남성 29.8세, 여성 27.0세였다. 1970년대생 중에는 아직 39세에 달하지 못한 우측 절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평균 초혼 연령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사이에 결혼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II-3-10〉 세대별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걸리는 기간

단위: %(명), 년

구분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기간						평균	총원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9년이하	10년이상		
전체								
1940년대생	11.8	8.9	9.6	9.6	37.5	22.7	6.4	100.0(731)
1950년대생	8.7	10.6	11.6	10.6	41.0	17.5	6.1	100.0(1,462)
1960년대생	7.0	10.2	12.6	13.1	42.6	14.5	6.0	100.0(2,273)
1970년대생	8.3	8.5	10.8	10.7	42.6	19.1	6.3	100.0(2,391)
남성								
1940년대생	12.0	9.1	9.0	8.8	36.7	24.4	6.5	100.0(558)
1950년대생	10.2	11.1	9.6	9.3	38.2	21.6	6.4	100.0(918)
1960년대생	9.3	11.0	12.1	12.5	36.8	18.4	6.2	100.0(1,203)
1970년대생	10.9	9.6	11.1	9.9	38.9	19.7	6.2	100.0(1,149)
여성								
1940년대생	11.0	8.1	11.6	12.1	39.9	17.3	6.2	100.0(173)
1950년대생	6.1	9.7	15.1	12.9	45.6	10.7	5.5	100.0(544)
1960년대생	4.4	9.4	13.2	13.7	49.2	10.2	5.8	100.0(1,070)
1970년대생	5.9	7.5	10.6	11.4	46.1	18.6	6.5	100.0(1,242)

주: 1) 첫 일자리 취업시기와 초혼연령이 모두 응답된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행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2) 1970년대생은 2015년 기준 관측되는 최대연령이 44세로, 평균 초혼연령과 첫 일자리 취업시기가 과소평가되어 있음에 유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PS 5차(2002년)~17차(2014년) 공개용원자료 및 18차(2015년) 학술대회용 자료.

세대별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표 II-3-10 참조), 1940년대생은 6.4년이었으며, 이 기간이 미묘하게 감소하고는 있으나 전

반적으로 6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이후 결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코호트에서 첫 직장 취업 이후 결혼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5~9년 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기에 응답 비중이 약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40년대생의 경우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10년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22.7%로 많았는데, 이는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이 빨랐던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70년대생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940년대생 여성의 응답자 수가 적은 이유는 첫 일자리 취업 시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 코호트의 여성들은 직장 경험이 없이 바로 결혼을 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앞서 1940년대생의 경우 첫 일자리 취업 시기가 빨라서, 취업 이후 초혼까지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분석대상자가 첫 직장에 취업했을 당시 연령에 따라 초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분석해보았다(표 II-3-11 참조)²¹⁾. 이때, 첫 직장 취업 시기는 20~29세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20대에 취업한 경우 대체로 초혼까지 5~9년(42.6%)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16.3%, 3~4년 이하 걸린 경우가 11.6%, 2~3년이 걸린 경우 11.5%, 1~2년 이하 걸린 경우는 9.3%, 1년 이하 8.2%였다. 20대에 취업한 경우에는 초혼까지 평균 이행 기간은 5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30대에 첫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평균 3.6년만에 결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첫 직장 취업 후 1년 이내에 결혼한 비중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인 경우가 19.3%로, 5~9년 이하인 경우와 함께 다음을 차지했다. 첫 취업이후 결혼까지 소요시간은 남성 20대에 취업한 경우에 6.2년으로 약간 길었으며, 반대로 남성이 30대에 첫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3.5년만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 첫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평균 27.5세, 남성 28.6세, 여성 26.2세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에 첫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평균 35.3세, 남성 35.1세, 여성 36.3세로, 초혼이 상당히 늦어짐을 알 수 있었다. 즉, 다수의 청년들이 20대에 첫 직장에 취업하여, 첫 직장 취업 이후 결혼까지 소요되는 시간

21) 첫 직장 취업시기가 20세 이하인 경우 취업시기가 너무 빨라 소요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으며, 40세 이상인 경우는 관측치가 15개 이하로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은 약 6년가량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취업이 늦어져 30대에 첫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혼까지의 소요시간은 약간 감소하지만 20대에 취업한 경우에 비해 7세 이상 결혼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3-11〉 연령별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걸리는 기간

단위: %(명), 년, 세

구분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기간						평균 이행 기간	평균 초혼 연령	총원
	1년 이하	1~2년 이하	2~3년 이하	3~4년 이하	5~9년 이하	10년 이상			
전체									
20~29세	8.2	9.8	11.5	11.6	42.6	16.3	6.0	27.5	100.0(7,868)
30~39세	32.8	19.3	9.9	12.5	19.3	6.3	3.6	35.3	100.0(192)
남성									
20~29세	9.8	10.6	10.9	10.6	39.2	18.9	6.2	28.6	100.0(4,314)
30~39세	33.1	20.8	9.1	13.0	18.8	5.2	3.5	35.1	100.0(154)
여성									
20~29세	6.2	8.7	12.3	12.9	46.8	13.2	5.0	26.2	100.0(3,554)
30~39세	31.6	13.2	13.2	10.5	21.1	10.5	4.9	36.3	100.0(38)

주: 1) 첫 일자리 취업시기와 초혼연령이 모두 응답된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이후 혼인까지의 기간을 산출한 것으로, 이행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첫 일자리 취업 시기가 40세이상인 경우(관측치가 20개 미만임), 취업 이전에 결혼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2) 1970년대생은 2015년 기준 관측되는 최대연령이 44세로, 평균 초혼연령과 첫 일자리 취업시기가 과소평가되어 있음에 유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PS 5차(2002년)~17차(2014년) 공개용원자료 및 18차(2015년) 학술대회용 자료.

나. 청년 1인 가구 현황

이 항에서는 청년층의 1인 가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1인 가구 증가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청년 1인가구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1인 가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25~29세 청년 중 1인 가구 비중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34세 5.7%, 20~24세 5.1%, 35~39세 4.3%, 40~44세 4.2%였다. 하지만,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에는 25~29세

11.2%, 30~34세 8.9%, 20~24세 7.3%, 35~39세 6.5%, 40~44세 5.7%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2010년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포착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25~29세 17.2%, 30~34세 14.8%, 35~39세 11.1%, 20~24세 10.8%, 40~44세 10.2% 등으로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15년간 1인 가구의 증가는 25~29세에서 9.4%p, 30~34세가 9.1%p 상승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또한 35~39세의 경우에도 6.8%p가 상승했으며, 40~44세 6.0%p, 20~24세는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2〉 청년층 1인 가구 변화 추이(2000년~2015년)

구분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00년					
전체인구수	3,848,186	4,096,978	4,093,228	4,186,953	3,996,336
1인가구수	196,448	317,752	233,682	181,582	165,931
1인가구비중	5.1	7.8	5.7	4.3	4.2
2005년					
전체인구수	3,662,123	3,671,847	4,096,282	4,112,785	4,123,041
1인가구수	268,041	410,775	363,655	265,793	235,831
1인가구비중	7.3	11.2	8.9	6.5	5.7
2010년					
전체인구수	3,055,420	3,538,949	3,695,348	4,099,147	4,131,423
1인가구수	272,226	490,847	426,747	364,095	313,421
1인가구비중	8.9	13.9	11.5	8.9	7.6
2015년					
전체인구수	3,385,936	3,027,896	3,611,034	3,783,589	4,215,921
1인가구수	367,152	519,871	533,193	420,129	428,605
1인가구비중	10.8	17.2	14.8	11.1	10.2

자료: 1)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0),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²²⁾
 2)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5),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²³⁾
 3)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10),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²⁴⁾
 4)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15),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²⁵⁾

2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CO&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OCO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2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5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O05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24)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0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2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남성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5~29세로 2000년 10.8%에서 2015년 19.3%까지 8.5%p 상승하였다. 한편, 30~34세 구간은 2000년 7.6%이던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 18.3%까지 10.7%p 상승하여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35~39세 구간도 2005년 5.3%에서 2015년 14.1%로 8.8%p, 40~44세 구간은 2000년 4.3%에서 2015년 12.9%로 8.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 내에서 연령이 높은 쪽에서 지속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남성의 미혼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30~34세 구간에서 1인 가구 비중 상승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표 II-3-13〉 남성 청년층 1인 가구 현황(2000년~2015년)

구분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00년					
전체인구수	1,915,902	1,858,332	2,059,913	2,065,668	2,082,427
1인가구수	86,413	201,567	156,793	109,193	89,468
1인가구비중	4.5	10.8	7.6	5.3	4.3
2005년					
전체인구수	1,915,902	1,858,332	2,059,913	2,065,668	2,082,427
1인가구수	118,291	243,492	240,516	169,785	140,131
1인가구비중	6.2	13.1	11.7	8.2	6.7
2010년					
전체인구수	1,625,371	1,802,805	1,866,397	2,060,233	2,071,431
1인가구수	127,857	280,516	273,476	235,030	196,908
1인가구비중	7.9	15.6	14.7	11.4	9.5
2015년					
전체인구수	1,808,857	1,581,887	1,854,905	1,927,388	2,142,101
1인가구수	178,691	306,068	339,405	270,828	276,970
1인가구비중	9.9	19.3	18.3	14.1	12.9

자료: 1)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0),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²⁶⁾
 2)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5),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²⁷⁾
 3)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10),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²⁸⁾
 4)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15),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²⁹⁾

2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0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2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5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05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2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0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2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2/과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25~29세 구간에서의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2000년 대비 2015년 여성 청년층 1인 가구의 증가는 25~29세 9.1%p, 30~34세 7.2%p, 20~24세 6.0%p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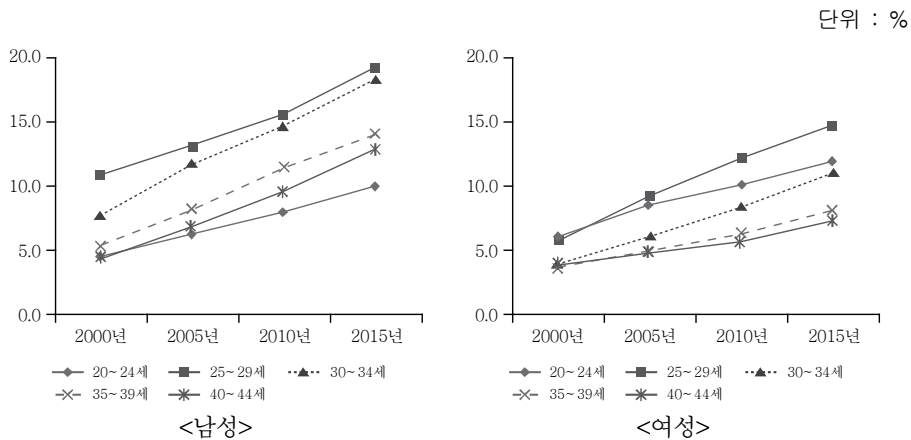
〈표 II-3-14〉 여성 청년층 1인 가구 현황(2000년~2015년)

구분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00년					
전체인구수	1,819,980	2,039,657	2,025,026	2,069,461	1,966,923
1인가구수	110,035	116,185	76,889	72,389	76,463
1인가구비중	6.0	5.7	3.8	3.5	3.9
2005년					
전체인구수	1,746,221	1,813,515	2,036,369	2,047,117	2,040,614
1인가구수	149,750	167,283	123,139	96,008	95,700
1인가구비중	8.6	9.2	6.0	4.7	4.7
2010년					
전체인구수	1,430,049	1,736,144	1,828,951	2,038,914	2,059,992
1인가구수	144,369	210,331	153,271	129,065	116,513
1인가구비중	10.1	12.1	8.4	6.3	5.7
2015년					
전체인구수	1,577,079	1,446,009	1,756,129	1,856,201	2,073,820
1인가구수	188,461	213,803	193,788	149,301	151,635
1인가구비중	12.0	14.8	11.0	8.0	7.3

자료: 1)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0),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³⁰⁾
 2)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5),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³¹⁾
 3)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10),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³²⁾
 4)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15),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³³⁾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3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CO&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OCO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3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5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O05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3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0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3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성별 청년층 1인 가구의 증가 추이를 [그림 III-3-3]을 통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청년층 1인 가구의 증가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발견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며, 증가세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 전에 혼자 사는 것이 터부시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한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여전히 25~29세 사이에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지만, 특히 30세 이후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5~29세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빠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35세 이상에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중이나 증가폭이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연령 구간에 여성 미혼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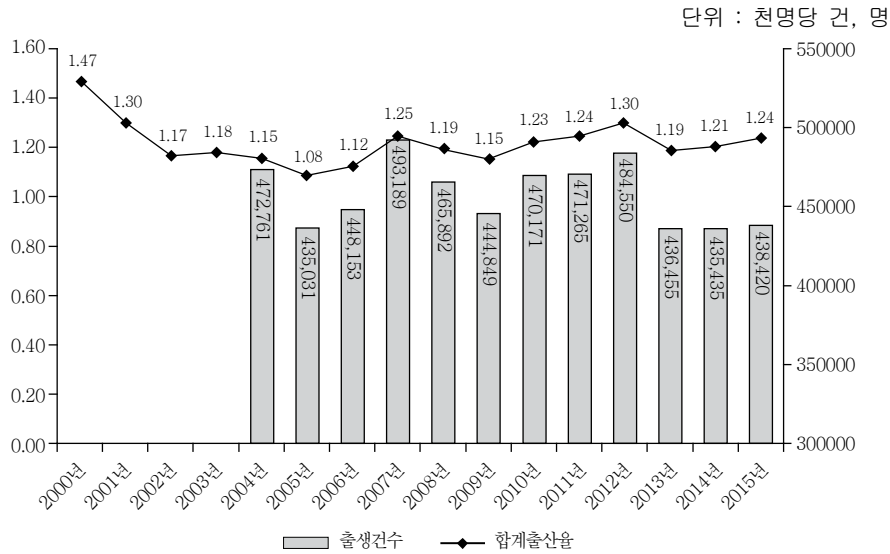
- 자료: 1)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0),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³⁴⁾
 2)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5),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³⁵⁾
 3)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10),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³⁶⁾
 4)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15), 연령 및 성별인구 &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³⁷⁾

[그림 II-3-3]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 증가 추이

34)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OO&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OOO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3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05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O05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3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0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0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3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3&conn_path=I2/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I2 (2016. 11. 15 인출)

다. 청년층 출산 현황

여기서부터는 비혼 및 만혼화와 연관성이 큰 출산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이었으나,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1.3명이하의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계출산율 뿐 아니라, 전체적인 출생아 수 자체도 2015년 438,420명에 그쳤다.



자료: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0~2015년), 합계출산율³⁸⁾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4~2015년), 출생아건 수³⁹⁾

[그림 II-3-4] 합계출산율 및 출생건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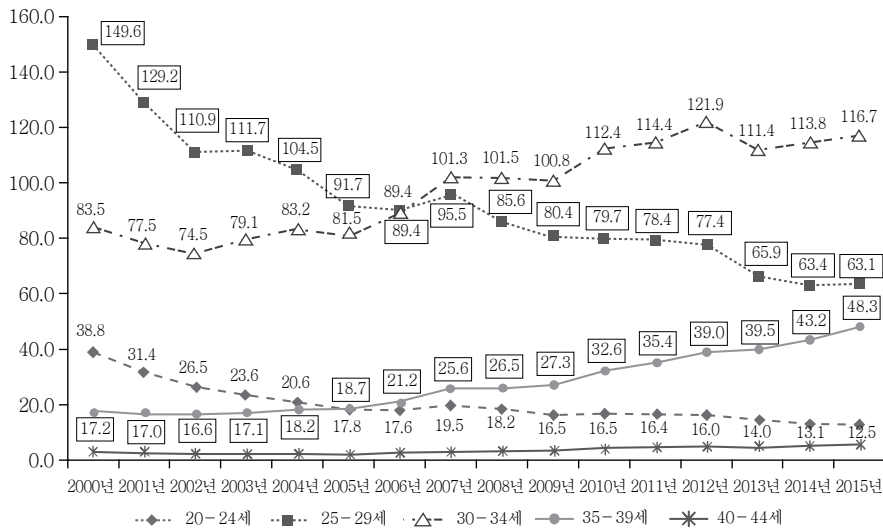
모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25~29세 사이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00년에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천명당 149.6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63.1명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20~24세의 출산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38.8명이던 출산율은 2015년 12.5명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30~34세와 35~39세 구간에서는 출산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30

3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2016.12.9.일 인출)
 3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K&conn_path=I2 (2016.12.9.일 인출)

~34세의 출산율은 2000년 83.5명이었으며, 등락을 반복하며 2015년 116.7명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35~39세의 출산율은 2000년 17.2명으로 많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48.3명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40대 여성의 출산율은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율의 감소는 20대의 출산율 저하에 기인하는 바가 큼을 짐작할 수 있는데, 30대 이후 출산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20대에서의 출산율 감소폭에 비해 30대 이후 출산율의 상승폭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20대에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30대에 둘째아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 30대에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후속 출산은 제약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 출산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임 여성의 첫 출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30대 여성의 출산율 제고가 전반적인 출산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단위 : 천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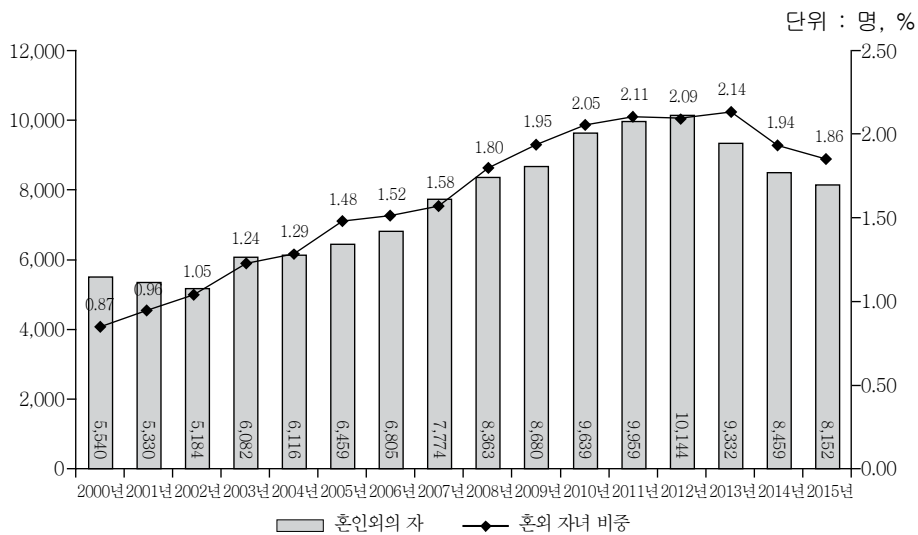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0~2015년), 모 연령별 출산율⁴⁰⁾

[그림 11-3-5] 모연령별 출생율(천명당) 변화 추이

4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2016.12.9.일 인출)

한편, 출생아 중 혼외 자녀는 2000년 5,540명으로, 당해연도 전체 출생아의 0.87%에 불과했으며, 그 수와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는 하나, 2015년 8,152명, 1.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15년 동안에 혼외 자녀의 수는 2012년도에 10,1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은 2013년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출생아 대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13년도에도 혼외 자녀의 비중은 2.14%에 불과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혼외 자녀가 터부시되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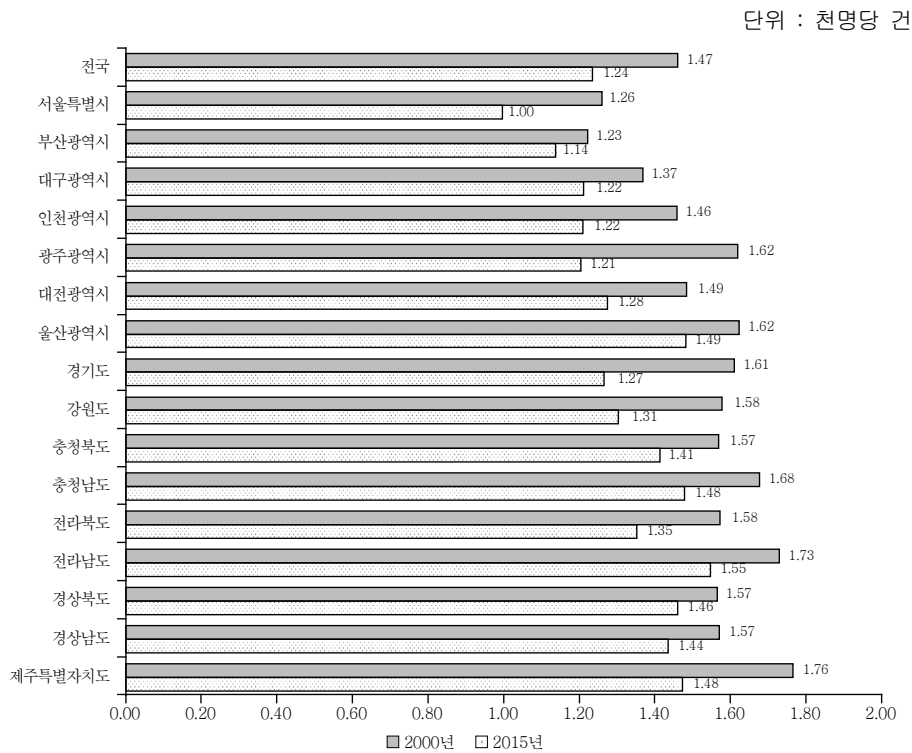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0~2015년), 법적혼인상태별 출생41)

[그림 II-3-6] 혼외 자녀 출생아 비율 변화 추이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는데, 16개시도 중에서는 전라남도과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반대로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였으며, 제주도와 충청남도가 1.48로 다음으로 높았다. 반대로 서울은 1.00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또한, 서울은 합계출산율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2000년 대비 2015년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큰 지역이었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의 변화가 큰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등이다.

4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conn_path=I2 (2016.12.9 인출)

이때, 주목할 점은 합계출산율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출산율 하락이 큰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등의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고, 가임 여성의 수도 많다는 점이다. 가임 여성의 대다수가 서울, 경기 등 도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은 기혼자 비중도 낮고 합계출산율도 낮다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은 낮지 않지만, 지역 내 가임 여성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출생아의 절대적인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인구가 많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은 현상이 전국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유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0년, 2015년), 합계 출산율⁴²⁾

[그림 11-3-7] 지역별 합계 출산율 변화(2000년 : 2015년)

4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12 (2016.12.9. 인출)

4. 소결

이 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저출산 대응의 경과 및 현황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만혼화와 비혼화 현상 등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는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그 개입 방식은 시기별로 변화를 보인다. 즉,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가족가치관 확립 즉 가족문화 조성이 강조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결혼을 통한 출산을 유도하는 방식이 보다 강조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2006년 저출산 기본계획의 수립 당시의 “출산과 양육” 이외에도 “결혼”을 추가함으로써 그 포괄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지원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범위에 포괄된 배경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출산율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전략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가족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합법적인 결혼제도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이 허용되고 양육이 용이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결혼지원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포용성을 동시에 주력하는 것은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저출산 대응의 측면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다.

둘째, 2016년부터 저출산 원인으로 만혼과 비혼화에 보다 집중하고, 이에 대해 결혼장려로서 대응함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대책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는 결혼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사회문화적 현상 그 자체로 수용하기 보다는 결혼 지연 및 포기를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혼인율 상승 및 출산율 제고를 기하려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지원 및 포기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 즉 일자리와 주거자금에 한정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인식 변화 즉 양성평등적 부부관계와 돌봄 문화, 평등한 가족관계 등 가족관계의 질 개선 노력 즉 양성평등적 교육과 가족상담서비스 내실화 등은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약화되었다. 따라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청년층 대상 일자리 대책과 주거대책의 효과성 여부는 만혼과 비혼화의 실체 즉 혼인율 저하가 고용 등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결혼 등 친밀감에 대한 개인 가치관의 변

화에 따른 것인지와, 혼인과 출산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판명될 것으로 본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의 선행연구에서는 비혼 및 만혼화 현상은 사회인구학적 원인, 사회경제학적 원인, 가치관의 변화로 크게 나누어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 첫째, 비혼과 만혼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성과 남성의 경우 조금씩 다르다.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기 전에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준비한 후에 결혼을 한다는 순서규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여성은 적절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연령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로 여성의 삶에서 개인의 커리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결혼 후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적령기에 의한 영향보다는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육수준이나 취업유무 및 경제력도 결혼시기의 연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 또한 성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남성의 경우 취업을 하거나 상시직을 가질 경우 결혼을 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할 경우 미취업 여성에 비해 결혼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초혼이 늦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상시직을 가질 확률을 낮게 만들어 결혼의 시기를 연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 높은 청년 취업률 등도 결혼을 위한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연장하는 현상에 영향을 준다.

셋째, 무엇보다 최근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자체나 결혼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가치관과 관련하여,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의향은 높게, 결혼희망연령은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혼전동거에 수용적일수록 결혼희망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아지지만, 결혼 후에 겪어야 하는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은 이전과 크게 변함없이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인식이 높은 사람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고, 결혼의향이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을 낳는다.

이전에는 결혼할 때가 되면 적당한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점차 혼자 살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결혼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청년들의 가치관의 변화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치관과 함께 변화해야할 사회적인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다음으로 청년층 결혼 및 가족 형성 등에 관한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율은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여성이 20대 후반에 결혼하던 것에서 점차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여성 비중이 급증하면서, 출산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남성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4년제 대학이상 비중이 높은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았다.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청년 미혼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졌으나, 기혼자와 미혼자를 비교했을 때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이 학력이 낮은 경우에 기혼자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년층을 취업여부와 혼인상태에 따라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혼 취업자 비중은 200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미혼 취업자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 및 연령별로는 미혼 취업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대에 미혼 취업자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40대 초반에도 미혼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취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미혼 상태로 남아 있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세대별 초혼 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40년대생은 평균 24.8세에 초혼을 경험했는데 반해 1970년대생은 28.3세로 상당히 혼인 연령이 미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사이에 변화가 특징인데, 이는 이 세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된다.

여섯째,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걸린 기간은 모든 세대에서 약 6년가량으로,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1940년대생의 경우 첫 일자리 취업 이후 초혼까지 10년이상 걸렸다는 응답 비중이 22.7%로 약간 긴데, 이는 이 세대의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이 빨랐던 것과 연관된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첫 일자리 취업 연령에 따라 초혼 연령까지 걸린 기간을 산출해본 결과, 20대에 취업한 경우 초혼까지 평균 6년, 30대에 취업한 경우에는 3.6년의 기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직장에 취업 이후 약 6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 결혼하는 양상을 보이며, 취업이 늦어져 30대에 취업한 경우 결혼까지 소요시간은 약간 감소하나 초혼 연령 자체는 7세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곱째,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30세 이후, 여성은 25~29세에서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청년 여성에 비해 청년 남성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며,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 전 혼자 사는 것에 대해 터부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초산 연령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30대 여성의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이 전반적인 출산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전체 출생아 중 혼외 자녀의 비중은 2%내외에 불과했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아 전국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유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Ⅲ. 청년층 미혼 실태 및 결혼 가치관

Ⅲ장과 Ⅳ장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와 심층면담의 내용에 기준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Ⅲ장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한 조사개요 및 청년층의 미혼 실태 및 결혼 가치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조사 개요

가. 표본 및 설문 구성

본 연구의 실태조사 표본 및 설문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³⁾. 먼저,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만 20~39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성, 연령,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 표집을 실시하였다. 최초 표집 목표는 1,000명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조금 증가하여 총 1,073명으로 마무리하였다. 최초 표집 목표는 남성과 여성 각각 500개씩, 연령에 따라서도 20대와 30대가 500개가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미혼자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대도시 400명, 중소도시 400명, 농어촌 200명을 목표로 하였다(표 Ⅲ-1-1 참조). 본 실태조사는 미혼자들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대표성 확보보다는 성, 연령, 지역규모별로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각 집단별로 분석에 필요한 적정 수 이상의 관측치가 확보되게 하기 위해 유의 표집을 실시하였다. 즉, 인구에 대한 비례 표집을 실시할 경우 20대의 경우 미혼자 비중이 높은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미혼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대의 표본이 너무 많아져, 만혼화 경향 등을 설명하는데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43) 심층면담은 40대 남녀 4집단, 총 16명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이는 서론 I장 3절 연구방법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I-1-1〉 최초 목표 표본

				단위: 명
지역구분	성별	20~29세	30~39세	계
대도시	남성	100	100	400
	여성	100	100	
중소도시	남성	100	100	400
	여성	100	100	
농어촌	남성	50	50	200
	여성	50	50	
계		500	500	1,000

본 실태조사의 설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III-1-2>와 같다⁴⁴⁾. 본 실태 조사는 만 20~39세의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및 결혼 가치관, 가족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결혼 계획 및 비혼 사유, 결혼 가치관, 비혼 및 1인 가구에 대한 의견, 자녀 및 가족에 대한 태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청년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응답자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1-2〉 중요 설문 항목

조사 구분		설문 내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 취업여부, 일자리 특성, 소득, 출생 순위 · 14세 당시 가구 상황 ·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만족도
결혼	결혼 계획 및 비혼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필요성 및 결혼 의향 · 미혼 사유 및 비혼 사유 · 결혼을 위한 조건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등
	결혼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의 의미, 결혼 문화 · 가족내 성역할분담 · 결혼시기 · 결혼에 대한 태도 · 결혼 적령기
	비혼 및 1인 가구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혼에 대한 태도 · 1인 가구에 대한 태도 및 · 독신을 위한 선결조건

44) 설문지는 부록1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I-1-2 계속)

조사 구분		설문 내용
가족	자녀에 대한 태도 조사	· 자녀 필요성 · 출산 의향 및 자녀 계획 · 출산 및 양육의 조건 및 시기
	가족관	· 가족관 · 가족 가치
정책에 대한 의견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 임신·출산 지원 정책 · 자녀 돌봄 지원 정책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청년 대상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청년 일자리 대책 · 청년 주거 대책

나. 응답자 특성

1) 응답자 특성

목표표본은 총 1,000명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다소 많아져 1,073명이 조사되었다. 응답자는 남성이 536명, 여성이 537명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1.8%, 30대가 48.2%로, 20대가 약간 많았다. 학력별로는 남녀 모두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자가 많았다.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는 남녀 모두 7.8%였으나, 남성이 고졸이하 학력자 비중이 14.4%로 약간 높았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응답자의 인적 특성

구분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전체	100.0 (536)	100.0 (537)	100.0 (1,073)
연령			
20~29세	52.2 (280)	51.4 (276)	51.8 (556)
30~39세	47.8 (256)	48.6 (261)	48.2 (517)
최종 학력			
고졸이하	14.4 (77)	10.2 (55)	12.3 (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18.3 (98)	21.8 (117)	20.0 (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59.5 (319)	60.1 (323)	59.8 (642)
대학원 이상	7.8 (42)	7.8 (42)	7.8 (84)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응답자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 418명, 중소도시 430명, 농어촌 225명으로, 30대 여성은 중소도시 거주자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20대 남성은 대도시 거주 비중이 약간 높았다. 응답자 중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은 20.3%로, 대부분의 경우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74.3%)였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은 30대에 비해 20대에서 높았고, 여성이 남성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응답자의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전체	100.0 (280)	100.0 (256)	100.0 (276)	100.0 (261)	100.0 (1,073)
거주지역					
대도시	40.0 (112)	39.5 (101)	38.0 (105)	38.3 (100)	39.0 (418)
중소도시	38.6 (108)	40.6 (104)	38.4 (106)	42.9 (112)	40.1 (430)
농어촌	21.4 (60)	19.9 (51)	23.6 (65)	18.8 (49)	21.0 (225)
동거가구원					
혼자	17.9 (50)	28.5 (73)	12.0 (33)	23.8 (62)	20.3 (218)
(조)부모동거	77.9 (218)	66.4 (170)	81.5 (225)	70.5 (184)	74.3 (797)
형제·자매, 친인척, 기타	4.3 (12)	5.1 (13)	6.5 (18)	5.7 (15)	5.4 (58)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취업상태는 20대 남성의 45.4%와 20대여성의 51.8%가 취업자였고, 30대 남성은 78.1%, 30대 여성의 77.0%가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 중 학생의 비중이 35.7%로, 20대 여성 26.1%에 비해 많았다(표 III-1-5 참조).

〈표 III-1-5〉 응답자의 취업 상태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전체	100.0 (280)	100.0 (256)	100.0 (276)	100.0 (261)	100.0 (1,073)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45.4 (127)	78.1 (200)	51.8 (143)	77.0 (201)	62.5 (671)
학생(휴학포함)	35.7 (100)	2.3 (6)	26.1 (72)	0.4 (1)	16.7 (179)
구직, 기타	18.9 (53)	19.5 (50)	22.1 (61)	22.6 (59)	20.8 (223)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51.1%는 사무직 종사자로, 남성의 41.0%와 여성의 60.8%가 이에 해당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리자의 비중이 24.4%로 남성에 비해 이 비중도 높았다. 반면, 농림어업종사자인 응답자는 대다수 남성이었다. 종사상지위는 여성의 79.1%가 정규직 종사자였으며, 15.1%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였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응답자의 일자리 특성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전체	100.0 (327)	100.0 (344)	100.0 (671)
직종			
전문가 및 관리자	19.6 (64)	24.4 (84)	22.1 (148)
사무종사자	41.0 (134)	60.8 (209)	51.1 (343)
서비스,판매종사자	13.1 (43)	11.6 (40)	12.4 (83)
농림어업종사자등	26.3 (86)	3.2 (11)	14.5 (97)
종사상 지위			
정규직	71.3 (233)	79.1 (272)	75.3 (505)
비정규직, 일용직	12.2 (40)	15.1 (52)	13.7 (92)
비임금근로	16.5 (54)	5.8 (20)	11.0 (74)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표 III-1-7〉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월평균소득(평균)	206.0 (180)	229.4 (250)	191.8 (204)	190.4 (260)	204.8 (894)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29.4 (53)	15.6 (39)	21.6 (44)	17.7 (46)	20.4 (182)
100~199만원	27.8 (50)	22.4 (56)	47.5 (97)	34.6 (90)	32.8 (293)
200~299만원	27.8 (50)	38.8 (97)	22.1 (45)	31.2 (81)	30.5 (273)
300~399만원	6.7 (12)	16.8 (42)	3.9 (8)	9.6 (25)	9.7 (87)
400만원 이상	8.3 (15)	6.4 (16)	4.9 (10)	6.9 (18)	6.6 (59)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본 실태조사에서 월평균소득은 어떠한 형태이든 본인 명의의 소득이 있으면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액이 크지 않고 학생이 가진 일자리가 본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반대로, 구직자가 일시적인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월평균 소득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월평균 소득액은 894명에 대한 분석으로, 취업자 671명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구직자들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에 다수 응답되었다. 한편,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204만8천원으로, 30대 남성 응답자들의 월평균소득이 평균 229만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30대 여성 응답자들의 월평균소득은 평균 190만4천원으로, 20대 여성 응답자의 월평균소득 191만8천원, 20대 남성 응답자의 월평균소득 206만원보다 낮았다(표 III-1-7 참조).

2) 1인 가구 현황

응답자 중에서 1인 가구는 20.3%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 비중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연령대별로는 3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26.1%로, 20대 14.9%보다 11.2%p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1인 가구 비중이 27.4%로 높았으며, 전문대 재학 및 졸업자가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III-1-8 참조).

〈표 III-1-8〉 인적 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단위: %(명)					
구분	혼자	(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기타	χ^2	계(수)
전체	20.3	74.3	5.4		100.0(1,073)
성별					
남성	22.9	72.4	4.7	5.252	100.0(536)
여성	17.7	76.2	6.1		100.0(537)
연령					
20~29세	14.9	79.7	5.4	21.021 ***	100.0(556)
30~39세	26.1	68.5	5.4		100.0(517)
최종 학력					
고졸이하	17.4	75.8	6.8	7.960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15.3	79.1	5.6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1.7	73.1	5.3		100.0(642)
대학원 이상	27.4	69.0	3.6		100.0(84)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이 25.8%로, 중소도시에 사는 응답자 중 17.9%, 농어촌 지역 응답자 중 14.7%가 1인 가구인 것에 비해 높았다. 한편, 취업자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3.5%, 학생 중 1인 가구 비중은 17.9%인 것을 조사했다. 1인 가구 비중은 거주지역과 취업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III-1-9 참조).

〈표 III-1-9〉 지역 및 취업상태별 1인 가구 현황

단위: %(명)

구분	혼자	(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기타	χ^2	계(수)
전체	20.3	74.3	5.4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25.8	69.1	5.0	15.961 **	100.0(418)
중소도시	17.9	77.4	4.7		100.0(430)
농어촌	14.7	77.8	7.6		100.0(225)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23.5	71.8	4.6	14.442 **	100.0(671)
학생(휴학포함)	17.9	75.4	6.7		100.0(179)
구직, 기타	12.6	80.7	6.7		100.0(223)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1-10〉 소득별 1인 가구 현황

단위: 만원, %(명)

구분	혼자	(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기타	χ^2	계(수)
월평균소득(평균)	220.3	200.0	210.7		204.8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13.2	80.8	6.0	33.839 ***	100.0(182)
100~199만원	16.0	79.5	4.4		100.0(293)
200~299만원	30.8	64.5	4.8		100.0(273)
300~399만원	27.6	65.5	6.9		100.0(87)
400만원 이상	11.9	83.1	5.1		100.0(59)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1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평균이 220만3천원으로, (조)부모님과 사는 경우(200만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구간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200~299만원 사이인 응답자의 30.8%가 1인 가구였으며, 다음으로 300~399만원인 경우 27.6%가 1인 가구로, 이 소득 구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표 III-1-10 참조).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따로 살게 된 시기는 평균 24.7세였다. 따로 살게 된 계기는 20대의 경우 '학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남성 50.0%, 여성 52.9%로 절반이상이었으며, 30대의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남성 37.2%, 여성 4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되어서'라는 응답이 20대 남성 17.7%, 30대 남성 19.8%, 30대 여성 15.6%였는데,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3.9%에 불과해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대 여성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며, 결혼하지 않은 20대 여성의 독립에 대해서 여전히 터부시하는 문화가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다(표 III-1-11 참조).

〈표 III-1-11〉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된 시기 및 계기

단위: 세,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된 시기 (평균 연령)	22.2	26.9	21.1	26.5	24.7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된 계기					
학업을 위해서	50.0	22.1	52.9	19.5	33.3
취업을 위해서	19.4	37.2	25.5	41.6	32.2
취업 준비 학원 등의 통학을 위해서	0.0	1.2	2.0	2.6	1.4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되어서	17.7	19.8	3.9	15.6	15.2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부모님과 따로 살아보고 싶어서	9.7	8.1	9.8	10.4	9.4
기타	1.6	3.5	2.0	3.9	2.9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1.6	8.1	3.9	6.5	5.4
χ^2	37.151				
계(수)	100.0(62)	100.0(86)	100.0(51)	100.0(77)	100.0(276)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2. 청년 미혼 실태

이 절에서는 청년 미혼자들의 미혼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결혼의향과 미혼 사유 등에 먼저 살펴본 후, 앞서 정의한 미혼 상태 구분 기준에 따라⁴⁵⁾ 집단별로 어떠한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비혼을 결정하게 된 시기 및 결혼의향의 변화와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나'항에서는 결혼 연기자가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과 동질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가. 결혼 의향 및 미혼 실태

먼저, 인적 특성별로 결혼 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 536명 중 결혼할 의사가 있는 비중이 80.0%,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가 20.0%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 537명 중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가 68.9%, 없는 경우가 31.1%로, 남성에 비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는 20대가 30대에 비해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약간 높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응답자의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5.7%로, 고졸이하 학력자의 66.7%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만한 점은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 자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지만, 그 의사의 강고함은 오히려 남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에서, 남성들은 결혼에 대한 의향이 대부분 뚜렷하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자신의 생각에 대해 확고한 의사를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우 특별히 결혼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 자체를 결혼 의향이 없다고 표현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경우에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⁴⁶⁾.

45) I장 4절, 용어의 정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I-2-1〉 인적 특성별 결혼 의향

		단위: %(명)			
구분	의향있음(결혼연기)	의향없음(비혼)	χ^2	계(수)	
전체	74.5 (799)	25.5 (274)		100.0(1,073)	
성별					
남성	80.0 (429)	20.0 (107)	17.494 ***	100.0(536)	
여성	68.9 (370)	31.1 (167)		100.0(537)	
연령					
20~29세	76.6 (426)	23.4 (130)	2.817	100.0(556)	
30~39세	72.1 (373)	27.9 (144)		100.0(517)	
최종 학력					
고졸이하	66.7 (88)	33.3 (44)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71.2 (153)	28.8 (62)	11.561 **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75.7 (486)	24.3 (156)		100.0(642)	
대학원 이상	85.7 (72)	14.3 (12)		100.0(84)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한편, 20~30대 청년 미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결혼 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결혼 연기 사유로 1순위 응답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26.4%)’였으며, 다음으로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21.7%)’,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14.1%)’ 순이었다. 2순위 응답 중에서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17.0%)’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2.8%)’, ‘소득이 적어서(12.6%)’, ‘결혼 후의 사회적 역할이 부담스러워서(10.6%)’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 응답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17.4%)’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결혼 후에 사회적 역할이 부담스러워서(15.4%)’,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1.1%)’ 순이었다. 1~3순위까지의 결혼 연기 사유를 총합했을 때에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48.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45.6%)’,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39.2%)’ 순이었다. 즉,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발적 결혼 연기에 해당하는 응답 비중이 높으나, 2순위 혹은 3순위에서는 비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모든 응답을 합쳐놓고 보면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라는 비자발

46) 다수의 면담 대상자가 보이는 태도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층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인용문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적 결혼 연기 사유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제 응답자가 우선 순위를 두고 생각하는 결혼 연기 사유는 자발적인 사유의 응답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결혼 연기 사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26.4	6.8	6.0	39.2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21.7	12.8	11.1	45.6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7.3	9.3	8.4	25.0
결혼보다 일이나 자기 계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2.6	7.1	7.0	16.7
결혼 후의 사회적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3.4	10.6	15.4	29.4
비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1.5	3.4	4.3	9.2
소득이 적어서	6.4	12.6	9.1	28.1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실업상태라서	8.3	9.0	6.1	23.4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14.1	17.0	17.4	48.5
결혼생활과 직장일 병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0.6	2.8	4.5	7.9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7.4	8.5	9.4	25.3
기타	0.4	0.1	1.3	1.8
계(수)	100.0(799)	100.0(799)	100.0(799)	300.0(2,397)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인적 특성별로 결혼 연기 사유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남성 44.0%, 여성 47.8%로, 남녀를 무론하고 20대에는 아직 결혼하기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0대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사유가 여러 가지로 분산된 경향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20.4%)’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6.0%)’,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실업상태라서(13.1%)’,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12.1%)’, ‘소득이 적어서(11.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47.9%)’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1.4%)’가 다음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30대 미혼 여성의 결혼 연기는 다분히 자발적 이유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을 알 수 있었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인적 특성별 결혼 연기 사유 : 1순위 응답 기준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44.0	5.8	47.8	2.4	26.4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10.8	16.0	17.7	47.9	21.7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4.5	12.1	3.5	9.6	7.3
결혼보다 일이나 자기 계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0.5	3.4	3.0	4.2	2.6
결혼 후의 사회적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8	2.4	3.9	6.0	3.4
비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0.9	3.9	0.0	1.2	1.5
소득이 적어서	9.4	11.2	2.0	1.8	6.4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실업상태라서	9.4	13.1	4.4	5.4	8.3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12.6	20.4	13.8	9.0	14.1
결혼생활과 직장일 병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0.0	1.0	1.0	0.6	0.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6.3	10.2	10.2	11.4	7.4
기타	0.0	0.5	0.5	0.6	0.4
χ^2	297.484***				
계(수)	100.0(223)	100.0(206)	100.0(203)	100.0(167)	100.0(799)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본 연구에서 결혼 연기의 자발성은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복수의 응답을 허용할 경우,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를 함께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1~3순위 응답 중에서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를 섞어서 응답한 경우는 전체 결혼 연기자의 79.4%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의 경우에 이 비중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1~3순위 모두가 자발적 사유만 응답된 경우가 20.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만 응답된 경우가 18.5%로 다른 집단 대비 높았다. 즉, 결혼 연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대 여성의 경우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30대 남성의 결혼 연기는 비자발적인 이유가 보다 많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표 III-2-4 참조).

〈표 III-2-4〉 결혼 연기의 자발성(1~3순위)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자발적 사유만 있음	8.1	5.8	20.7	11.4	11.4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가 섞여있음	83.4	75.7	76.4	82.0	79.4
비자발적 사유만 있음	8.5	18.5	3.0	6.6	9.3
χ^2	53.259***				
계(수)	100.0(223)	100.0(206)	100.0(203)	100.0(167)	100.0(799)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한편,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비혼자)의 비혼 사유를 살펴보면(표 III-2-5 참조),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가운데,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16.8%)’,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14.6%)’,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12.0%)’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별로,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라는 응답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 이 비중이 높았으며, 남성중에서도 30대보다는 20대 경우가 낮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과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라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22.3%)’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결혼 의향과 결혼 연기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발적 결혼 연기자과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혼자로 집단을 구분하고, 성 및 연령별로 이러한 미혼 상태별 비중을 구해본 결과는 [그림 III-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발적 결혼 연기자는 45.9%,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28.6%, 비혼자 25.5%였으며, 30대 남성의 경우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48.4%로 매우 높은 반면, 여성은 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20대 56.2%로 대조를 보였다. 또한,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비혼자 비중이 36.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비혼자 비중이 현격히 높았으며, 20대 여성의 경우에도 비혼자 비중이 26.4%로 남성에 비해서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발적 결혼 연기와 비혼자 비중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남성은 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높은 반면, 30대 남성은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높았다. 이는 남성의 경우 30대가 되면서 가족 부양 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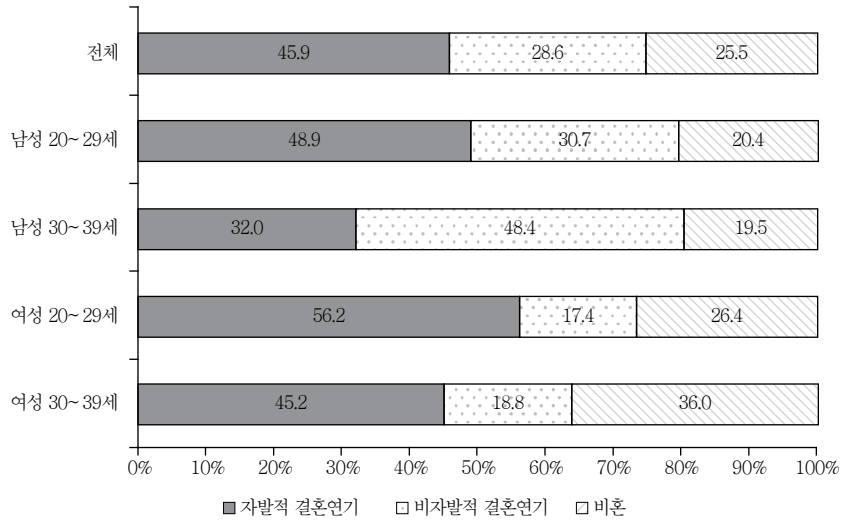
〈표 III-2-5〉 비혼 사유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비혼 사유					
아무런 이유없이 결혼이 싫어서	5.3	6.0	9.6	8.5	7.7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	28.1	32.0	35.6	36.2	33.6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22.8	24.0	6.8	10.6	14.6
직장과 가정생활을 다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3	0.0	4.1	7.4	4.7
자아 계발에 제약이 생기므로	3.5	0.0	4.1	2.1	2.6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싫어서	1.8	0.0	5.5	3.2	2.9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14.0	22.0	9.6	7.4	12.0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란 생각	15.8	12.0	13.7	22.3	16.8
기타	3.5	4.0	11.0	2.1	5.1
χ^2	37.196*				
계(수)	100.0(57)	100.0(50)	100.0(73)	100.0(94)	100.0(274)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주: 총 1,073명(남성 20대 280명, 남성 30대 256명, 여성 20대 276명, 여성 30대 261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II-2-1] 성 및 연령별 미혼 실태

〈표 III-2-6〉 학력별 미혼 실태

단위: %(명)

구분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χ^2	계(수)
전체	45.9 (492)	28.6 (307)	25.5 (274)		100.0(1,073)
최종 학력					
고졸이하	35.6 (47)	31.1 (41)	33.3 (44)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39.1 (84)	32.1 (69)	28.8 (62)	18.912 **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49.1 (315)	26.6 (171)	24.3 (156)		100.0(642)
대학원 이상	54.8 (46)	31.0 (26)	14.3 (12)		100.0(84)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학력 수준은 높을수록 자발적 결혼 연기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비혼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 자발적 결혼 연기 비중이 54.8%로 매우 높았으며, 반대로 고졸이하 학력자의 33.3%는 결혼 의향이 없는 비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자발적 결혼 연기의 경우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가 26.6%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약간 낮았다(표 III-2-6 참조).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순으로 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취업상태는 학생인 경우에는 자발적 결혼연기자의 비중이 높고, 구직 및 무직인 경우 비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를 기준으로, 자발적 결혼연기는 47.7%였으며, 비자발적 결혼 연기가 31.1%, 비혼이 21.2%였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지역 및 취업상태별 미혼 실태

단위: %(명)

구분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χ^2	계(수)
전체	45.9 (492)	28.6 (307)	25.5 (274)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49.0 (205)	29.4 (123)	21.5 (90)		100.0(418)
중소도시	44.9 (193)	26.0 (112)	29.1 (125)	8.589	100.0(430)
농어촌	41.8 (94)	32.0 (72)	26.2 (59)		100.0(225)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47.7 (320)	31.1 (209)	21.2 (142)		100.0(671)
학생(휴학포함)	59.2 (106)	14.5 (26)	26.3 (47)	54.179 ***	100.0(179)
구직, 기타	29.6 (66)	32.3 (72)	38.1 (85)		100.0(223)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일자리 특성별로는 전문가 관리자인 경우 자발적 결혼연기의 비중이 55.4%로 매우 높았으며, 비혼 비중은 13.5%에 그쳤다. 사무종사자는 자발적 결혼연기 48.7%, 비자발적 결혼연기 28.3%, 비혼 23.0%였으며, 서비스·판매종사자는 자발적 결혼연기 43.4%, 비자발적 결혼연기 31.3%, 비혼 25.3%였다. 농림어업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 등의 경우에는 자발적 결혼연기가 36.1%, 비혼이 22.7%에 그친 반면, 비자발적 결혼 연기가 41.2%로 높았다. 그러므로 농림어업 종사자 등이 결혼을 희망함에도 결혼하지 못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이들의 결혼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일자리 특성별 미혼 실태

단위: %(명)

구분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χ^2	계(수)
전체	47.7 (320)	31.1 (209)	21.2 (142)		100.0(671)
직종					
전문가 및 관리자	55.4 (82)	31.1 (46)	13.5 (20)	14.496 *	100.0(148)
사무종사자	48.7 (167)	28.3 (97)	23.0 (79)		100.0(343)
서비스·판매종사자	43.4 (36)	31.3 (26)	25.3 (21)		100.0(83)
농림어업종사자등	36.1 (35)	41.2 (40)	22.7 (22)		100.0(97)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2-9〉 소득별 미혼 실태

단위: 만원, %(명)

구분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χ^2	계(수)
월평균소득(평균)	245.9 (386)	200.3 (281)	140.4 (227)		100.0(894)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27.5 (50)	34.1 (62)	38.5 (70)	51.179 ***	100.0(182)
100~199만원	40.3 (118)	29.4 (86)	30.4 (89)		100.0(293)
200~299만원	50.2 (137)	33.7 (92)	16.1 (44)		100.0(273)
300~399만원	51.7 (45)	29.9 (26)	18.4 (16)		100.0(87)
400만원 이상	61.0 (36)	25.4 (15)	13.6 (8)		100.0(59)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미혼 상태별 월평균 소득은 자발적 결혼 연기자의 평균 소득이 245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혼자들의 경우 140만4천원으로 자발적 결혼 연기자와는 100

만원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비혼자들의 평균 소득이 낮은 이유는 소득이 100만 원미만인 비혼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구직중이거나 무직인 여성이 다수 여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 구간별로는 월평균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발적 결혼연기가 27.5%에 불과하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발적 결혼 연기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III-2-9 참조).

〈표 III-2-10〉 인적 특성별 비혼 결정 시기 및 결혼 의향 변화

단위: 세, %(명)

구분	비혼 결정시기 (평균연령)	결혼 의향 변화				계(수)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전체	23.6	20.7	26.4	26.0	26.9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0.8	18.9	21.4	22.1	37.5	100.0(280)
남성 30~39세	28.8	21.1	23.4	27.7	27.7	100.0(256)
여성 20~29세	19.7	18.8	28.3	27.9	25.0	100.0(276)
여성 30~39세	25.5	24.1	32.6	26.4	16.9	100.0(261)
F/χ^2	37.814 ***		34.185 ***			
최종 학력						
고졸이하	23.4	24.2	28.8	25.0	22.0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24.5	22.8	26.0	19.5	31.6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3.3	17.9	27.4	28.5	26.2	100.0(642)
대학원 이상	24.7	31.0	15.5	25.0	28.6	100.0(84)
F/χ^2	0.623		20.557 *			

주: 비혼 결정시기는 비혼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하였으며, 총 274명에 대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비혼을 결정한 시기는 평균 23.6세로, 30대 남성의 경우 28.8세, 30대 여성 25.5세였다. 20대 비혼자들이 비혼을 결정한 시기는 20세 전후로, 비혼 결정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결혼 의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혼 의향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53.3%(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26.4% + 지속적으로 있었던 경우 26.9%)였으며, 결혼 의향이 없었다가 생긴 경우 20.7%, 결혼 의향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 26.0%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결혼 의향이 없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고,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결혼 의향이 있는 비중이 약간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학력자 중 결혼의향이 없었으나 최근에 생긴 경우가 31.0%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전문대 재학 및 졸업자는 결혼의향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응

답이 31.6%로 높았다. 이를 통해, 결혼 의향은 항구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가변적임을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필요를 엿볼 수 있었다(표 III-2-10 참조).

결혼 의향 변화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의 경우 예전에는 결혼의향이 없었으나, 지금은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23.2%로, 학생이나 구직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구직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결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32.3%로, 취업자나 학생에 비해 이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일자리 유무가 결혼 의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표 III-2-11 참조).

〈표 III-2-11〉 지역규모 및 취업상태별 비혼 결정 시기 및 결혼 의향 변화

단위: 세, %(명)

구분	비혼 결정시기 (평균연령)	결혼 의향 변화				계(수)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전체	23.6	20.7	26.4	26.0	26.9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24.4	20.8	25.4	28.9	24.9	100.0(418)
중소도시	23.4	19.1	28.1	24.7	28.1	100.0(430)
농어촌	23.1	23.6	24.9	23.1	28.4	100.0(225)
F/χ^2	0.980		5.798			
취업(휴직포함)	24.9	23.2	25.5	24.6	26.7	100.0(671)
학생(휴학포함)	18.4	16.2	26.8	23.5	33.5	100.0(179)
구직, 기타	24.3	16.6	28.7	32.3	22.4	100.0(223)
F/χ^2	20.757 ***		15.279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과거에는 결혼 의향이 없었으나 현재는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정서적 안정을 얻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41.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출산 시기를 고려하면 지금쯤 해야할 것 같아서(17.1%)’,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서(11.7%)’, ‘이제는 결혼 적령기가 지난 것 같아서(11.3%)’ 순이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9.5%)’와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2.3%)’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2 참조).

〈표 III-2-12〉 과거에는 결혼 의향이 없었으나 현재는 결혼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정서적 안정을 얻고 싶어서	이제는 결혼 적령기가 지난 것 같아서	출산시기를 고려하면 지금쯤 해야할 것 같아서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서	기타	계(수)
전체	9.5	2.3	41.9	11.3	17.1	11.7	6.3	100.0(222)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0.8	3.8	39.6	3.8	11.3	13.2	7.5	100.0(53)
남성 30~39세	13.0	0.0	38.9	24.1	13.0	5.6	5.6	100.0(54)
여성 20~29세	3.8	0.0	48.1	5.8	15.4	17.3	9.6	100.0(52)
여성 30~39세	1.6	4.8	41.3	11.1	27.0	11.1	3.2	100.0(63)
χ^2	41.547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인적특성별로는 20대 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20.8%)’라는 이유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싶어서(48.1%)’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20대 남녀는 30대에 비해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30대 남성은 ‘이제는 결혼 적령기가 지난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30대 여성은 ‘출산 시기를 고려하면 지금쯤 해야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결혼 적령기에 대한 규범이 좀 더 크게 작용한 반면, 여성의 경우 출산 가능 연령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표 III-2-12 참조).

나. 결혼 연기자의 결혼 조건

이 항에서는 결혼할 의향이 있으나 현재는 미혼 상태인 결혼 연기자들의 결혼 조건에 대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결혼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남녀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3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33.0%)’,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15.3%)' 순이었다. 인적 특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결혼 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56.3%가 이에 응답하였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20대 여성의 경우에도 여기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한편,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라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3〉 결혼 연기자의 결혼 조건

단위: %(명)

구분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	사회적 지위가 안정된때	결혼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기타	계(수)
전체	15.3	39.7	5.3	33.0	5.4	1.4	100.0(799)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3.8	42.6	6.3	23.3	2.7	1.3	100.0(223)
남성 30~39세	13.1	47.6	7.3	24.8	7.3	0.0	100.0(206)
여성 20~29세	12.3	45.3	2.5	33.0	4.4	2.5	100.0(203)
여성 30~39세	10.2	19.2	4.8	56.3	7.8	1.8	100.0(167)
χ^2			92.641	***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10.2	39.3	3.8	38.9	6.4	1.3	100.0(529)
학생(휴학포함)	27.3	43.2	6.8	18.9	3.0	0.8	100.0(132)
구직, 기타	23.2	37.7	9.4	23.9	3.6	2.2	100.0(138)
χ^2			56.156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39.3%)'와 '결혼 할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38.9%)'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학생이나 구직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 결혼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긴 하나, 취업자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후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편으로, 취업 이후 결혼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으로의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청년기 내에서도 '교육-취업-경제적 안정-결혼'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져야 함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II-2-14〉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학력(1)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조건 : 학력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낮아도됨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높기를 희망	상관없음		
전체	5.6	38.8	28.4	27.1	3.43	100.0(798)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7.2	42.2	13.9	36.8	3.15	100.0(223)
남성 30~39세	6.3	48.5	10.7	34.5	3.11	100.0(206)
여성 20~29세	3.4	35.0	43.8	17.7	3.64	100.0(203)
여성 30~39세	5.4	27.1	51.2	16.3	3.78	100.0(166)
χ^2/F		127.322 ***			21.909 ***	
최종 학력						
고졸이하	6.8	23.9	27.3	42.0	3.43	100.0(88)
전문대 재학 및 졸업	7.8	28.1	32.7	31.4	3.52	100.0(153)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4.5	45.4	26.8	23.3	3.40	100.0(485)
대학원 이상	6.9	36.1	31.9	25.0	3.46	100.0(72)
χ^2/F		30.641 ***			0.494	
거주지역						
대도시	5.5	40.2	30.8	23.5	3.46	100.0(328)
중소도시	6.2	38.0	30.5	25.2	3.45	100.0(305)
농어촌	4.8	37.6	20.0	37.6	3.34	100.0(165)
χ^2/F		14.560 *			0.656	

주: 1) 5점 척도로,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3)을 기준으로 1과 2는 낮아도 됨, 4와 5는 높기를 희망으로 분류함.

2) 평균은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5점 만점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한편, 결혼 연기자들에게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실태조사에서 배우자의 조건은 자신과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조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는 결혼 연기자들의 동질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학력, 소득(재산), 사회적 지위, 나이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희망 배우자의 학력은 나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은 가운데, 나보다 높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28.4%, 학력은 상관없다는 응답이 27.1%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나와 비슷한 수준이기를 희망하거나 상관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보다는 높기를 희망하는 비중

이 높았다.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인 경우 상관없다는 응답이 42.0%로 높은 반면,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의 경우 동질혼을 희망하는 응답 비중이 45.4%로 매우 높았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자는 동질혼 희망 비중이 높고, 농어촌은 상관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농어촌 거주자 중에 고졸 이하 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과 상관된 것으로 보인다(표 III-2-14 참조).

〈표 III-2-15〉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학력(2)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조건 : 학력			상관없음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낮아도 됨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높기를 희망			
전체	5.6	38.8	28.4	27.1	3.43	100.0(798)
직종						
전문가 및 관리자	5.5	42.2	28.1	24.2	3.35	100.0(128)
사무종사자	6.8	36.0	37.5	19.7	3.57	100.0(264)
서비스·판매종사자	6.5	30.6	22.6	40.3	3.30	100.0(62)
농림어업종사자등	6.7	32.0	13.3	48.0	3.13	100.0(75)
χ^2/F		37.287 ***			3.243 *	
종사상 지위						
정규직	6.1	39.6	32.8	21.5	3.48	100.0(396)
비정규직, 일용직	7.2	26.1	27.5	39.1	3.43	100.0(69)
비임금근로	7.8	26.6	15.6	50.0	3.13	100.0(64)
χ^2/F		31.431 ***			1.980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8.1	38.7	19.8	33.3	3.23	100.0(111)
100~199만원	2.0	30.9	33.8	33.3	3.67	100.0(204)
200~299만원	9.2	41.5	26.2	23.1	3.32	100.0(229)
300~399만원	5.6	47.9	21.1	25.4	3.28	100.0(71)
400만원 이상	5.9	31.4	45.1	17.6	3.55	100.0(51)
χ^2/F		34.875 ***			4.260 **	

주: 1) 5점 척도로,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3)을 기준으로 1과 2는 낮아도 됨, 4와 5는 높기를 희망으로 분류함.

2) 평균은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5점 만점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리자인 경우 동질혼 희망 비중이 높고,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상관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

라서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나와 비슷한 수준(39.6%)이거나 나보다 높기를 희망(32.8%)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정규직·일용직과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소득별로도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상관없다는 응답이 높고, 200~399만원 구간은 비슷한 수준이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400만원이상 고소득 집단에서는 오히려 본인보다 소득이 높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비중이 높았다(표 III-2-15 참조).

배우자의 조건 중 소득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높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52.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나와 비슷한 수준 24.9%, 상관없다는 응답이 17.1%였다. 인적 특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20대 40.4%, 30대 36.4%로 높고, 상관없다는 응답도 20대 27.8%, 30대 29.1%로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나보다 높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20대 81.3%, 30대 83.2%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도 가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일반적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자일수록 배우자의 소득이 나보다 높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자신보다 높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II-2-16 참조).

〈표 III-2-16〉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소득(재산)(1)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조건 : 소득(재산)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낮아도 됨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높기를 희망	상관없음		
전체	5.4	24.9	52.6	17.1	3.93	100.0(799)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5.8	40.4	26.0	27.8	3.41	100.0(223)
남성 30~39세	6.3	36.4	28.2	29.1	3.48	100.0(206)
여성 20~29세	3.4	10.3	81.3	4.9	4.31	100.0(203)
여성 30~39세	6.0	7.8	83.2	3.0	4.40	100.0(167)
χ^2/F		255.389 ***			55.798 ***	

(표 III-2-16 계속)

구분	배우자 조건 : 소득(재산)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낮아도 됨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높기를 희망	상관없음		
최종 학력						
고졸이하	9.1	18.2	44.3	28.4	3.83	100.0(88)
전문대 재학 및 졸업	7.2	24.8	50.3	17.6	3.87	100.0(153)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4.7	26.3	54.3	14.6	3.94	100.0(486)
대학원 이상	1.4	23.6	55.6	19.4	4.07	100.0(72)
χ^2/F		18.010 *			0.796	
거주지역						
대도시	4.3	28.7	53.4	13.7	3.93	100.0(328)
중소도시	6.6	21.3	56.4	15.7	3.96	100.0(305)
농어촌	5.4	24.1	44.0	26.5	3.86	100.0(166)
χ^2/F		19.319 **			0.410	

주: 1) 5점 척도로,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3)을 기준으로 1과 2는 낮아도 됨, 4와 5는 높기를 희망으로 분류함.

2) 평균은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5점 만점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2-17〉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소득(재산)(2)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조건 : 소득(재산)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낮아도 됨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높기를 희망	상관없음		
전체	5.4	24.9	52.6	17.1	3.93	100.0(799)
직종						
전문가 및 관리자	5.5	22.7	55.5	16.4	3.96	100.0(128)
사무종사자	6.4	20.8	61.4	11.4	4.06	100.0(264)
서비스, 판매종사자	8.1	29.0	38.7	24.2	3.72	100.0(62)
농림어업종사자등	9.3	30.7	24.0	36.0	3.33	100.0(75)
χ^2/F		44.586 ***			7.248 ***	
종사상 지위						
정규직	6.3	25.3	56.1	12.4	3.95	100.0(396)
비정규직, 일용직	7.2	14.5	55.1	23.2	4.08	100.0(69)
비임금근로	9.4	23.4	23.4	43.8	3.39	100.0(64)
χ^2/F		47.359 ***			5.417 **	

(표 III-2-17 계속)

구분	배우자 조건 : 소득(재산)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낮아도 됨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높기를 희망	상관없음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5.4	25.0	49.1	20.5	3.92	100.0(112)
100~199만원	3.4	15.7	65.2	15.7	4.24	100.0(204)
200~299만원	7.9	25.8	50.7	15.7	3.84	100.0(229)
300~399만원	5.6	35.2	36.6	22.5	3.56	100.0(71)
400만원 이상	7.8	29.4	47.1	15.7	3.84	100.0(51)
χ^2/F	27.372 **				6.258 ***	

주: 1) 5점 척도로,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3)을 기준으로 1과 2는 낮아도 됨, 4와 5는 높기를 희망으로 분류함.

2) 평균은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5점 만점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직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배우자의 소득이 나보다 높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61.4%로 매우 높았고, 전문가 및 관리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소득이 높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55.5%로 높은 편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일용직)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보다 소득이 많기를 희망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43.8%로 높았는데, 이는 농림어업종사자가 비임금근로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자신의 소득이 100~199만원 미만인 경우에 배우자 소득이 높기를 희망하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00~399만원인 경우에 비슷한 수준이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35.2%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이 비중이 높았다(표 III-2-17 참조).

배우자의 조건 중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나보다 높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39.7%, 나와 비슷한 수준이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30.8%였다. 성별로 남성의 경우 나와 비슷한 수준이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20대 42.6%, 30대 41.7%로 높았고, 상관없다는 응답도 20대 35.0%, 30대 33.5%였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나보다 높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20대 60.1%, 30대 69.9%로, 소득에 대한 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신과 동질적이거나 크게 이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상위에 속한 남성과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표 III-2-18 참조).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리자, 사무종사자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보다 약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비중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III-2-19 참조).

〈표 III-2-18〉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사회적 지위(1)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조건 : 사회적 지위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낮아도 됨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높기를 희망	상관없음		
전체	4.8	30.8	39.7	24.7	3.69	100.0(798)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5.8	42.6	16.6	35.0	3.26	100.0(223)
남성 30~39세	4.4	41.7	20.4	33.5	3.37	100.0(206)
여성 20~29세	3.4	20.7	60.1	15.8	3.95	100.0(203)
여성 30~39세	5.4	13.9	69.9	10.8	4.10	100.0(166)
χ^2/F		185.877 ***			33.031 ***	
최종 학력						
고졸이하	5.7	22.7	34.1	37.5	3.71	100.0(88)
전문대 재학 및 졸업	5.2	26.1	43.8	24.8	3.77	100.0(153)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5.2	33.4	39.0	22.5	3.64	100.0(485)
대학원 이상	0.0	33.3	43.1	23.6	3.82	100.0(72)
χ^2/F		16.423			1.003	
거주지역						
대도시	4.6	35.4	40.9	19.2	3.69	100.0(328)
중소도시	4.3	26.9	43.0	25.9	3.76	100.0(305)
농어촌	6.1	29.1	31.5	33.3	3.54	100.0(165)
χ^2/F		17.532 **			2.063	

주: 1) 5점 척도로,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3)을 기준으로 1과 2는 낮아도 됨, 4와 5는 높기를 희망으로 분류함.

2) 평균은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5점 만점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II-2-19〉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사회적 지위(2)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조건 : 사회적 지위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낮아도 됨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높기를 희망	상관없음		
전체	4.8	30.8	39.7	24.7	3.69	100.0(798)
직종						
전문가 및 관리자	7.0	23.4	50.0	19.5	3.81	100.0(128)
사무종사자	3.8	28.0	49.2	18.9	3.85	100.0(264)
서비스,판매종사자	6.5	40.3	24.2	29.0	3.41	100.0(62)
농림어업종사자등	8.0	30.7	17.3	44.0	3.24	100.0(75)
χ^2/F		45.175 ***			6.546 ***	
종사상 지위						
정규직	4.8	30.3	46.0	18.9	3.77	100.0(396)
비정규직, 일용직	7.2	21.7	40.6	30.4	3.71	100.0(69)
비임금근로	7.8	26.6	18.8	46.9	3.35	100.0(64)
χ^2/F		32.249 ***			2.769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2.7	32.4	33.3	31.5	3.63	100.0(111)
100~199만원	3.9	23.0	47.1	26.0	3.88	100.0(204)
200~299만원	6.1	28.4	42.4	23.1	3.68	100.0(229)
300~399만원	5.6	38.0	29.6	26.8	3.44	100.0(71)
400만원 이상	3.9	37.3	45.1	13.7	3.89	100.0(51)
χ^2/F		19.458			2.762 *	

주: 1) 5점 척도로,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3)을 기준으로 1과 2는 낮아도 됨, 4와 5는 높기를 희망으로 분류함.

2) 평균은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5점 만점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배우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나보다 많기를 희망하는 경우 32.2%, 어리길 희망하는 경우 24.6%였는데, 남성의 경우 나보다 어리길 희망하는 비중이 높고, 여성은 높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연령이 자신보다 어리길 희망하는 비중이 49.0%로 높았다. 한편, 연령은 상관없다는 응답은 성·연령별 집단 모두에서 20%내외의 비중을 보였는데, 20대 남성이 이에 응답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긴 했으나,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III-2-20 참조).

〈표 III-2-20〉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연령(1)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조건 : 연령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어리길 희망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많기를 희망	상관없음		
전체	24.6	20.1	32.2	23.2	3.13	100.0(798)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30.9	25.1	16.1	27.8	2.71	100.0(223)
남성 30~39세	49.0	20.9	10.2	19.9	2.27	100.0(206)
여성 20~29세	3.9	17.2	56.2	22.7	3.96	100.0(203)
여성 30~39세	10.8	15.7	51.8	21.7	3.73	100.0(166)
χ^2/F		215.095 ***			90.743 ***	
최종 학력						
고졸이하	28.4	17.0	30.7	23.9	3.06	100.0(88)
전문대 재학 및 졸업	14.4	18.3	36.6	30.7	3.43	100.0(153)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7.4	21.4	31.3	19.8	3.06	100.0(485)
대학원 이상	22.2	18.1	30.6	29.2	3.08	100.0(72)
χ^2/F		18.444 *			2.481	
거주지역						
대도시	25.9	20.1	31.4	22.6	3.07	100.0(328)
중소도시	23.9	21.6	32.8	21.6	3.14	100.0(305)
농어촌	23.0	17.0	32.7	27.3	3.23	100.0(165)
χ^2/F		3.287			0.578	

주: 1) 5점 척도로,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3)을 기준으로 1과 2는 낮아도 됨, 4와 5는 높기를 희망으로 분류함.

2) 평균은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5점 만점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직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연령이 자신보다 어리기를 희망하기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농림어업 종사자 중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표 III-2-21 참조).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300~399만원인 구간에서 배우자가 자신보다 어리길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고, 100~199만원인 구간에서 배우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길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전자의 경우 남성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여성 비중이 높은 것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2-21〉 결혼 연기자의 동질혼에 대한 생각 : 연령(2)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조건 : 연령				평균점수	계(수)
	나보다 어리길 희망	나와 비슷한 수준	나보다 많기를 희망	상관없음		
전체	24.6	20.1	32.2	23.2	3.13	100.0(798)
직종						
전문가 및 관리자	24.2	18.0	37.5	20.3	3.20	100.0(128)
사무종사자	23.5	21.6	36.7	18.2	3.23	100.0(264)
서비스,판매종사자	27.4	17.7	32.3	22.6	3.02	100.0(62)
농림어업종사자등	40.0	20.0	13.3	26.7	2.44	100.0(75)
χ^2/F		20.000 *			5.855 ***	
종사상 지위						
정규직	25.3	22.2	34.8	17.7	3.14	100.0(396)
비정규직, 일용직	26.1	14.5	36.2	23.2	3.17	100.0(69)
비임금근로	34.4	12.5	18.8	34.4	2.67	100.0(64)
χ^2/F		17.931 **			2.521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27.0	17.1	27.0	28.8	3.06	100.0(111)
100~199만원	18.1	16.2	41.2	24.5	3.45	100.0(204)
200~299만원	27.9	22.3	29.3	20.5	2.96	100.0(229)
300~399만원	42.3	19.7	23.9	14.1	2.69	100.0(71)
400만원 이상	19.6	23.5	33.3	23.5	3.23	100.0(51)
χ^2/F		29.301 **			5.064 ***	

주: 1) 5점 척도로,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3)을 기준으로 1과 2는 낮아도 됨, 4와 5는 높기를 희망으로 분류함.

2) 평균은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5점 만점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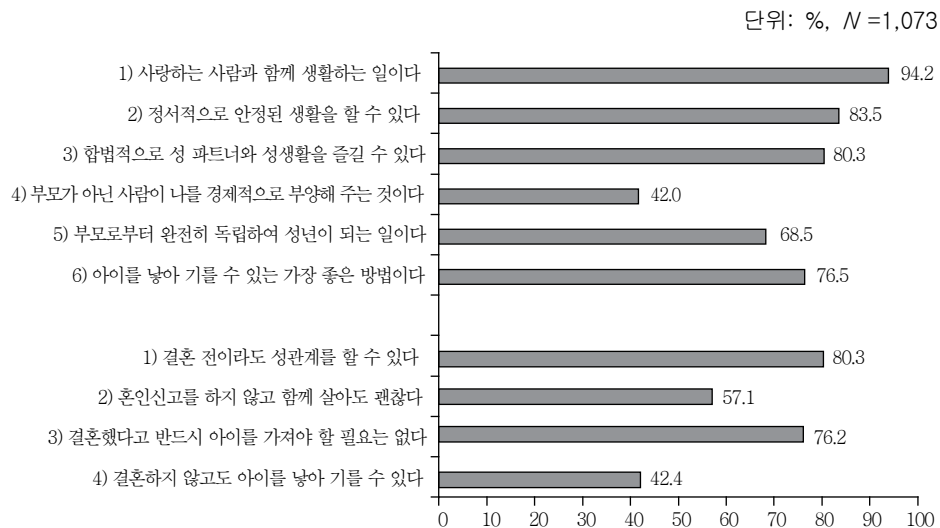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 결혼 가치관에 대한 견해

본 절에서는 20~30대 미혼 남성과 여성의 결혼가치관을 1) 결혼의 의미에 대한 견해, 2) 결혼 문화 및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 3)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각 가치관에 대해서 미혼상태별, 성 및 연령별, 성 및 학력별로 나누어 그룹 간에 결혼에 관련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결혼의 의미 및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

결혼의 의미와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견해는 [그림 III-3-1]에 제시하였다. 결혼의 의미에 대한 견해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라는 항목에 동의한 정도가 9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가 아닌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주는 것이다'라는 항목에 동의한 정도는 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 그림의 수치는 동의함의 정도를 나타냄('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II-3-1] 결혼의 의미 및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로는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80.3%로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내었으나, 57.1%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며, 42.4%만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라는 항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동거나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결혼을 했다고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76.2%로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다.

<표 III-3-1>에서는 결혼의 의미와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에 대해 결혼의향에 따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서 향후 결혼의향이 없는 비혼의 경우 자발적 및 비자발적 결혼연기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결혼의 의미를 낮게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결혼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결혼연기자 집단이 90%정도의 동의를 보인 것에 반해, 비혼 집단은 60%만이 동의하였다.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에서는 비혼 집단이 '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할 필요는 없다'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에 결혼 연기 집단에 비해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결혼=자녀'라는 전통적인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1> 미혼상태별 결혼의 의미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χ^2
결혼의 의미				
1)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	97.4	96.1	86.5	40.894 ***
2)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91.9	90.9	60.2	144.973 ***
3)합법적으로 성 파트너와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	81.1	85.0	73.7	12.023 **
4)부모가 아닌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주는 것이다	47.0	42.3	32.8	14.387 ***
5)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성년이 되는 일이다	71.7	71.3	59.5	13.860 ***
6)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79.5	81.8	65.3	26.172 ***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				
1)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79.5	84.0	77.4	4.399
2)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	56.7	53.1	62.4	5.195
3)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할 필요는 없다	75.0	69.1	86.5	25.073 ***
4)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40.2	38.4	50.4	10.031 **
(수)	(492)	(307)	(274)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II-3-2>에서는 성 및 연령별로 결혼의 의미와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가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20대가 30대보다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 등의 문항에 있어서는 30대 여성의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남성과 20대 여성에 비해 성관계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는 20대 여성과 함께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의견에는 30대 남성만 50%가 넘는 동의정도를 보였으며, 여성들은 동의 정도가 40%정도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자녀출산과 연계시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4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에서 자녀를 가지고 싶다고 의향을 밝힌 응답자들도 자녀를 갖고 싶기는 하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 있자나요. 그런 나라에서 이걸 어쩔거나 미혼모자나요. 이런 상황을 애한테 만들어 주고 싶지가 않아요. (40대 여성 A)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의사인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40대 남성 B)

<표 III-3-2> 성 및 연령별 결혼의 의미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결혼의 의미					
1)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	96.1	92.2	97.1	91.2	12.322 **
2)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87.5	84.4	80.1	82.0	6.179
3)합법적으로 성 파트너와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	80.4	82.8	79.7	78.5	1.593

(표 III-3-2 계속)

구분	남성		여성		χ^2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4)부모가 아닌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주는 것이다	40.7	43.0	43.5	41.0	0.644
5)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성년이 되는 일이다	67.9	69.9	68.5	67.8	0.350
6)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80.0	82.0	74.3	69.7	13.681 **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					
1)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82.9	82.4	81.5	73.9	8.785 *
2)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	62.9	61.3	54.3	49.8	12.177 **
3)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할 필요는 없다	66.4	68.8	87.3	82.4	46.926 ***
4)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38.6	52.7	38.8	39.8	15.068 **
(수)	(280)	(256)	(276)	(26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3> 성 및 학력별 결혼의 의미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대졸미만	대졸이상	대졸미만	대졸이상	
결혼의 의미					
1)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	95.2	93.3	93.3	95.0	1.569
2)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86.6	85.4	82.0	80.2	5.332
3)합법적으로 성 파트너와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	79.9	83.1	75.7	81.9	5.019
4)부모가 아닌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주는 것이다	44.6	39.0	42.7	41.9	1.815
5)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성년이 되는 일이다	67.3	70.4	68.6	67.8	.708
6)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76.6	85.4	74.5	70.1	19.017 ***

(표 III-3-3 계속)

구분	남성		여성		χ^2
	대졸미만	대졸이상	대졸미만	대졸이상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					
1)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78.4	86.9	75.7	79.5	11.159 *
2)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	59.5	64.8	53.6	51.0	12.818 **
3)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할 필요는 없다	62.8	72.3	84.5	85.2	51.374 ***
4)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41.6	49.1	37.7	40.6	7.515
(수)	(186)	(350)	(136)	(40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대학 재학생은 미만으로 분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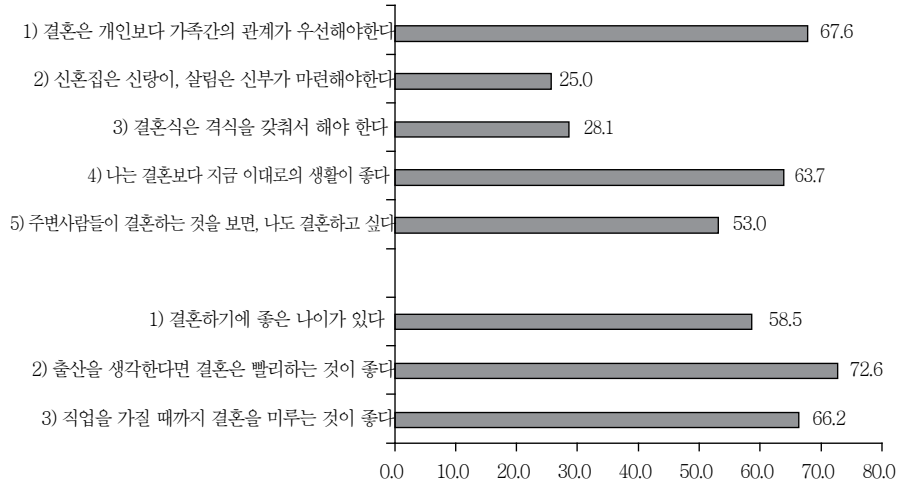
<표 III-3-3>에서는 결혼의 의미 및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를 성 및 학력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결혼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대졸이상의 남성이 대졸 미만 남성이나 여성 그룹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다.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는 대졸 이상 남성이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에 동의한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혼외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나. 결혼 문화 및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

결혼문화와 결혼시기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견해는 [그림 III-3-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결혼문화에 대해서는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67.6%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보다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 좋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6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혼집은 신랑이, 살림은 신부가 마련해야한다는 항목이 25.0%, 결혼식은 격식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항목에 28.1%만이 동의하여, 기존의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시기에 대해서는 출산을 생각하면 결혼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2.6%로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8.5%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단위: %, N=1,073



주: 그림의 수치는 동의함의 정도를 나타냄(‘전적으로 동의함’+‘대체로 동의함’)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II-3-2]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표 III-3-4>에 나타난 것처럼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를 미혼 상태별로 살펴보면,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혼의 경우 결혼연기자들에 비해, 결혼 준비 및 결혼식 격식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나는 결혼보다 지금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라는 항목에서는 비혼자 중 90.5%가 동의하면서, 비자발적 결혼연기자의 46.3%와 자발적 결혼연기자의 59.3%만이 동의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주변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의견은 비자발적 결혼연기는 73.3%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발적 결혼연기는 59.3%, 비혼은 18.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비혼의 경우, 현재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타인의 삶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표 III-3-5>에서는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를 성 및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대 남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문화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볼 수 있다. 20대 남성은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30대 남성과 여성에 비해 높은 동의정도(74%)를, ‘결혼보다 지금 이대

로의 생활이 좋다'에는 다른 집단보다 낮은 동의정도(54%)를 나타내어 결혼 및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결혼식은 격식을 갖추서 해야 한다'와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표 III-3-4〉 미혼상태별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χ^2
결혼 문화				
1)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	69.1	70.0	62.4	4.713
2)신혼 집은 신랑이, 살림은 신부가 마련해야한다	27.6	27.0	17.9	9.918 **
3)결혼식은 격식을 갖추서 해야 한다	31.9	30.3	19.0	15.535 ***
4)나는 결혼보다 지금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	59.6	46.3	90.5	129.175 ***
5)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59.3	73.3	18.6	188.735 ***
결혼시기				
1)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	59.3	66.1	48.5	18.695 ***
2)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	74.8	80.1	60.2	31.059 ***
3)직업을 가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	61.8	69.7	70.4	8.171 *
(수)	(492)	(307)	(274)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특히 결혼이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0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도 남녀의 의견이 크게 나뉘었는데, 40대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후 맺어지는 확장된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드러났다.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시부모나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계, 시댁식구, 율케 그런 관계들이 그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생기는 거자나요. 저는 일단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관계가 없으니까 친구들보다 좋은 것 같긴해요. 그런 애들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저는 지금 결혼생각이 없지만 결

혼을 꼭 해야 한다면 그런 관계가 최소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게 영향을 미쳤어요. 저한테. (40대 여성 A)

친구가 그런 가족 문제로 이혼을 했어요.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시댁과의 문제가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40대 여성 G)

이에 반해 남성에게 결혼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물었을 때는 여성들과는 다른 방향의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들이 결혼과 가족을 생각했을 때, 상대의 가족(시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낌에 반해 남성들은 부모가 결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할 여성이 자신의 부모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저는 뭐 그렇게 (부모님이 결혼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은 아닐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건강하시고 하니까. (40대 남성 E)

현재는 이십프로 정도? 그러니까 집에 사람을 들인다는 의미에서 보면 나하고는 물론 잘 맞아야 되는 거고 가족 간에도 왕래가 가끔씩 있고 명절이나 이런걸 지내야되자나요. 그런 부분들로인해서 최소한은 맞아야되니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퍼센트가 많이 낮아졌지만 예전에는 이부분이 육십프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40대 남성 F)

예전에는 아예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막상하게 된다면 그렇게 깊게는 생각안해봤는데 한 십에서 십오프로는 확실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상식이 있는 여자고, 모든 것이 나에게 완벽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40대 남성 G)

<표 III-3-5> 성 및 연령별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결혼 문화					
1)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	73.9	66.4	68.8	60.9	10.808 *
2)신혼 집은 신랑이, 살림은 신부가 마련해야한다	23.9	27.3	20.3	28.7	6.133
3)결혼식은 격식을 갖추서 해야한다	33.6	30.9	24.3	23.8	9.540 *

(표 III-3-5 계속)

구분	남성		여성		χ^2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4)나는 결혼보다 지금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	53.9	61.3	68.1	71.6	21.629 ***
5)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61.4	59.4	48.6	42.1	26.694 ***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1)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	66.4	60.9	54.7	51.7	14.448 **
2)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	75.0	75.8	67.8	72.0	5.415
3)직업을 가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	73.9	66.0	63.8	60.9	11.469 **
(수)	(280)	(256)	(276)	(26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는 여성(50%초반)이 남성(60%중반)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성에게 연령규범이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응답 대상이 미혼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즉, 연령규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여성은 이미 기혼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을 가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라는 항목에는 20대 남성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표 III-3-6>에 성 및 학력별로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성 및 연령별로 나눈 결과와는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대졸 미만의 남성은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시해야한다’는 의견에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고, ‘결혼식은 격식을 갖춰서 해야한다’는 의견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 또한 학력에 상관없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결혼보다 지금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고, ‘주변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시기에 대한 견해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고, 대졸이상의 남성은 직업을 가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6〉 성 및 학력별 결혼문화 및 결혼시기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 ²
	대졸미만	대졸이상	대졸미만	대졸이상	
결혼 문화					
1)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	76.6	64.0	66.5	63.8	13.590 **
2)신혼 집은 신랑이, 살림은 신부가 마련해야한다	25.7	25.5	25.1	23.8	0.312
3)결혼식은 격식을 갖춰서 해야한다	35.7	28.8	24.3	23.8	12.157 **
4)나는 결혼보다 지금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	56.5	58.4	68.2	71.1	18.450 ***
5)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60.2	60.7	45.6	45.3	24.275 ***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1)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	62.8	64.8	56.9	50.3	14.865 **
2)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	71.0	79.8	71.5	68.5	9.960 *
3)직업을 가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	66.2	74.2	61.5	63.1	11.208 *
(수)	(186)	(350)	(136)	(40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대학 재학생은 미만으로 분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이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51.8%가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생각을 성 및 연령별, 최종 학력별, 거주지역, 취업상태, 직종, 종사상의 지위,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여부 등에 따라 살펴보았다.

특히 결혼 적령기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남녀가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연령과 상관없이 남성은 60%정도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은 45%로 내외 정도만(20대는 46.4%, 30대는 42.1%)가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결혼적령기라고 생각하는 나이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결혼적령기는 20대 남성(30.8세)<30대 남성(32.8세), 20대 여성(32.4세)<30대 여성(33.6세)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결혼 적령기는 20대 남성(28.3세)<30대 남성(29.3세), 20대 여성(29.6세)<30대 여성(31.0세) 순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견해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젊은 학생 집단은 취업자 및 구직자들에 비해 결혼적령기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농어업종사자 그룹(직종별 분류), 비임금근로자 그룹(종사자 지위별 분류)도 분류 내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적령기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에 학력, 거주지역, 1인 가구 여부별로는 결혼적령기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I-3-7, III-3-8 참조).

〈표 III-3-7〉 인적특성별 결혼 적령기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적령기 없음	적령기 있음	평균연령		계(수)
			남성의 적령기	여성의 적령기	
전체	48.2	51.8	32.3	29.4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40.7	59.3	30.8	28.3	100.0(280)
남성 30~39세	40.6	59.4	32.8	29.3	100.0(256)
여성 20~29세	53.6	46.4	32.4	29.6	100.0(276)
여성 30~39세	57.9	42.1	33.6	31.0	100.0(261)
F/χ^2	25.163 ***		26.719 ***	24.438 ***	
최종 학력					
고졸이하	45.5	54.5	32.1	29.0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47.4	52.6	32.1	29.5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49.4	50.6	32.3	29.4	100.0(642)
대학원 이상	45.2	54.8	32.6	29.7	100.0(84)
F/χ^2	1.099		0.438	0.729	
거주지역					
대도시	46.2	53.8	32.4	29.4	100.0(418)
중소도시	50.7	49.3	32.4	29.6	100.0(430)
농어촌	47.1	52.9	31.7	29.1	100.0(225)
F/χ^2	1.870		2.349	1.464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46.2	53.8	32.5	29.6	100.0(671)
학생(휴학포함)	53.6	46.4	31.3	28.7	100.0(179)
구직, 기타	49.8	50.2	32.1	29.3	100.0(223)
F/χ^2	3.412		5.844 **	4.313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8〉 일자리 특성 등 결혼 적령기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적령기 없음	적령기 있음	평균연령		계(수)
			남성의 적령기	여성의 적령기	
전체	48.2	51.8	32.3	29.4	100.0(1,073)
직종					
전문가 및 관리자	48.0	52.0	32.8	29.8	100.0(148)
사무종사자	47.5	52.5	32.9	30.0	100.0(343)
서비스,판매종사자	47.0	53.0	32.1	29.6	100.0(83)
농림어업종사자등	38.1	61.9	31.4	28.4	100.0(97)
F/χ^2	2.982		4.946 **	5.694 ***	
종사상 지위					
정규직	45.0	55.0	32.7	29.9	100.0(505)
비정규직, 일용직	46.7	53.3	32.1	29.2	100.0(92)
비임금근로	54.1	45.9	31.4	28.4	100.0(74)
F/χ^2	2.164		4.048 *	5.458 **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54.4	45.6	32.2	29.3	100.0(182)
100~199만원	49.8	50.2	32.2	29.4	100.0(293)
200~299만원	41.4	58.6	32.8	29.9	100.0(273)
300~399만원	41.4	58.6	33.1	30.1	100.0(87)
400만원 이상	45.8	54.2	31.3	28.4	100.0(59)
F/χ^2	9.519 *		2.661 *	2.975 *	
1인가구여부별					
혼자	45.0	55.0	32.3	29.4	100.0(218)
(조)부모와 함께	48.6	51.4	32.3	29.4	100.0(797)
형제자매친인척 기타	55.2	44.8	32.2	29.7	100.0(58)
F/χ^2	2.090		0.019	0.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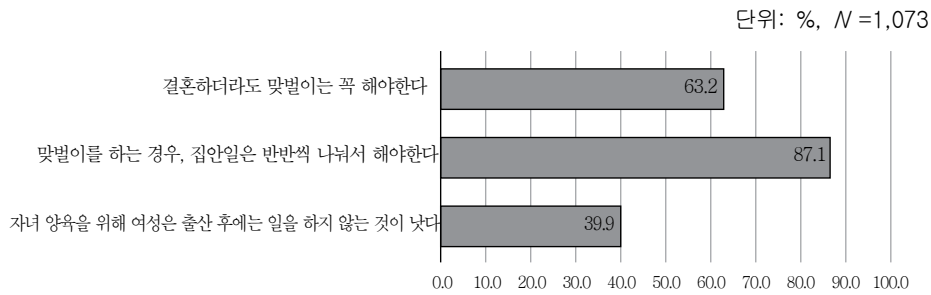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 후 성역할 분담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특히 여성들의 비혼 결심과 결혼연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단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87.1%, ‘결혼 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한다’는 비율이 63.2%로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반면,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는

39.9%로 낮게 나타나, 결혼 후 성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이 전통적인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그림의 수치는 동의함의 정도를 나타냄(“전적으로 동의함+대체로 동의함”)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II-3-3] 성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 (동의함 응답 비중)

<표 III-3-9>에서는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을 결혼의향에 따라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세 문항 모두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는 결혼 의향과는 상관없이 전반적인 20~30대 미혼 청년들의 견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9> 미혼상태별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χ^2
가족내 성 역할 분담				
1)결혼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한다	61.8	63.8	65.3	1.008
2)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 씩 나눠서 해야한다	88.0	86.3	86.5	0.617
3)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 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41.9	42.0	33.9	5.428
(수)	(492)	(307)	(274)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표 III-3-10> 성 및 연령별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 ²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가족내 성 역할 분담					
1)결혼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한다	57.1	63.7	70.3	62.1	10.557 *
2)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한다	82.9	80.1	94.6	90.8	32.680 ***
3)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42.5	42.2	36.6	38.3	2.880
(수)	(280)	(256)	(276)	(26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하지만,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를 성 및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표 III-3-10>과 같다. 성별로, 또 연령별로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들이 있었는데, ‘결혼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한다’는 의견에는 20대 여성(70.3%)>30대 남성(63.7%)>30대 여성(62.1%)>20대 남성(57.1%) 순으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30대는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맞벌이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모든 연령, 성별에서 8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나,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동의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자녀양육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 차이는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이 여성의 결혼의향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주위에서 얘기를.. 회사 내에서도 육아휴직 쓰시는 거 보면서는 희생을 하면서 사는 거는 나랑 좀 안 맞는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굳어지는 거 같아요. (40대 여성 D)

저도 아는 분이 육아휴직을 여자가 내고, 1년은 아기를 보고 그리고 일을 가고 여자는 일을 하고. 남자분은 육아휴직이 안되서 그냥 직장그만두고, 애를 봤어요. 돈은 여자가 벌고, 남편이 아이를 봤는데, 너무 돈독해지고 가족화된 것도 커지고. 애기도 원래 똑똑한건지는 모르지만 발달이 빠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남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 (40대 여성 G)

〈표 III-3-11〉 성 및 학력별 가족내 성 역할 분담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대졸미만	대졸이상	대졸미만	대졸이상	
가족내 성 역할 분담					
1)결혼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한다	55.0	65.5	64.9	67.4	10.974 *
2)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한다	81.8	81.3	92.1	93.3	30.278 ***
3)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45.7	39.0	41.8	33.9	8.767 *
(수)	(186)	(350)	(136)	(40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음으로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를 성 및 학력별로 알아본 결과는 <표 III-3-11>에 제시하였다. ‘결혼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대졸미만의 남성은 55%로 대졸 이상 남성과 여성 집단에 비해 낮은 동의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차이 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90%이상이 해당문항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80%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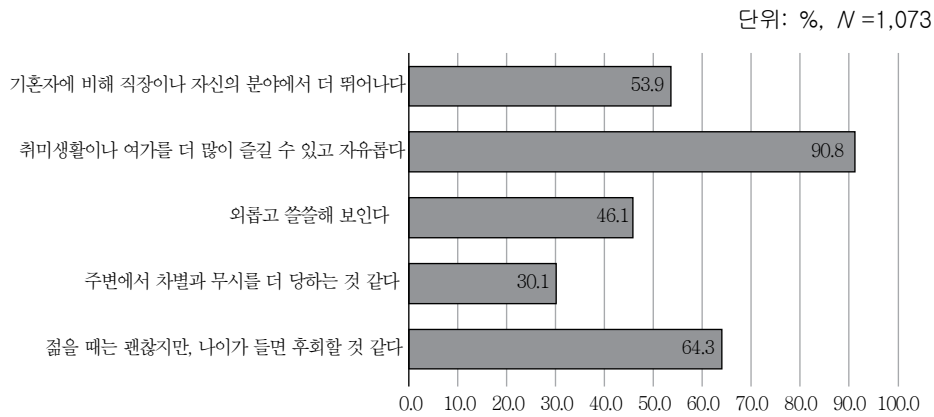
4. 비혼 및 1인 가구에 대한 태도

최근에 비혼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 청년층이 비혼과 1인 가구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의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결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 절에서는 1) 비혼자에 대한 견해, 2)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를 각각 미혼상태별, 성 및 연령별, 성 및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비혼자에 대한 견해

[그림 III-4-1]은 미혼 청년들의 비혼자에 대한 견해를 보여준다. 비혼자가 ‘취미 생활이나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롭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90.8%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는 의견은 64.3%였다.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와 '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더 당하는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각 46.1%, 30.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자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그림의 수치는 동의함의 정도를 나타냄('전적으로 동의함'+'대체로 동의함')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II-4-1] 비혼자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비중)

비혼자에 대한 견해를 미혼상태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를 <표 III-4-1>에 제시하였다. 전체 의견에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낸,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롭다'에서는 미혼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90% 이상의 동의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의견에서 가장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낸, '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더 당하는 것 같다'에 대해서는 미혼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30%정도의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낸 반면,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확연히 차이 나는 의견이 나타난 문항도 있었다. 먼저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의 경우 자발적 및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들이 각각 50.6%, 56.7%의 동의정도를 보인 반면 비혼의 경우 25.9%로, 다른 집단의 절반정도의 동의정도를 나타냈고,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면 후회할 것 같다'는 의견에는 자발적(73%),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들의 경우(77.9%), 꽤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낸 반면,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혼의 경우에는 33.6%의 동의정도만 나타냈다.

〈표 III-4-1〉 미혼상태별 비혼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χ^2
비혼자에 대한 견해				
1)기혼자에 비해 직장이나 자신 의 분야에서 더 뛰어나다	55.1	47.2	59.5	9.216 **
2)취미생활이나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롭다	90.4	90.2	92.0	0.641
3)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50.6	56.7	25.9	62.801 ***
4)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더 당 하는 것 같다	30.3	26.7	33.6	3.259
5)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 면 후회할 것 같다	73.0	77.9	33.6	153.338 ***
(수)	(492)	(307)	(274)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또한 비혼에 관한 견해를 성 및 연령별로 비교해본 결과를 <표 III-4-2>에 제시하였다. 이 경우 연령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더 확연하였는데, ‘기혼자에 비해 직장이나 자신의 분야에 더 뛰어나다’,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롭다’라는 의견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고,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와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의견에는 여성이 더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혼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혼 집단의 비혼에 대한 견해와 여성 집단의 비혼에 대한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한 2절의 [그림 III-2-1]에 나타난 성 및 연령별 비혼실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비혼 응답자 중 여성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별 연령별 비교에서는 대부분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을 보자면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는 30대 여성(58.2%)<20대 여성(62.7%), 30대 남성(64.8%)<20대 남성(71.1%)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사이에 의견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2> 성 및 연령별 비혼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비혼자에 대한 견해					
1)기혼자에 비해 직장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더 뛰어나다	48.2	42.6	67.4	57.1	38.140 ***
2)취미생활이나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롭다	85.7	89.8	95.7	92.0	17.099 ***
3)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58.6	50.4	36.2	38.7	36.001 ***
4)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더 당하는 것 같다	29.3	35.5	25.0	31.0	7.218
5)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	71.1	64.8	62.7	58.2	10.121 *
(수)	(280)	(256)	(276)	(26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III-4-3> 성 및 학력별 비혼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대졸미만	대졸이상	대졸미만	대졸이상	
비혼자에 대한 견해					
1)기혼자에 비해 직장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더 뛰어나다	45.4	45.7	66.1	59.4	33.110 ***
2)취미생활이나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롭다	86.2	89.1	92.1	95.3	15.200 **
3)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58.0	51.3	39.3	35.9	35.105 ***
4)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더 당하는 것 같다	34.2	30.3	30.1	26.2	4.340
5)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	70.3	65.9	61.5	59.7	7.990 *
(수)	(186)	(350)	(136)	(40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III-4-3>에서는 성 및 학력별 비혼에 관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표 III-4-2>에 나타난 경향성과 비슷하게 나타났

다. 학력별로 차이가 나타난 문항들을 살펴보면 대졸 미만 남성의 경우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의견에 70.3%의 동의정도를 보이지만 30대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59.7%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정도를 보여서, 성별 및 학력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표 III-44>에서는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비혼을 위한 선결조건에 대해 정리하였다. 응답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 경제적 능력, 2) 안정적인 일자리, 3) 가까운 친구나 가족, 4) 취미활동, 5) 독립적인 성격 6) 기타로 나누어 답하였다.

집단별로 응답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성 및 연령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적인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각 성별 안에서 30대가 20대보다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정도가 높았다. 남성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를 여성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20대 남성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까운 친구나 가족, 취미활동, 독립적인 성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30대 여성이 경제적 능력을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40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도 나타났다. 노후에도 혼자 살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모아두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에서 고연령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금전적으로. 저는 이제 혼자 산지가 동생이랑 같이 살다가 최근에 독립한지 일 년 정도 됐는데요. 혼자 살면 나가는게 다 돈이어나요. 누가 벌어드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 혼자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40대 여성 C)

혼자 산다고 해서 목표가 자기 돈을 모으는 거다 보니까 주말에는 저는 투잡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조금 더 벌어야 하니까. 웹디자인쪽 공부도 하고 있어서 저는 문화생활을 많이 못해요. (40대 여성 A)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학생의 경우 결혼하지 않고 살기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경제적 능력'을 선택한 비율이 취업자 및 구직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또한 가까운 친구나 가족, 독립적인 성격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4〉 비혼을 위한 선결 조건

단위: %(명)

구분	경제적 능력	안정적 일자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	취미활동	독립적인 성격	기타	계(수)
전체	66.6	11.4	7.0	5.0	9.9	0.1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51.8	12.9	11.8	9.6	13.6	0.4	100.0(280)
남성 30~39세	66.8	14.5	4.7	4.3	9.8	0.0	100.0(256)
여성 20~29세	71.4	9.8	7.2	3.3	8.3	0.0	100.0(276)
여성 30~39세	77.4	8.4	3.8	2.7	7.7	0.0	100.0(261)
F/χ^2			13.270 ***				
최종 학력							
고졸이하	65.2	15.9	6.8	3.8	8.3	0.0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70.2	11.6	6.5	6.5	5.1	0.0	100.0(215)
4년제대 재학 및 졸업	66.0	10.4	6.9	5.0	11.5	0.2	100.0(642)
대학원 이상	64.3	10.7	9.5	3.6	11.9	0.0	100.0(84)
F/χ^2			1.541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69.7	10.7	6.0	4.6	8.9	0.0	100.0(671)
학생(휴학포함)	53.1	13.4	10.6	7.8	14.5	0.6	100.0(179)
구직, 기타	68.2	11.7	7.2	4.0	9.0	0.0	100.0(223)
F/χ^2			8.9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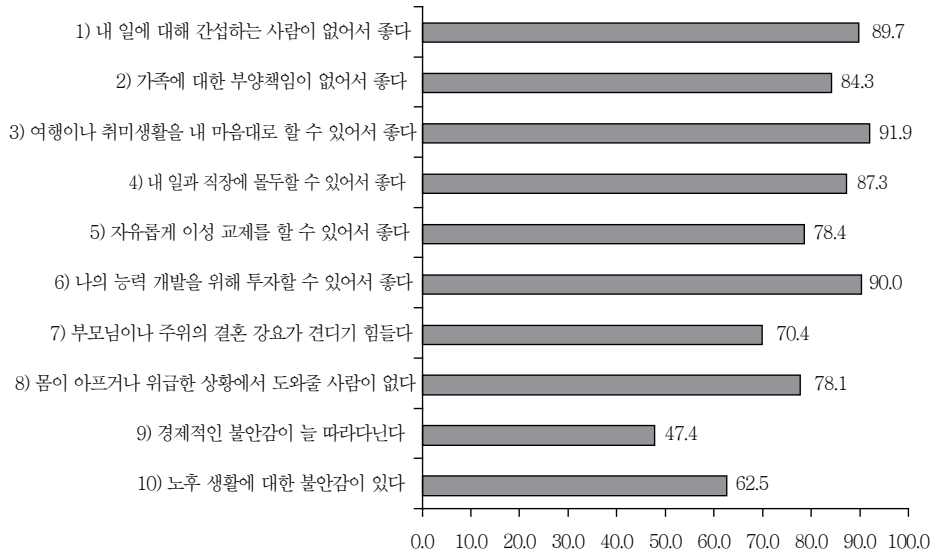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1인 가구에 대한 견해

[그림 III-4-2]에서는 미혼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능력개발(90%), 간섭받지 않음(89.7%),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음(87.3%), 가족부양 책임 없음(84.3%), 자유로운 이성교제(78.4%) 등 자유롭고,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낸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 없음(78.1%), 주변의 강요 견디기 힘들(70.4%),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62.5%) 등 부정적인 면도 꽤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미혼에 대해 늘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의견에는 47.4%로 동의정도가 높지 않았다.

단위: %, N=1,073



주: 그림의 수치는 동의함의 정도를 나타냄(“전적으로 동의함”+“대체로 동의함”)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II-4-2]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를 미혼 상태별로 살펴보았다(표 III-4-5 참조).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능력개발에 투자할 수 있음’, ‘자유로운 이성교제’ 등은 자발적 및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나 비혼자 사이에 의견의 차이 없이 모든 집단에서 70% 이상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반면에 몇 가지 문항에 대해서는 비혼자들의 의견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내 일에 대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없어서 좋다’, ‘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비혼자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비혼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주위의 결혼 강요가 견디기 힘들다’거나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확률도 결혼연기자들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혼자들은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타인을 신경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며, 주위의 압박이나 주변의 도움 등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성향을 볼 수 있다.

<표 III-4-5> 미혼상태별 1인 가구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χ^2
1인 가구에 대한 견해				
1)내 일에 대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88.4	87.0	94.9	11.299 **
2)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없어서 좋다	83.5	80.5	89.8	9.836 **
3)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90.4	92.5	93.8	2.868
4)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86.0	84.7	92.7	9.888 **
5)자유롭게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79.7	78.2	76.3	1.209
6)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89.8	88.9	91.2	0.867
7)부모님이나 주위의 결혼 강요가 건디기 힘들다	70.7	76.2	63.1	11.942 **
8)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79.3	81.4	72.3	7.845 *
9)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48.4	47.2	46.0	0.410
10)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65.4	68.1	50.7	22.079 ***
(수)	(492)	(307)	(274)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4-6>에서는 1인 가구에 관한 견해를 성 및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대부분의 문항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문항에 따라서 성별로 차이가 나는 문항과 성 및 연령의 조합에서 차이가 나는 문항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차이가 있는 문항을 살펴보면, ‘내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자유롭게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및 ‘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등의 문항에 있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 문항들도 있었는데, 20대 남성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부

양책임이 없어서 좋다',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등에 대해 유의미하게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 다닌다'라는 의견에는 20대가 30대 보다 더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표 III-4-6>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1인 가구에 대한 견해					
1)내 일에 대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83.2	89.5	92.4	93.9	19.762 ***
2)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없어서 좋다	78.2	87.1	88.0	83.9	12.281 **
3)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87.5	90.2	95.7	94.3	15.383 **
4)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80.4	83.2	95.3	90.4	34.292 ***
5)자유롭게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67.9	79.7	83.7	82.8	26.108 ***
6)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87.9	82.8	96.0	92.7	29.188 ***
7)부모님이나 주위의 결혼 강요가 견디기 힘들다	66.1	71.1	79.3	64.8	17.165 ***
8)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77.5	76.2	81.5	77.0	2.685
9)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36.4	50.8	44.6	59.0	29.674 ***
10)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61.8	62.5	58.3	67.4	4.811
(수)	(280)	(256)	(276)	(26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II-4-7>은 1인 가구에 관한 견해를 성 및 학력별로 나누어 본 결과이다. 성별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앞서 성 및 연령별에서 성별로만 차이가 나타난 문항과 동일하다. 그 외에 학력과 성별의 조합에 따라 차이를 보인 문항을 살펴 보면, 대졸 미만 남성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없어서 좋다', '부모님이나 주위의 결혼 강요가 견디기 힘들다' 등의 가족의 구속에 대한 문항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은 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으

며, '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 다닌다'라는 의견에는 대졸 미만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표 III-4-7> 성 및 학력별 1인 가구에 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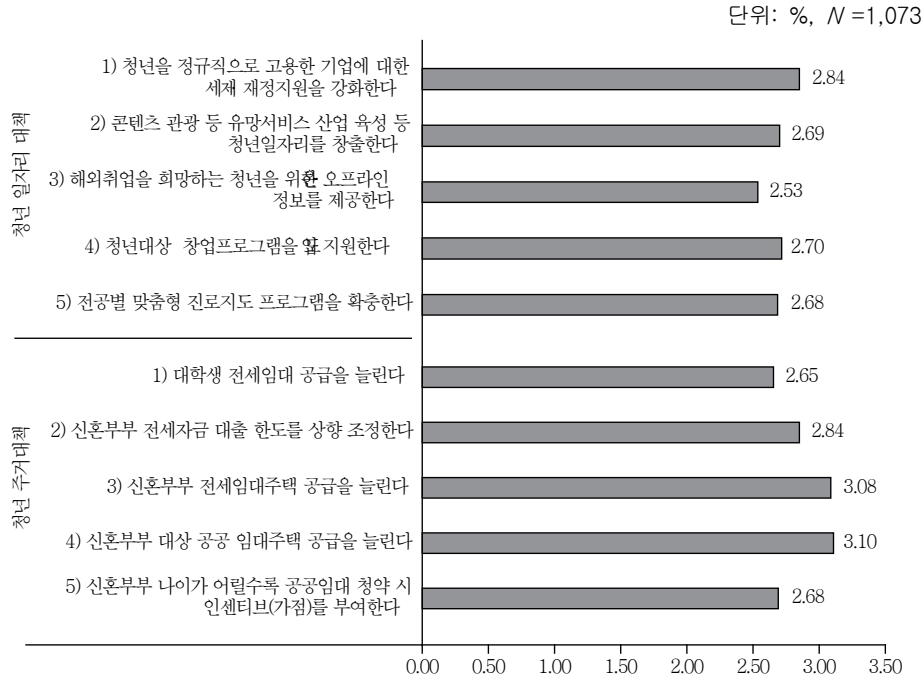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대졸미만	대졸이상	대졸미만	대졸이상	
1인 가구에 대한 견해					
1)내 일에 대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82.5	89.9	92.9	93.3	21.682 ***
2)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없어서 좋다	78.8	86.1	85.4	86.6	8.155 *
3)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90.0	87.6	92.9	96.6	17.172 ***
4)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83.3	80.1	94.1	91.9	32.198 ***
5)자유롭게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73.6	73.4	82.4	83.9	15.166 **
6)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84.8	86.1	92.5	96.0	25.904 ***
7)부모님이나 주위의 결혼 강요가 견디기 힘들다	62.5	74.5	70.3	73.8	12.009 **
8)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78.1	75.7	81.2	77.9	2.262
9)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42.8	43.8	54.4	49.3	8.836 *
10)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64.3	59.9	64.4	61.4	1.663
(수)	(186)	(350)	(136)	(40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5. 청년층 결혼지원 대책에 관한 의견

이 항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주거 대책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미혼 청년들은 전반적으로는 일자리 대책보다는 주거 대책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주거 대책 중에서도 대학생 등 청년층 일반을 대상으로 한 간접 지원보다는 신혼부부 대상의 안정적인 주거 대책 즉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II-5-1] 청년 대상 결혼 및 출산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평균 점수)

가.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중 결혼 시기를 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사업으로는 정규직 고용, 창업프로그램 지원,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 순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유망 산업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해외 취업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68.8%로 조사되었다(표 III-5-1 참조).

〈표 III-5-1〉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도움 전혀 안됨		
전체	20.2	48.6	25.9	5.3	2.84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0.9	51.2	23.8	4.1	2.89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25.1	48.9	22.1	3.9	2.95	100.0(307)
비혼	13.5	43.4	33.9	9.1	2.61	100.0(274)
χ^2/F		31.463 ***			15.151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2.7	49.7	15.7	1.9	3.13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22.6	49.9	22.8	4.8	2.90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3.1	48.5	32.7	5.7	2.69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15.4	36.9	32.3	15.4	2.52	100.0(65)
χ^2/F		58.266 ***			16.382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5-2〉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도움 전혀 안됨		
전체	20.2	48.6	25.9	5.3	2.84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3.2	48.2	24.6	3.9	2.91	100.0(280)
남성 30~39세	23.4	48.0	22.3	6.3	2.89	100.0(256)
여성 20~29세	20.7	47.5	25.7	6.2	2.83	100.0(276)
여성 30~39세	13.4	50.6	31.0	5.0	2.72	100.0(261)
χ^2/F		14.864			2.776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해당 비율은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우에서 각각 74.0%와 82.4%로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져, 20대는 평균 2.91점, 30대는 평균 2.89점

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I-5-2 참조). 이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이유로서 주택자금 마련이 영향을 미치고, 결혼 시에 대체로 남성들 주택 구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과 비임금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 각각 평균 3.09점과 2.92점을 나타냈다(표 III-5-3 참조).

〈표 III-5-3〉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의 도움 정도(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20.2	48.6	25.9	5.3	2.84	100.0(1,073)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20.4	48.3	26.5	4.8	2.84	100.0(671)
학생(휴학포함)	21.8	50.8	21.8	5.6	2.89	100.0(179)
구직, 기타	18.4	47.5	27.4	6.7	2.78	100.0(223)
χ^2/F		3.542			1.030	
종사상 지위						
정규직	16.8	50.3	27.7	5.1	2.79	100.0(505)
비정규직, 일용직	33.7	43.5	20.7	2.2	3.09	100.0(92)
비임금근로	28.4	40.5	25.7	5.4	2.92	100.0(74)
χ^2/F		18.208 **			5.915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의 창출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58.6%에 그쳤다(표 III-5-4 참조). 그러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는 각각 평균 2.74점과 2.79점으로 비혼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서 평균 3.03점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30대에 비해 20대, 학생과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비임금근로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나타냈다(표 III-5-5, III-5-6 참조). 이들은 공통적으로 구직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 있어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5-4〉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5.9	42.7	35.6	5.8	2.69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16.9	45.7	32.1	5.3	2.74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18.2	45.0	34.2	2.6	2.79	100.0(307)
비혼	11.7	34.7	43.4	10.2	2.48	100.0(274)
χ^2/F		31.444 ***			13.053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1.4	42.1	24.5	1.9	3.03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14.3	47.7	33.4	4.6	2.72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2.9	38.9	41.0	7.2	2.57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7.7	30.8	46.2	15.4	2.31	100.0(65)
χ^2/F		64.417 ***			18.034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5-5〉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5.9	42.7	35.6	5.8	2.69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0.7	42.1	31.4	5.7	2.78	100.0(280)
남성 30~39세	15.2	41.4	37.5	5.9	2.66	100.0(256)
여성 20~29세	16.3	44.6	32.2	6.9	2.70	100.0(276)
여성 30~39세	11.1	42.5	41.8	4.6	2.60	100.0(261)
χ^2/F		14.777			2.322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표 III-5-6〉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도움 정도(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5.9	42.7	35.6	5.8	2.69	100.0(1,073)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14.3	44.1	36.2	5.4	2.67	100.0(671)
학생(휴학포함)	22.3	44.1	27.4	6.1	2.83	100.0(179)
구직, 기타	15.7	37.2	40.4	6.7	2.62	100.0(223)
χ^2/F		13.189 *			3.600 *	
종사상 지위						
정규직	12.3	45.9	36.6	5.1	2.65	100.0(505)
비정규직, 일용직	18.5	44.6	29.3	7.6	2.74	100.0(92)
비임금근로	23.0	31.1	41.9	4.1	2.73	100.0(74)
χ^2/F		12.718 *			0.677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의 제공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고 응답한 비율은 48.4%로 청년 대상 주거대책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III-5-7 참조). 그러나 비혼자들에 비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각각 평균 2.58점과 2.55점, 2.90점으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일자리 제공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성별이나 연령별, 그리고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20대와 비정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에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III-5-8, III-5-9 참조).

〈표 III-5-7〉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도움 전혀 안됨		
전체	12.6	35.8	43.2	8.4	2.53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13.6	37.4	42.7	6.3	2.58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12.4	38.1	41.4	8.1	2.55	100.0(307)
비혼	10.9	30.3	46.4	12.4	2.40	100.0(274)
χ^2/F		12.898 *			4.707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28.3	35.8	33.3	2.5	2.90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9.5	40.6	41.6	8.2	2.51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0.3	30.7	49.7	9.3	2.42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9.2	32.3	40.0	18.5	2.32	100.0(65)
χ^2/F		65.390 ***			15.147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5-8〉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도움 전혀 안됨		
전체	12.6	35.8	43.2	8.4	2.53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15.0	37.5	38.2	9.3	2.58	100.0(280)
남성 30~39세	11.7	33.2	46.5	8.6	2.48	100.0(256)
여성 20~29세	15.2	35.5	39.9	9.4	2.57	100.0(276)
여성 30~39세	8.0	36.8	49.0	6.1	2.47	100.0(261)
χ^2/F		15.271			1.362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표 III-5-9〉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2.6	35.8	43.2	8.4	2.53	100.0(1,073)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12.8	34.9	45.5	6.9	2.54	100.0(671)
학생(휴학포함)	14.0	45.3	34.1	6.7	2.66	100.0(179)
구직, 기타	10.8	30.9	43.9	14.3	2.38	100.0(223)
χ^2/F		23.184 ***			6.185 **	
종사상 지위						
정규직	11.3	35.4	45.5	7.7	2.50	100.0(505)
비정규직, 일용직	14.1	37.0	44.6	4.3	2.61	100.0(92)
비임금근로	21.6	28.4	45.9	4.1	2.68	100.0(74)
χ^2/F		8.845			1.934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청년 대상 창업프로그램의 도입 및 지원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60.0%로 나타났다(표 III-5-10 참조). 해당 비율은 비혼자들에 비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나, 평균 각각 2.78점, 2.71점, 3.01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0대에 비해 20대의 도움 정도 인식이 높고, 성별에 따라서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미혼자들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경제적 자립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표 III-5-11 참조). 취업상태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유사한 수준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데(표 III-5-12 참조), 이는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과 관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5-10〉 청년 대상 창업프로그램 도입·지원(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6.0	44.0	33.8	6.2	2.70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18.1	45.9	32.1	3.9	2.78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16.9	44.0	32.2	6.8	2.71	100.0(307)
비혼	11.3	40.5	38.7	9.5	2.54	100.0(274)
χ^2/F	18.397 **				8.288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2.7	37.7	27.7	1.9	3.01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14.1	49.5	30.6	5.9	2.72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2.9	41.2	39.2	6.7	2.60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7.7	36.9	40.0	15.4	2.37	100.0(65)
χ^2/F	61.004 ***				13.950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II-5-11〉 청년 대상 창업프로그램 도입·지원(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6.0	44.0	33.8	6.2	2.70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19.6	44.3	29.6	6.4	2.77	100.0(280)
남성 30~39세	16.4	43.0	32.8	7.8	2.68	100.0(256)
여성 20~29세	17.8	44.6	30.4	7.2	2.73	100.0(276)
여성 30~39세	10.0	44.1	42.9	3.1	2.61	100.0(261)
χ^2/F	23.493 **				1.994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표 III-5-12〉 청년 대상 창업프로그램 도입·지원(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6.0	44.0	33.8	6.2	2.70	100.0(1,073)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15.9	43.1	35.6	5.4	2.70	100.0(671)
학생(휴학포함)	17.3	54.2	20.7	7.8	2.81	100.0(179)
구직, 기타	15.2	38.6	39.0	7.2	2.62	100.0(223)
χ^2/F		19.562 **			2.795	
종사상 지위						
정규직	14.3	46.7	33.9	5.1	2.70	100.0(505)
비정규직, 일용직	18.5	31.5	42.4	7.6	2.61	100.0(92)
비임금근로	24.3	32.4	39.2	4.1	2.77	100.0(74)
χ^2/F		13.928 *			0.878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확충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58.2%로 조사되었다(표 III-5-13 참조).

해당 비율은 앞서 다룬 창업프로그램 지원과 유사하게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에서 공히 평균 2.75점,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평균 3.04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취업상태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특히 남성 20대 18.9%, 학생 19.0%, 비임금근로자 2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진로 고민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한다(표 III-5-14, III-5-15 참조).

〈표 III-5-13〉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충(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도움 전혀 안됨		
전체	15.8	42.4	35.9	5.9	2.68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18.1	43.1	35.0	3.9	2.75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17.6	45.3	31.9	5.2	2.75	100.0(307)
비혼	9.9	38.0	42.0	10.2	2.47	100.0(274)
χ^2/F		27.014 ***			12.445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4.0	37.7	26.4	1.9	3.04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14.5	47.3	33.0	5.2	2.71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1.1	40.2	42.3	6.4	2.56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9.2	32.3	41.5	16.9	2.34	100.0(65)
χ^2/F		74.640 ***			18.249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5-14〉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충(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도움 전혀 안됨		
전체	15.8	42.4	35.9	5.9	2.68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18.9	43.9	30.0	7.1	2.75	100.0(280)
남성 30~39세	16.0	44.5	32.8	6.6	2.70	100.0(256)
여성 20~29세	18.1	40.6	35.1	6.2	2.71	100.0(276)
여성 30~39세	10.0	40.6	46.0	3.4	2.57	100.0(261)
χ^2/F		23.631 **			2.376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표 III-5-15〉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충(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5.8	42.4	35.9	5.9	2.68	100.0(1,073)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15.8	41.9	37.6	4.8	2.69	100.0(671)
학생(휴학포함)	19.0	47.5	26.3	7.3	2.78	100.0(179)
구직, 기타	13.5	39.9	38.6	8.1	2.59	100.0(223)
χ^2/F		12.799 *			2.930	
종사상 지위						
정규직	13.9	45.5	36.0	4.6	2.69	100.0(505)
비정규직, 일용직	17.4	31.5	46.7	4.3	2.62	100.0(92)
비임금근로	27.0	29.7	36.5	6.8	2.77	100.0(74)
χ^2/F		16.932 **			0.742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나. 청년 주거 대책

청년 주거 대책은 앞서 주거 대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결혼 시기를 당기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는 가운데, 세부 사업별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 공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과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 공급의 증대가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54.9%로 조사되었다(표 III-5-16 참조). 해당 비율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에서 비혼자들에 비해서는 약간 더 높고, 특히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는 71.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사업에서도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에게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점은 결혼을 통한 자녀 출산에 주택 마련이 필수적인 요건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20대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율이 남성의 경우 21.1%, 여성의 경우 22.5%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5-17 참조).

〈표 III-5-16〉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증가(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8.3	36.6	37.0	8.1	2.65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19.7	38.4	36.2	5.7	2.72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20.8	39.1	31.3	8.8	2.72	100.0(307)
비혼	12.8	30.7	44.9	11.7	2.45	100.0(274)
χ^2/F		25.270 ***			10.440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2.7	39.0	22.6	5.7	2.99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17.8	39.5	36.0	6.7	2.68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3.9	34.8	43.0	8.2	2.54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12.3	21.5	43.1	23.1	2.23	100.0(65)
χ^2/F		62.841 ***			15.811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5-17〉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증가(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8.3	36.6	37.0	8.1	2.65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1.1	37.5	33.2	8.2	2.71	100.0(280)
남성 30~39세	19.5	39.1	32.0	9.4	2.69	100.0(256)
여성 20~29세	22.5	33.7	36.2	7.6	2.71	100.0(276)
여성 30~39세	9.6	36.4	46.7	7.3	2.48	100.0(261)
χ^2/F		26.351 **			4.371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한도의 상향 조정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66.4%로 조사되었다(표 III-5-18 참조). 해당 비율은 특히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

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에서 각각 73.0%와 76.7%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도움 정도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는 평균 2.97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III-5-19 참조).

〈표 III-5-18〉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23.5	42.9	27.5	6.2	2.84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4.2	44.3	25.8	5.7	2.87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30.0	43.0	22.1	4.9	2.98	100.0(307)
비혼	15.0	40.1	36.5	8.4	2.62	100.0(274)
	χ^2/F 29.762 ***				14.133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4.6	42.1	19.5	3.8	3.08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24.7	44.5	25.4	5.4	2.89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9.1	42.8	31.7	6.4	2.74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13.8	33.8	36.9	15.4	2.46	100.0(65)
	χ^2/F 35.943 ***				10.581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80.2%로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다(표 III-5-20 참조). 해당 비율은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에서 각각 85.7%와 84.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사업의 도움 정도는 성별 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여(표 III-5-21 참조), 20~30대의 결혼 시기를 결정하는 데 주거 마련 문제가 주된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표 III-5-19〉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23.5	42.9	27.5	6.2	2.84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1.8	38.6	30.7	8.9	2.73	100.0(280)
남성 30~39세	21.9	43.0	29.7	5.5	2.81	100.0(256)
여성 20~29세	28.3	43.5	22.1	6.2	2.94	100.0(276)
여성 30~39세	21.8	46.7	27.6	3.8	2.87	100.0(261)
χ^2/F	16.166				2.887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5-20〉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증가(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31.5	48.7	15.8	3.9	3.08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30.9	50.4	15.9	2.8	3.09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40.4	45.3	11.7	2.6	3.23	100.0(307)
비혼	22.6	49.6	20.4	7.3	2.88	100.0(274)
χ^2/F	33.423 ***				15.484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44.0	40.9	12.6	2.5	3.26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32.3	51.4	13.9	2.4	3.14	100.0(461)
없어도 괜찮다	27.8	50.8	17.0	4.4	3.02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16.9	36.9	30.8	15.4	2.55	100.0(65)
χ^2/F	56.208 ***				14.532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5-2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증가(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31.5	48.7	15.8	3.9	3.08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31.8	45.0	17.9	5.4	3.03	100.0(280)
남성 30~39세	29.7	48.4	18.4	3.5	3.04	100.0(256)
여성 20~29세	36.6	47.1	13.0	3.3	3.17	100.0(276)
여성 30~39세	27.6	54.8	14.2	3.4	3.07	100.0(261)
χ^2/F		12.339			1.764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80.7%로 앞서 다룬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5-22 참조). 해당 비율은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에서 각각 85.4%와 88.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원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20대 여성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5-23 참조).

〈표 III-5-22〉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증가(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33.1	47.6	15.8	3.4	3.10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32.1	51.2	13.6	3.0	3.12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42.7	42.7	11.7	2.9	3.25	100.0(307)
비혼	24.1	46.7	24.5	4.7	2.90	100.0(274)
χ^2/F		37.777 ***			15.010 ***	

(표 III-5-22 계속)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자녀 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46.5	41.5	9.4	2.5	3.32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33.2	51.6	12.8	2.4	3.16	100.0(461)
없어도 괜찮다	29.9	47.7	18.6	3.9	3.04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18.5	33.8	36.9	10.8	2.60	100.0(65)
χ^2/F	58.549 ***				15.178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5-23〉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증가(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33.1	47.6	15.8	3.4	3.10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35.0	43.6	16.1	5.4	3.08	100.0(280)
남성 30~39세	28.9	48.4	19.1	3.5	3.03	100.0(256)
여성 20~29세	37.3	48.6	10.9	3.3	3.20	100.0(276)
여성 30~39세	30.7	50.2	17.6	1.5	3.10	100.0(261)
χ^2/F	17.402 *				2.249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신혼부부 나이가 어릴수록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57.7%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표 III-5-24 참조). 그러나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해당 비율은 78.6%로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남성들의 경우에도 20대는 평균 2.88점, 30대는 평균 2.70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I-5-25 참조).

〈표 III-5-24〉 연령에 따른 신혼부부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 부여(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9.9	37.8	33.1	9.2	2.68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0.9	40.9	31.1	7.1	2.76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23.1	40.7	28.0	8.1	2.79	100.0(307)
비혼	14.2	29.2	42.3	14.2	2.43	100.0(274)
χ^2/F	33.846 ***				14.752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7.7	40.9	17.0	4.4	3.12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18.4	44.3	30.6	6.7	2.74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5.5	31.7	40.7	12.1	2.51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12.3	21.5	44.6	21.5	2.25	100.0(65)
χ^2/F	89.642 ***				25.263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5-25〉 연령에 따른 신혼부부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 부여(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9.9	37.8	33.1	9.2	2.68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8.6	38.2	25.7	7.5	2.88	100.0(280)
남성 30~39세	18.0	43.0	29.7	9.4	2.70	100.0(256)
여성 20~29세	19.9	37.7	31.2	11.2	2.66	100.0(276)
여성 30~39세	12.3	32.6	46.4	8.8	2.48	100.0(261)
χ^2/F	44.334 ***				9.100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주거 문제로 인한 출산 지연 및 포기 현상은 40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강조되어, 청년층 대상의 주거지원은 결혼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애기 자체를 낳을 생각 자체를 안하잖아요. 자기 주거문제나 직장도 그렇지만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쨌거나 저는 설 곳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같은 싱글도 싱글이지만 신혼부부들한테 집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40대 여성A)

한편 40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와 주거문제보다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의 심화가 청년층들의 결혼 연기 및 포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므로 서구나 일본 사회와 같이 저출산 대응의 방향을 사회보장 전반에서 접근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테면 40대 남성C는 자신의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하에서 자녀를 낳아 기를 자신도 없고,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도 아니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이는 소득보장 등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되는 사회보장 전반의 강화와 그리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저출산 대책의 주요 과제로 포괄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젊은이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나라, 이 사회의 비전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지만 계속 내 안정성도 보장할 자신도 없고 내가 그런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부인을, 책임지고 내 아이를 책임질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저출산, 결혼을 늦추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40대 남성C)

(저출산 대응이) 딱히 경제적인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냐고 봤을 때 아니다 라는 답을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깊게 박혀서 그런 게(결혼 및 출산 기피 의식) 나오는 거니까(40대 남성C).

6. 소결

이 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중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74.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 의향이 있는 비중이 많았으며, 학력 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 의향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결혼 의향의 강고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강한 편으로, 남성 비혼자의 경우 여성 비혼자에 비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둘째, 결혼 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결혼 연기자들에 대해 미혼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26.4%)'였으며, 다음으로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21.7%)',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14.1%)' 순이었다. 인적 특성별로 결혼 연기 사유는 20대 남녀 모두 아직 결혼하기 이르다고 응답이 많은 반면, 30대 남성은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20.4%)'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47.6%)'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결혼 연기 사유는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가 복합적으로 응답된 경우가 다수였다.

셋째,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비혼자)의 미혼 사유를 살펴보면,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이 항목에 응답 비중이 낮았으며, 남성중에서도 30대보다는 20대에서 낮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 의향과 결혼 연기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발적 결혼 연기자와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혼자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자발적 결혼 연기자는 45.9%,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28.6%, 비혼자 25.5%였다. 인적특성별로는 30대 남성의 경우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48.4%로 매우 높은 반면, 여성은 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20대 56.2%, 30대 45.2%로 대조를 보였다. 즉,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의 등의 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결혼 의향 변화에 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결혼 의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결혼 의향이 없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고,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결혼 의향이 있는 비중이 약간 높았다. 한편 과거에는 결혼 의사가 없었으나 지금은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은 20.7%였으며, 반대로 과거에는 결혼 의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26.0%로, 결혼 의향은 항구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가변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섯째, 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자들에게 결혼의 조건을 질문하자,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3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할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33.0%)',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15.3%)'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현재 취업자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39.3%)'에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아, 취업 이후 결혼 이행가

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일곱째, 결혼 연기자들의 동질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소득과 사회적 지위, 학력이 높은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어리고, 소득과 사회적 지위, 학력이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여성에 비해 높았다. 한편, 연령, 소득, 사회적 지위, 학력 중에서는 소득에 대해 배우자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응답 비중이 확연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결혼으로 인한 신분 상승의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제력을 중요한 결혼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미혼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관련 문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가족 내 성역할 분담, 결혼 시기 등을 포함한 결혼 관련 가치관과 비혼 및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결혼의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 분위별로, 취업상태별로 대부분의 가치관에서 거의 유의미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들은 현재의 취업상태 및 소득상태 등의 경제적인 지위보다는 성별 및 결혼의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등의 문항에 남성보다 낮은 동의 정도를 보여 결혼과 동거, 결혼과 출산을 강하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의식이 강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결혼하고 싶다'라던지,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관계에 우선해야 한다' 등에서도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동의정도를 보이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높게 나타내어 결혼 자체에 대한 미온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의향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결혼 후 여성에게 결혼 후 가족 내 성역할 분담 및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결혼의향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자발적 결혼연기자, 비자발적 결혼연기자, 결혼할 생각이 없는 비혼자로 나누어 결혼관련 가치관, 비혼 및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자발적 결혼연기자와 비자발적 결혼연기자 사이에는 큰 견해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결혼연

기자와 비혼자 사이에는 결혼 후 가정 내 성역할 분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치관에 대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비혼자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정서적 안정, 합법적 성생활,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부모로부터의 독립,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단 등 결혼이 가지는 의미와 관한 모든 문항에 대해서 결혼연기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냈다. 이는 비혼자의 경우 결혼의 의미 및 필요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단지 세대의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인지, 가치관이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인 이유는 없을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결혼의 의미, 결혼문화, 가족 내 성역할분담, 결혼시기,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 비혼에 대한 태도, 1인 가구에 대한 태도 중 '가족 내 성역할분담'만이 유일하게 응답자 특성(결혼 의향 혹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일관된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내 성역할 분담'에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한다'는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87.1%)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에 낮은 의견(39.9%)을 보였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는 결혼 후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청년층 대상 결혼지원이 실제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행 주거대책에는 주목할 만하나, 일자리 대책의 경우는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각 세부사업과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결혼 시기를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나, 현행 일자리 대책보다는 결혼 비용과 직결되는 주거대책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지원 측면에서는 신혼부부 주거대책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 일자리 대책에서는 해외 취업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업보다는 청년의 안정된 고용과 창업 등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청년층 거주지원에서는 결혼비용 부담 완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은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고, 세부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주거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IV. 청년 미혼자의 가족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이 장에서는 청년 미혼자의 출산에 대한 의향 및 이들이 생각하는 출산의 조건과 가족관 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청년 미혼자들은 저출산 대책 및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지 등을 고찰해보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출산 의향 및 조건

가. 출산의향

성 및 미혼상태별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의 <표 IV-1-1>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75.0%, 출산 의향이 없는 집단이 25.0%로 나타났다. 성 및 미혼상태에 따라 출산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는 89.5%, 남성 자발적 결혼연기자는 88.1%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비중을 나타낸 반면, 남성 비혼자는 출산 의향이 있는 비중이 45.8%로 절반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비자발적 결혼연기자 90.7%, 자발적 결혼연기자 84.6%로 나타나 출산 의향이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 비혼자는 33.5%로 남성 비혼자 보다도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즉, 결혼 연기자와 비혼자 사이에는 출산 의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혼자의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출산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서는 출산의향이 있는 비중이 20~29세 75.5%, 30~39세 74.5%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출산의향은 대학원 이상 81.0%, 전문대 재학 및 졸업 75.8%,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75.2%, 고졸이하 68.9%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IV-1-2 참조).

〈표 IV-1-1〉 성 및 미혼상태별 출산 의향

단위: %(명)				
구분	낳을 생각 없음	낳을 생각 있음	χ^2	계(수)
전체	25.0 (268)	75.0 (805)		100.0(1,073)
성 및 미혼상태별				
남성 자발적 결혼연기	11.9 (26)	88.1 (193)		100.0(219)
남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10.5 (22)	89.5 (188)		100.0(210)
남성 비혼	54.2 (58)	45.8 (49)	272.000 ***	100.0(107)
여성 자발적 결혼연기	15.4 (42)	84.6 (231)		100.0(273)
여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9.3 (9)	90.7 (88)		100.0(97)
여성 비혼	66.5 (111)	33.5 (56)		100.0(167)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1-2〉 인적 특성별 출산 의향

단위: %(명)				
구분	낳을 생각 없음	낳을 생각 있음	χ^2	계(수)
전체	25.0 (268)	75.0 (805)		100.0(1,073)
연령				
20~29세	24.5 (136)	75.5 (420)	0.164	100.0(556)
30~39세	25.5 (132)	74.5 (385)		100.0(517)
최종 학력				
고졸이하	31.1 (41)	68.9 (91)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24.2 (52)	75.8 (163)	4.270	100.0(215)
4년제대학 재학 및 졸업	24.8 (159)	75.2 (483)		100.0(642)
대학원 이상	19.0 (16)	81.0 (68)		100.0(84)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지역 및 취업상태별 출산 의향은 <표 IV-1-3>에 제시하였다. 거주지역에 따라 중소도시 75.6%, 대도시 74.9%, 농어촌 74.2%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휴직포함)이 78.7%, 학생(휴학포함) 74.9%, 구직 중 및 기타 6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별 출산 의향을 살펴보면 <표 IV-1-4>와 같다. 출산 의향이 있는 집단의 월평균소득이 평균 219.9만원이고, 출산 의향이 없는 집단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159.3만원으로 나타나 출산 의향이 있는 집단이 월평균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400만원이상 집단의 출산 의향이 81.4%로 가장 높았고, 200~299만원 집단이 79.9%, 300~399만원 집단이 79.3%, 100~199만원 집단이 72.7%, 100만원 미

만 집단이 67.6%로 나타나 대체로 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 의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IV-1-3〉 지역 및 취업상태별 출산 의향

단위: %(명)				
구분	낳을 생각 없음	낳을 생각 있음	χ^2	계(수)
전체	25.0 (268)	75.0 (805)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25.1 (105)	74.9 (313)	0.153	100.0(418)
중소도시	24.4 (105)	75.6 (325)		100.0(430)
농어촌	25.8 (58)	74.2 (167)		100.0(225)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21.3 (143)	78.7 (528)	18.946 ***	100.0(671)
학생(휴학포함)	25.1 (45)	74.9 (134)		100.0(179)
구직, 기타	35.9 (80)	64.1 (143)		100.0(223)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1-4〉 소득별 출산 의향

단위: 만원, %(명)				
구분	낳을 생각 없음	낳을 생각 있음	χ^2	계(수)
월평균소득(평균)	159.3 (223)	219.9 (671)		204.8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32.4 (59)	67.6 (123)	11.749 *	100.0(182)
100~199만원	27.3 (80)	72.7 (213)		100.0(293)
200~299만원	20.1 (55)	79.9 (218)		100.0(273)
300~399만원	20.7 (18)	79.3 (69)		100.0(87)
400만원 이상	18.6 (11)	81.4 (48)		100.0(59)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희망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2명이 59.6%로 가장 많았고, 3명이상 20.5%, 1명 19.9%로 나타났으며, 평균 2.1명의 자녀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성 및 미혼상태 별로 살펴보면 집단에 관계없이 모두 2명을 원하는 비중이 가장 컸고, 집단별 평균 자녀수도 2.0~2.1명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의사와 상관 없이 1명 보다는 3명 이상을 원하는 비중이 컸고, 여성은 3명이상 보다는 1명을 원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IV-1-5〉 성 및 미혼상태별 희망 자녀수

단위: %(명)

구분	희망 자녀 수			평균 자녀수	계(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9.9	59.6	20.5	2.1	100.0(805)
성 및 미혼상태별					
남성 자발적 결혼연기	15.0	60.1	24.9	2.1	100.0(193)
남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20.7	56.9	22.3	2.1	100.0(188)
남성 비혼	14.3	67.3	18.4	2.1	100.0(49)
여성 자발적 결혼연기	22.5	61.5	16.0	2.0	100.0(231)
여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22.7	58.0	19.3	2.0	100.0(88)
여성 비혼	23.2	55.4	21.4	2.1	100.0(56)
χ^2 / F	10.246			1.599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표 IV-1-6〉 연령 및 학력별 희망 자녀수

단위: %(명)

구분	희망 자녀 수			평균 자녀수	계(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9.9	59.6	20.5	2.1	100.0(805)
연령					
20~29세	14.8	59.5	25.7	2.2	100.0(420)
30~39세	25.5	59.7	14.8	2.0	100.0(385)
χ^2 / t	23.219 ***			10.704 **	
최종 학력					
고졸이하	12.1	60.4	27.5	2.3	100.0(91)
전문대 재학 및 졸업	20.2	53.4	26.4	2.1	100.0(163)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19.9	61.3	18.8	2.0	100.0(483)
대학원 이상	29.4	61.8	8.8	1.8	100.0(68)
χ^2 / F	17.333 **			4.732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연령 및 학력별 희망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IV-1-6>과 같다. 20~29세는 2명을 59.5%가 원했고, 3명 이상은 25.7%, 1명은 14.8%로 나타났고 30~39세는 2명 59.7%, 1명 25.5%, 3명 이상 14.8%로 나타나, 20대는 2명 다음으로 3명 이상은 원하는 비중이 큰 반면, 30대는 3명 이상보다 1명을 원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이상은 2명 61.8%, 1명 29.4%, 3명 이상은 8.8%로 나머지 집단들과 달리 3명 이상을 원하는 비중이 특히 작고 1명

의 비중이 29.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3명이상을 원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고졸이하(27.5%)였고, 전문대 재학 및 졸업자는 2명을 원하는 비율이 53.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역 및 취업상태별 희망 자녀수는 다음의 <표 IV-1-7>과 같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2명을 원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1명, 3명이상 순으로 나타난 반면, 농어촌의 경우 2명 51.5%, 3명이상 34.7%, 1명 13.8%로 나타나 3명이상을 원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도 농어촌은 2.4명으로 2.0명인 대도시, 중소도시와는 차이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휴직포함) 2명>1명>3명이상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휴학포함)과 구직 및 기타는 2명>3명이상>1명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지역 및 취업상태별 희망 자녀수

단위: %(명)

구분	희망 자녀 수			평균 자녀수	계(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9.9	59.6	20.5	2.1	100.0(805)
거주지역					
대도시	22.7	62.6	14.7	2.0	100.0(313)
중소도시	20.3	60.9	18.8	2.0	100.0(325)
농어촌	13.8	51.5	34.7	2.4	100.0(167)
χ^2 / F	28.933 ***			13.956 ***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22.3	58.5	19.1	2.0	100.0(528)
학생(휴학포함)	11.9	60.4	27.6	2.2	100.0(134)
구직, 기타	18.2	62.9	18.9	2.1	100.0(143)
χ^2 / F	10.436 *			3.335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일자리 특성별 희망 자녀수를 살펴보면 <표 IV-1-8>과 같다. 직종의 경우, 전문가 및 관리자, 사무종사자 그리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는 2명>1명>3명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나 농림어업종사자 등은 2명이 절반에 못 미치는 46.8%, 3명이상 39.2%, 1명 13.9%로 나타나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2명의 비중이 작고 3명 이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도 농림어업종사자 등은 2.4명, 나머지는 2.0명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1-8〉 직종별 희망 자녀수

구분	희망 자녀 수			평균 자녀수	단위: %(명) 계(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9.9	59.6	20.5	2.1	100.0(805)
직종					
전문가 및 관리자	23.5	59.7	16.8	2.0	100.0(119)
사무종사자	23.3	62.4	14.3	2.0	100.0(266)
서비스, 판매종사자	26.6	54.7	18.8	2.0	100.0(64)
농림어업종사자등	13.9	46.8	39.2	2.4	100.0(79)
χ^2 / F	26.224 ***			5.647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1-9〉 소득 수준별 희망 자녀수

구분	희망 자녀 수			평균 자녀수	단위: %(명) 계(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9.9	59.6	20.5	2.1	100.0(805)
월평균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17.1	59.3	23.6	2.2	100.0(123)
100~199만원	19.2	62.4	18.3	2.0	100.0(213)
200~299만원	25.2	58.3	16.5	2.0	100.0(218)
300~399만원	21.7	62.3	15.9	2.0	100.0(69)
400만원 이상	25.0	47.9	27.1	2.2	100.0(48)
χ^2 / F	8.947			1.887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소득 수준별 희망 자녀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V-1-9>와 같다. 1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은 2명>3명이상>1명 순으로 나타났고,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은 2명>1명>3명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만 2명을 원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47.9%로 나타났으나, 소득 수준에 따른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평균 자녀수도 1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은 2.2명 100~399만원은 2.0명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1인 가구여부별 희망 자녀수는 혼자 사는 경우, 2명 54.0%, 1명 25.2%, 3명이상 20.9%순으로 나타났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2명 61.3%, 1명 혹은 3명이상을 원하는 비중은 19.3%로 동일했다. 형제자매, 친인척 및 기타의 경우 2명 57.1%, 3명이상 35.7%, 1명 7.1%로 나타나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3명 이상을 원

하는 비중이 컸다. 평균자녀수는 형제자매, 친인척 및 기타는 2.4명,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2.1명, 혼자 사는 경우 2.0명으로 나타났다(표 IV-1-10 참조).

〈표 IV-1-10〉 1인 가구여부별 희망 자녀수

단위: %(명)

구분	희망 자녀 수			평균 자녀수	계(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9.9	59.6	20.5	2.1	100.0(805)
1인가구여부별					
혼자	25.2	54.0	20.9	2.0	100.0(163)
(조)부모와 함께	19.3	61.3	19.3	2.1	100.0(600)
형제자매, 친인척, 기타	7.1	57.1	35.7	2.4	100.0(42)
χ^2 / F	12.157 *			4.366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성 및 미혼 상태별, 성 및 연령별 그리고 학력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IV-1-11>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된 집단 전체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가 37.3%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28.7%,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14.9%, ‘현재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7.8%, ‘부부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서’ 5.2%, 기타 3.7%,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 같아서’ 2.2% 순으로 나타났다.

성 및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가장 많았고,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뒤를 이어, 남성과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 차이를 보였다.

성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남성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39.0%,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23.7%, ‘현재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15.3% 순으로 나타났고, 30대 남성은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31.9%,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29.8%,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19.1%로 나타났다.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순으로 응답했다.

〈표 IV-1-11〉 인적 특성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부부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서	현재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5.2	7.8	28.7	37.3	2.2	14.9	3.7	100.0(268)
성 및 미혼 상태별								
남성 자발적 결혼연기	11.5	15.4	26.9	26.9	0.0	19.2	0.0	100.0(26)
남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4.5	9.1	45.5	27.3	4.5	9.1	0.0	100.0(22)
남성 비혼	6.9	8.6	34.5	27.6	3.4	15.5	3.4	100.0(58)
여성 자발적 결혼연기	7.1	7.1	23.8	40.5	0.0	19.0	2.4	100.0(42)
여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22.2	0.0	33.3	44.4	0.0	0.0	0.0	100.0(9)
여성 비혼	0.9	6.3	24.3	45.0	2.7	14.4	6.3	100.0(111)
χ^2	33.172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6.8	15.3	39.0	23.7	1.7	11.9	1.7	100.0(59)
남성 30~39세	8.5	4.3	29.8	31.9	4.3	19.1	2.1	100.0(47)
여성 20~29세	5.2	5.2	23.4	45.5	0.0	15.6	5.2	100.0(77)
여성 30~39세	2.4	7.1	25.9	42.4	3.5	14.1	4.7	100.0(85)
χ^2	22.584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표 IV-1-12〉 월평균 소득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부부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서	현재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5.2	7.8	28.7	37.3	2.2	14.9	3.7	100.0(268)
월평균소득(만원)								
100만원 미만	3.4	1.7	32.2	49.2	5.1	6.8	1.7	100.0(59)
100~199만원	7.5	8.8	23.8	38.8	3.8	11.3	6.3	100.0(80)
200~299만원	7.3	10.9	34.5	36.4	0.0	9.1	1.8	100.0(55)
300~399만원	5.6	0.0	27.8	11.1	0.0	55.6	0.0	100.0(18)
400만원 이상	9.1	36.4	18.2	18.2	0.0	18.2	0.0	100.0(11)
χ^2	60.602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12>와 같다. 300만원 미만의 집단들에서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뒤를 이은 반면, 300~399만원 집단은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가 55.6%로 절반 이상이 뽑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34.5%로 나타났다. 그리고 400만원 이상의 집단은 36.4%가 '현재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를 가장 많이 뽑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가 모두 18.2%로 나타나 다른 소득 집단들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해당 문항에 응답한 관측치가 적으므로, 과도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나. 출산 및 양육 조건

1,073명을 조사하여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아본 결과 <표 IV-1-13>과 같다. 1순위응답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 되면'이 64.9%로 가장 많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개선된다면'을 10.0%,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를 분담할 수 있으면'이 9.1% 순이었다. 2순위 응답에서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개선된다면'이 24.4%,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를 분담할 수 있으면'이 23.1%, '경제적으로 안정 되면'이 12.9% 순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해서 뽑은 조건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이 77.7%로 가장 많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개선된다면'이 34.4%,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를 분담할 수 있으면'이 32.2%로 출산 및 양육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뽑았다.

성 및 미혼상태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14>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안정' 가장 많았고, '일 가정 양립기업 문화개선'이 2번째로 나타난 것으로 동일했지만 자발적 결혼연기자와 비혼자는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을 3번째로 뽑은 반면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는 '조건과 무관하게 출산'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이었지만, 여성 비혼자의 경우에 이 비중이 낮았다. 자발적 결혼연기자와 비혼자는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 분담'을 두 번째, '일 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을 세 번째로 뽑은 반면,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는 '일 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을 두 번째,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 분담'을 세 번째로 뽑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1-13〉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1+2순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조건			
경제적으로 안정 되면	64.9	12.9	77.7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를 분담할 수 있으면	9.1	23.1	32.2
사교육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2.7	9.9	12.6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늘어난다면	3.0	12.4	15.4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개선된다면	10.0	24.4	34.4
영유아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 지원이 늘어난다면	1.9	9.8	11.6
결혼하게 되면 조건과 상관없이 아이는 낳을 것임	7.5	7.0	14.5
기타	0.9	0.6	1.5
계(수)	100.0(1,073)	100.0(1,073)	200.0(2,146)

주: 1+2순위는 복수응답을 합산한 것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표 IV-1-14〉 성 및 미혼상태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1+2순위)

구분	단위: %(명)								
	경제적 안정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	사교육비가 줄어들면	안전한 보육 시설 증가	일가정 양립 기업 문화 개선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 증가	조건과 무관하게 출산	기타	계(수)
전체	77.7	32.2	12.6	15.4	34.4	11.6	14.5	1.5	100.0(1,073)
성 및 미혼 상태별									
남성 자발적 결혼연기	78.1	26.5	17.4	20.1	28.8	8.2	19.2	1.8	100.0(219)
남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79.0	22.4	15.2	14.8	29.5	14.8	24.3	0.0	100.0(210)
남성 비혼	90.7	23.4	16.8	13.1	31.8	16.8	6.5	0.9	100.0(107)
여성 자발적 결혼연기	75.5	44.0	5.9	12.8	38.8	11.0	11.7	0.4	100.0(273)
여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80.4	24.7	5.2	16.5	43.3	15.5	14.4	0.0	100.0(97)
여성 비혼	69.5	43.1	15.6	15.0	37.1	7.8	6.0	6.0	100.0(167)
χ^2	184.778 ***								

주: 복수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전체 200%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연령 및 학력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은 다음의 <표 IV-1-15>와 같다. 먼저, 성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연령별로 상관없이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뽑고, 20~29세는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 분담’, ‘일 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순으로 뽑은 반면, 30~39세는 ‘일 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 ‘안전한 보육시설증가’를 뽑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대

와 관계없이 '경제적 안정',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 '일 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 순으로 뽑았다.

학력과 무관하게 '경제적 안정'이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는데, 전문대 졸업 이하의 학력에서는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 '일 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을 다음으로 뽑은 반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일 가정 양립기업 문화 개선',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 순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IV-1-15> 연령 및 학력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 (1+2순위)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안정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	사교육비가 줄어 들면	안전한 보육 시설 증가	일 가정 양립 기업 문화 개선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 증가	조건과 무관하게 출산	기타	계(수)
전체	77.7	32.2	12.6	15.4	34.4	11.6	14.5	1.5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80.4	30.0	13.6	12.9	29.3	13.2	19.3	1.4	100.0(280)
남성 30~39세	81.6	18.0	19.5	20.7	30.1	11.7	18.0	0.4	100.0(256)
여성 20~29세	79.0	40.9	8.0	10.5	40.6	9.8	9.1	2.2	100.0(276)
여성 30~39세	69.7	39.5	9.6	18.0	37.5	11.9	11.9	1.9	100.0(261)
χ^2	117.685 ***								
최종 학력									
고졸이하	84.1	25.8	23.5	15.2	24.2	9.8	15.2	2.3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75.8	35.8	14.4	17.7	29.3	10.2	15.8	0.9	100.0(215)
4년제 대학재학 및 졸업	77.4	32.4	10.6	14.3	36.9	12.5	14.3	1.6	100.0(642)
대학원 이상	75.0	32.1	6.0	17.9	44.0	11.9	11.9	1.2	100.0(84)
χ^2	47.075 **								

주: 복수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전체 200%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거주 지역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을 살펴보면 <표 IV-1-16>과 같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일 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을 다음으로 뽑은 반면, 농어촌은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 '일 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을 다음으로 뽑아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1-16〉 거주지역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1+2순위)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안정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	사교육비 줄어들면	안전한 보육시설 증가	일 가정 문화 개선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 증가	조건과 무관하 게 출산	기타	계(수)
전체	77.7	32.2	12.6	15.4	34.4	11.6	14.5	1.5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79.7	33.5	12.0	16.0	35.4	11.5	10.5	1.4	1000(418)
중소도시	80.2	30.5	13.5	13.3	35.8	11.4	14.4	0.9	1000(430)
농어촌	69.3	33.3	12.0	18.2	29.8	12.4	22.2	2.7	1000(225)
χ^2	38.259 **								

주: 복수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전체 200%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표 IV-1-17〉 성 및 미혼 상태별 첫아이 출산 희망 시기

구분	안정된 직장마련 이후	적정소득 수준이 유지될때	집장만 이후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출산 적령기를 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원할 때	기타	계(수)	
전체	8.0	38.4	6.4	24.0	10.4	10.3	2.5	100.0(1,073)	
성 및 미혼 상태별									
남성 자발적 결혼연기	11.4	32.0	11.4	17.8	7.8	18.3	1.4	100.0(219)	
남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9.5	39.0	8.6	13.3	9.5	19.0	1.0	100.0(210)	
남성 비혼	16.8	39.3	10.3	14.0	4.7	12.1	2.8	100.0(107)	
여성 자발적 결혼연기	3.3	37.0	1.8	39.2	12.8	3.3	2.6	100.0(273)	
여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3.1	40.2	2.1	27.8	21.6	4.1	1.0	100.0(97)	
여성 비혼	6.6	46.7	4.8	24.6	8.4	2.4	6.6	100.0(167)	
χ^2	190.944 ***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첫아이 출산 희망 시기는 ‘적정소득 수준이 유지 될 때’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가 24.0%, ‘출산 적령기를 넘지 않을 때’ 10.4%, ‘배우자가 원할 때’ 10.3%, ‘안정된 직장마련 이후’ 8.0%, ‘집장만 이후’ 6.4%, 기타 2.5% 순으로 나타났다.

성 및 미혼 상태별로 첫아이 출산 희망 시기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미혼 상태에 관계없이 ‘적정소득 수준이 유지될 때’가 가장 많았고,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는 ‘배우자가 원할 때’,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순으

로 뽑은 반면 비혼자는 '안정된 직장마련 이후',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를 다음으로 뽑았다. 여성의 경우, 비자발적 결혼연기자와 비혼자는 '적정소득 수준유지',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출산 적령기를 넘지 않을 때' 순으로 뽑은 반면 자발적 결혼연기자는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적정소득 수준유지', '출산적령기를 넘지 않을 때' 순으로 뽑아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대부분 '적정소득 수준유지'와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를 중시하였으며, 남성은 '배우자가 원할 때'인 반면 여성은 '출산적령기를 넘지 않을 때'를 뽑은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인적특성별 첫아이 출산 희망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18>과 같다. 성 및 연령별에 관계없이 '적정 소득수준 유지'를 가장 많이 뽑았고, 남성 20~29세는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17.9%, '배우자가 원할 때' 16.1%가 뒤를 이은 반면, 남성 30~39세는 '배우자가 원할 때' 18.8%,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12.5%로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출산 적령기를 넘지 않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8> 인적특성별 첫아이 출산 희망 시기

단위: %(명)

구분	안정된 직장마련 이후	적정 소득수준 유지	집장만 이후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출산 적령기를 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원할 때	기타	계(수)
전체	8.0	38.4	6.4	24.0	10.4	10.3	2.5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11.8	36.4	10.7	17.9	6.1	16.1	1.1	1000(280)
남성 30~39세	11.7	35.9	9.4	12.5	9.8	18.8	2.0	1000(256)
여성 20~29세	4.3	39.1	2.2	38.0	10.5	1.8	4.0	1000(276)
여성 30~39세	4.2	42.1	3.4	26.8	15.7	4.6	3.1	1000(261)
χ^2				157.431 ***				
최종 학력								
고졸이하	11.4	37.9	9.1	18.9	7.6	12.1	3.0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8.8	42.8	6.5	16.7	10.2	11.6	3.3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6.7	38.0	5.9	26.2	11.5	9.5	2.2	1000(642)
대학원 이상	10.7	31.0	6.0	33.3	7.1	9.5	2.4	1000(84)
χ^2				23.497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 재학 및 졸업이하는 '적정 소득수준 유지',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배우자가 원할 때' 순으로 나타난 반면,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는 '적정 소득수준 유지',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출산 적령기를 넘지 않을 때' 순이었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자는 '부부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가 가장 많았고, '적정 소득수준 유지', '안정된 직장마련 이후'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 가족 가치관 변화

이 절에서는 청년 미혼자들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족관과 자녀의 필요성 및 자녀에 대한 생각 등 저출산과 관련된 가족 가치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 미혼자들이 자녀 및 가족 형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가. 자녀 필요성

자녀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있는 것이 낫다'가 43.0%로 가장 많았고, '없어도 괜찮다' 36.2%, '꼭 있어야 한다' 14.8%, '없는 것이 낫다' 6.1% 순으로 나타나 자녀 필요성에 대해 42.3%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성 및 미혼상태별 자녀 필요성

구분	단위: %(명)				χ^2	계(수)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낫다	없어도 괜찮다	없는 것이 낫다		
전체	14.8	43.0	36.2	6.1		100.0(1,073)
성 및 미혼상태별						
남성 자발적 결혼연기	28.8	49.3	21.5	0.5	325.145 ***	100.0(219)
남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23.3	51.4	24.8	0.5		100.0(210)
남성 비혼	2.8	19.6	59.8	17.8		100.0(107)
여성 자발적 결혼연기	11.7	49.8	35.2	3.3		100.0(273)
여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9.3	67.0	21.6	2.1		100.0(97)
여성 비혼	1.8	13.8	64.7	19.8		100.0(167)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성 및 미혼상태별로 자녀 필요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발적 결혼연기자와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는 ‘있는 것이 낫다’와 ‘꼭 있어야 한다’의 긍정적인 대답이 각각 78.1%, 74.7%로 응답한 반면 남성 미혼자는 ‘없어도 괜찮다’, ‘없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77.6%로 나타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자발적 결혼연기자와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는 긍정적 응답이 61.5%, 76.3%로 나타난 반면 여성 미혼자는 부정적 응답이 84.5%에 달해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및 학력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표 IV-2-2>와 같았다. 연령에 따른 응답이 20~29세는 긍정적 응답이 60.8%, 30~39세는 54.6%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에 따른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고졸이하는 53.1%, 전문대 재학 및 졸업자는 61.4%,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는 56.7%, 대학원 이상은 64.3%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였지만, 고졸이하 응답에서는 ‘없어도 괜찮다’의 비중이 4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연령 및 학력별 자녀 필요성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 있는 것이		없어도 없는 것이		χ^2	계(수)
	한다	낫다	괜찮다	낫다		
전체	14.8	43.0	36.2	6.1		100.0(1,073)
연령						
20~29세	17.1	43.7	33.8	5.4	6.747	100.0(556)
30~39세	12.4	42.2	38.7	6.8		100.0(517)
최종 학력						
고졸이하	16.7	36.4	40.2	6.8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23.7	37.7	33.0	5.6	24.379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11.4	45.3	37.4	5.9		100.0(642)
대학원 이상	15.5	48.8	28.6	7.1		100.0(84)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자(휴직포함)와 학생(휴학포함)은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61.4%, 59.7%로 많은 반면 구직 및 기타는 45.3%로 나타나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취업상태별 자녀 필요성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 있는 것이		없어도 없는 것이		χ^2	계(수)
	한다	낮다	괜찮다	낮다		
전체	14.8	43.0	36.2	6.1		100.0(1,073)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16.7	44.7	34.1	4.5	24.790 ***	100.0(671)
학생(휴학포함)	11.7	48.0	33.0	7.3		100.0(179)
구직, 기타	11.7	33.6	44.8	9.9		100.0(223)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일자리 특성별로 자녀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표 IV-2-4>와 같았다. 전문가 및 관리자와 사무종사자는 응답의 형태가 유사하며 긍정적 응답은 각각 60.8%, 60.0%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는 ‘없어도 괜찮다’가 42.2%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 응답이 47.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농림, 어업 종사자들은 긍정적 응답이 74.2%에 달해 다른 직종보다 자녀 필요성을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2-4〉 일자리 특성별 자녀 필요성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 있는 것이		없어도 없는 것이		χ^2	계(수)
	한다	낮다	괜찮다	낮다		
전체	14.8	43.0	36.2	6.1		100.0(1,073)
직종						
전문가 및 관리자	18.2	42.6	33.8	5.4	26.468 **	100.0(148)
사무종사자	12.2	47.8	36.4	3.5		100.0(343)
서비스, 판매종사자	16.9	36.1	42.2	4.8		100.0(83)
농림어업종사자등	29.9	44.3	19.6	6.2		100.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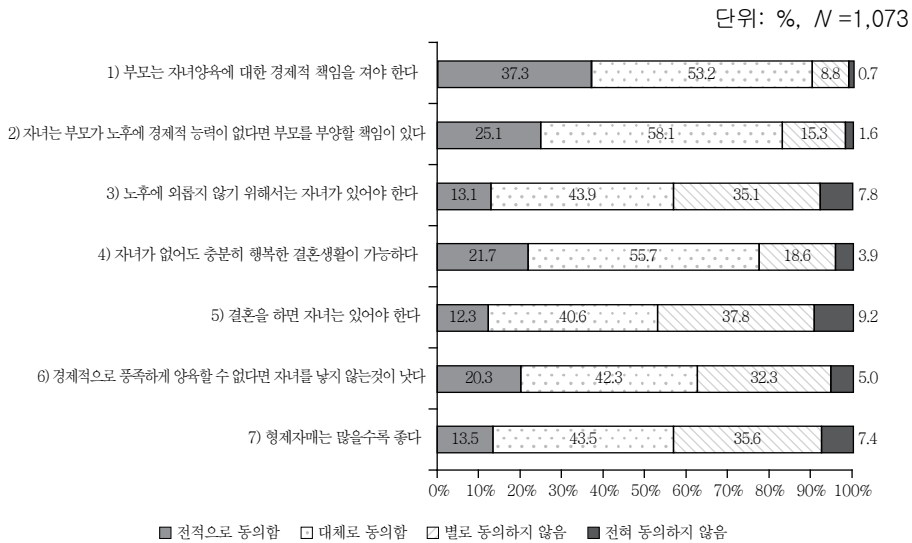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나. 가족관 및 가족 가치

조사 대상자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다음의 [그림 IV-2-1]과 같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의 질문에는 90.5%가 동의(전적으로 동의함+대체로 동의함)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질문에는 83.2%가 동의(전적으로 동의함+대체로 동의함)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의 질문에는 57.0%가 동의(전적으로 동의함+대체로 동의함)하는 반면,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에 대한 응답이 77.4%가 동의하였고,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에는 52.9%가 동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였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의 질문에 62.6%가 동의해 자녀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에는 5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V-2-1] 자녀에 대한 태도

미혼상태별로 자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2-5>와 같이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에 대해 자발적 및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는 90%이상 동의한 반면, 미혼자는 85.4%가 동의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에 대해서는 자발적 및 비자발적 결혼연기자는 85%내외로 동의한 반면 미혼자는 78.1%가 동의하였다.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결혼연기자들은 65% 이상이 동의하는 반면 비혼자는 31.4%만 동의해 노후에 대한 자녀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고 다만 비혼자가 동의한 비중이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았다.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결혼연기자는 과반이 동의하였지만, 비혼자는 28.8%만이 동의해 자녀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비혼자와 결혼연기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과반이상 동의하나 비혼자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10%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였고,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는 질문에 결혼연기자는 약 62%가 동의한 반면 비혼자는 40.1%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미혼상태별 자녀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구분	단위: %(명)			χ^2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자녀에 대한 태도				
1)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91.3	93.8	85.4	12.523 **
2)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 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83.9	86.3	78.1	7.398 *
3)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 어야 한다	66.1	65.5	31.4	98.815 ***
4)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77.4	73.0	82.5	7.508 *
5)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	59.1	64.5	28.8	87.979 ***
6)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58.9	61.6	70.4	10.144 **
7)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	62.8	62.9	40.1	42.838 ***
(수)	(492)	(307)	(274)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 필요성에 따라서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문에 모든 집단에서 약 90%수준으로 동의하였고, 자녀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집단만 83.1%로 다소 낮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

이 있다'는 자녀 필요성에 동의하는 집단은 86%수준에서 동의하였고, '없어도 괜찮다'는 집단은 79.9%, '없는 것이 낫다'는 집단은 70.8%로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집단은 70%이상이 동의하는 반면, 자녀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은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의하는 비중이 '꼭 있어야 한다'에서 '없는 것이 낫다'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에 대해서는 자녀 필요성에 부정적 집단은 90%내외로 동의하는 반면 '있는 것이 낫다'는 74.0%가 동의하였고,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50.9%만이 동의하였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에 대해 '꼭 있어야 한다'에서 '없는 것이 낫다'로 갈수록 동의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고, 반대로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는 질문은 '꼭 있어야 한다'에서 '없는 것이 낫다'로 갈수록 동의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6 참조).

〈표 IV-2-6〉 자녀 필요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하는 것이 낫다		없어도 괜찮다		χ ²
	한다	낫다	한다	낫다	
자녀에 대한 태도					
1)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93.7	91.3	89.4	83.1	6.946
2)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86.8	86.3	79.9	70.8	14.870 **
3)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89.3	74.6	30.7	10.8	292.597 ***
4)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50.9	74.0	90.5	89.2	109.940 ***
5)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	93.1	73.3	20.1	6.2	404.718 ***
6)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46.5	58.6	71.1	80.0	41.202 ***
7)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	82.4	65.5	42.3	23.1	120.339 ***
(수)	(159)	(461)	(388)	(65)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V-2-7〉 성 및 연령별 자녀에 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자녀에 대한 태도					
1)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92.5	84.8	94.6	89.7	16.606 ***
2)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84.3	82.4	82.2	83.5	0.541
3)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63.6	59.4	58.7	46.0	18.788 ***
4)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70.4	69.1	85.9	84.3	36.379 ***
5)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	61.1	60.2	46.4	44.1	25.812 ***
6)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54.3	62.1	71.4	62.8	17.386 ***
7)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	61.1	55.9	56.9	54.0	2.975
(수)	(280)	(256)	(276)	(26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성 및 연령별로 자녀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표 IV-2-7>과 같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에 대해 20대는 90%이상이 동의한 반면 30대는 80%대로 다소 낮아졌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동의하는 비중이 20대는 2.1%, 30대는 4.9% 더 높았다. ‘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 및 연령별로 차이 없이 80%정도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20대 남성의 63.6%가 동의하였고, 3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순으로 동의하는 비중이 작아졌다.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연령에 구분 없이 여성은 약85% 가량이 동의하였고, 남성은 약70% 동의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남성은 연령 구분 없이 약60%정도가 동의한 반면 여성은 45%내외로만 동의해 성별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 여성은 20대 71.4%, 30대 62.8%가 동의하였고, 남성은 30대 62.1%, 20대 54.3%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에 대해서는 과반이상이 동의하였고, 20대 남성이 61.1%로 다소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2-8> 성 및 학력별 자녀에 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대졸미만	대졸이상	대졸미만	대졸이상	
자녀에 대한 태도					
1)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87.7	89.9	91.6	92.6	4.421
2)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81.4	85.4	82.8	82.9	1.568
3)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60.6	62.5	55.6	50.0	10.907 *
4)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67.7	71.9	83.3	86.6	38.295 ***
5)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	59.5	61.8	46.9	44.0	26.216 ***
6)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58.7	57.3	69.0	65.8	10.429 *
7)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	62.8	54.3	57.7	53.7	5.899
(수)	(269)	(267)	(239)	(298)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대학 재학생은 미만으로 분류하였음.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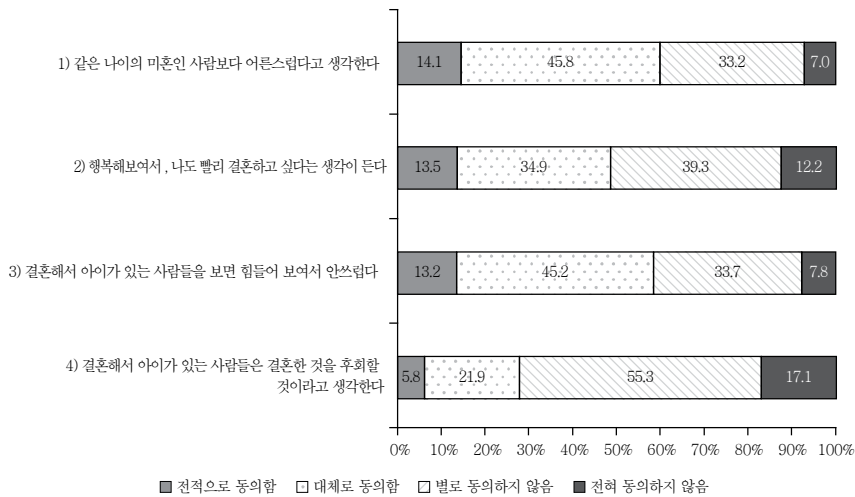
* $p < .05$, *** $p < .001$.

성 및 학력별 자녀에 관한 태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IV-2-8>과 같이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87~92%가 동의하였으나 성 및 학력별 차이는 없었고, '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도 약 80%이상의 수준에서 성 및 학력에 관계없이 비슷한 비중이 동의하였다.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남성은 대졸 이상 62.5%, 대졸 미만 60.6%가 동의하였고 여성은 대졸 미만 55.6%, 대졸 이상 50.0%가 동의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해 여성 대졸 이상이 86.6%로 가장 많았고, 여성 대졸 미만이 83.3%, 남성 대졸이상 71.9%, 남성 대졸미만이 67.7%순으로 동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질문은 남성 대졸

이상이 61.8%, 남성 대졸미만은 59.5%, 여성 대졸미만 46.9%, 여성 대졸이상 44.0%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에 대해 여성 대졸 미만 69.0%, 여성 대졸이상 65.8%, 남성 대졸미만 58.7%, 남성 대졸이상 57.3%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대졸 미만이 대졸이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학력보다는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혼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대상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다음의 [그림 IV-2-2]와 같다. 기혼자가 '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 60.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해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48.4%만이 동의해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는 질문에 58.4%가 동의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는 데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27.7%만이 동의해 결혼해 아이를 갖은 것을 후회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N=1,073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V-2-2] 기혼자에 대한 태도

미혼상태별로 기혼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는 다음의 <표 IV-2-9>와 같다. '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결혼연기자 집단들은 70% 가까이 동의한 반면, 비혼자는 38.3%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해 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에 대해서도 결혼연기자는 과반이상이 동의한 반면, 비혼자는 15.7%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스럽다'에 대해서 미혼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단에서 30%미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미혼상태별 기혼자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구분	단위: %(명)			χ ²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	
기혼자에 대한 태도				
1)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	66.1	69.1	38.3	71.553 ***
2)행복해 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56.3	65.1	15.7	164.119 ***
3)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스럽다	60.8	52.8	60.6	5.686
4)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6.0	27.7	30.7	1.893
(수)	(492)	(307)	(274)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자녀 필요성에 따른 기혼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2-10>과 같다. '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자녀 필요성에 긍정적인 집단은 81.8%, 70.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 필요성에 미온적인 집단은 44.3%, 26.2%로 절반 이하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해 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서도 자녀 필요성에 긍정인 집단은 83.6%와 63.1%로 절반이 넘었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집단은 23.5%, '없는 것이 낫다'는 집단은 7.7%에 불과해 자녀 필요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결혼에 대해 부러워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는데 자녀 필요성에 '없는 것이 낫다'는 집단은 81.5%로 가장 높았고, '없어도 괜찮다'는 64.7%, '있는 것이 낫다' 54.9%, '꼭 있어야 한다'는 44.0%로 나타나 자녀 필요성에 대해 동의가 강할수록 해당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자녀 필요성이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낫다' 그리고 '없어도 괜찮다'는 25%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없는 것이 낫다'는 집단은 50.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기혼자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V-2-10> 자녀 필요성에 따른 기혼자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 있는 것이		없어도 없는 것이		χ^2
	한다	낫다	괜찮다	낫다	
기혼자에 대한 태도					
1)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	81.8	70.1	44.3	26.2	121.374 ***
2)행복해 보여서, 나도 빨리 결 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83.6	63.1	23.5	7.7	258.905 ***
3)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 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	44.0	54.9	64.7	81.5	36.527 ***
4)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 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28.3	24.9	26.8	50.8	19.212 ***
(수)	(159)	(461)	(388)	(65)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성 및 연령별 기혼자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 본 결과는 <표 IV-2-11>에 제시하였다. '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남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66.4%가 동의하였고, 30대 여성의 54.4%, 20대는 52.2%가 동의하였다. '행복해 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 대해 20대 남성의 62.5%가 동의하였고, 30대 남성의 53.1%, 20대 여성의 43.5%, 30대 여성의 34.1%가 동의해, 20대가 30대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

쓰럽다'는 것에 대해 여성 30대 67.0%가 동의하였고, 여성 20대 64.1%, 남성 30대 58.2%, 남성 20대는 45.0%만이 동의해 30대가 20대보다 동의하는 비중이 크고,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남성 30대만 32.8%로 다소 높았고 나머지 집단은 25%내외로 비슷한 동의수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11> 성 및 연령별 기혼자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기혼자에 대한 태도					
1)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	66.4	66.4	52.2	54.4	19.606 ***
2)행복해 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62.5	53.1	43.5	34.1	48.621 ***
3)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	45.0	58.2	64.1	67.0	32.475 ***
4)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6.1	32.8	25.4	26.8	4.568
(수)	(280)	(256)	(276)	(261)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성 및 학력별 기혼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표 IV-2-12>와 같다. '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는 비중이 남성 대졸이상 68.5%, 대졸미만 64.3%, 여성 대졸미만 53.6%, 대졸이상 53.0%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대졸미만보다 대졸이상의 동의 비중이 컸다. '행복해 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남성 대졸미만은 60.2%, 대졸이상 55.8%로 절반이 넘었지만, 여성은 대졸미만 43.9%, 대졸이상 34.9%가 동의해 대졸미만이 대졸이상보다 동의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는 질문에 여성 대졸이상 68.1%, 대졸미만 62.3%이 동의하고, 남성 대졸이상은 54.7%가 동의한 반면 대졸미만 48.0%만이 동의하여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동의하는 비

중이 컸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이 30%미만의 동의를 보였다.

〈표 IV-2-12〉 성 및 학력별 기혼자에 대한 태도(동의함 응답 비중)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χ^2
	대졸미만	대졸이상	대졸미만	대졸이상	
기혼자에 대한 태도					
1)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	64.3	68.5	53.6	53.0	20.340 ***
2)행복해 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60.2	55.8	43.9	34.9	44.572 ***
3)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	48.0	54.7	62.3	68.1	26.725 ***
4)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0.5	28.1	29.7	23.2	4.618
(수)	(269)	(267)	(239)	(298)	

주: (수)는 응답 대상자 수. 대학 재학생은 미만으로 분류. 동의함은 전적으로 동의+대체로 동의.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01$.

3. 저출산 대응정책 전반 및 청년층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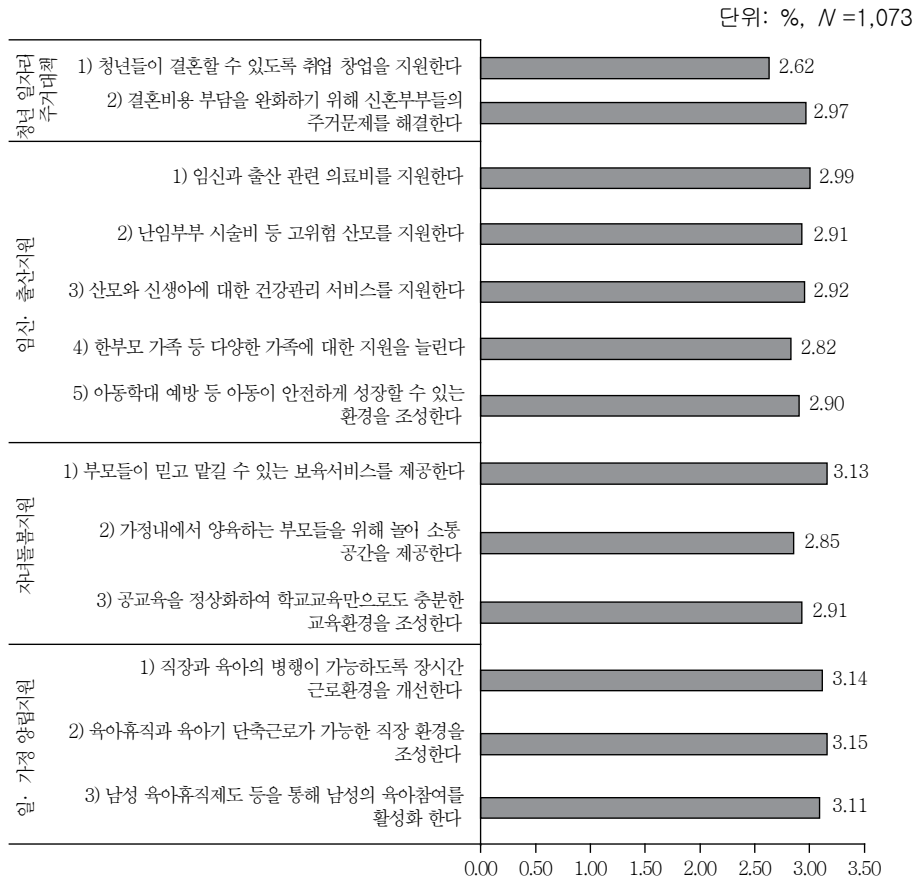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정책 전반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들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결혼지원 즉 일자리·주거대책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각각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저출산 대응의 주요 과제 즉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임신·출산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주요 정책 과제별로는 일·가정 양립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반면, 청년 주거·일자리 대책은 가장 낮은 평가를 나타냈다. 이러한결과는 조사 대상자가 청년 주거·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임을 감안할 때, 저출산 대응 영역별로 정책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각 세부 과제별로는 근로환경 개선 즉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직장환경의 조성 과 직장 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의 도움 정도가 각각 평균 3.15점(4점 만점)과 3.14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3.13점,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통한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3.1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의 지원은 평균 2.6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은 평균 2.97점으로 임신·출산과 가정내 양육 등 자녀 돌봄 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었다.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산출,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그림 IV-3-1] 저출산 대책의 도움 정도(평균 점수)

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은 2016년부터 청년층의 결혼 시기를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강화되었으며, 취업 및 창업 지원과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 지원이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55.1%에 그쳐, 이외 지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나타냈다(표 IV-3-1 참조). 개인 특성별로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20대가 30대보다 취업 및 창업 지원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3-2 참조).

〈표 IV-3-1〉 청년 대상 취업·창업 지원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겠음		
전체	15.4	39.7	29.5	11.1	4.4	2.62	100.0(1,073)
미혼 상태							
자발적 결혼연기	15.7	43.5	28.9	8.7	3.3	2.68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16.6	40.7	26.7	12.7	3.3	2.63	100.0(307)
비혼	13.5	31.8	33.6	13.5	7.7	2.49	100.0(274)
χ^2/F	23.274 **					3.943 *	
자녀 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한다	27.0	39.0	21.4	9.4	3.1	2.86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14.1	45.8	27.5	10.0	2.6	2.66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1.9	35.1	35.3	11.6	6.2	2.50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16.9	26.2	27.7	20.0	9.2	2.44	100.0(65)
χ^2/F	51.784 ***					7.157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2〉 청년 대상 취업·창업 지원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15.4	39.7	29.5	11.1	4.4	2.62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19.6	40.0	22.9	11.4	6.1	2.72	100.0(280)
남성 30~39세	16.4	40.2	27.7	12.5	3.1	2.63	100.0(256)
여성 20~29세	15.2	39.9	30.4	10.5	4.0	2.62	100.0(276)
여성 30~39세	10.0	38.7	37.2	10.0	4.2	2.51	100.0(261)
χ^2/F	22.054 *					2.502	
최종 학력							
고졸이하	24.2	35.6	31.1	5.3	3.8	2.82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16.7	39.5	30.7	7.0	6.0	2.70	100.0(215)
4체대학 재학 및 졸업	12.1	41.3	29.1	13.1	4.4	2.55	100.0(642)
대학원 이상	22.6	34.5	26.2	15.5	1.2	2.65	100.0(84)
χ^2/F	30.750 **					4.088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다음으로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매우 도움됨+도움됨)은 72.7%로 앞서 다룬 창업·취업 지원에 비해 청년층 대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정책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IV-3-3 참조). 해당 비율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자녀가 경우에서 각각 75.4%, 74.9%, 77.4%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특히 20대 여성에서 평균 3.1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3-4 참조).

〈표 IV-3-3〉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8.0	44.7	17.2	6.6	3.4	2.97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8.3	47.2	18.1	4.5	2.0	3.01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33.9	41.0	14.7	7.8	2.6	3.04	100.0(307)
비혼	20.8	44.5	18.6	9.1	6.9	2.83	100.0(274)
χ^2/F	31.995 ***					5.001 **	

(표 IV-3-3 계속)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9.0	38.4	16.4	3.8	2.5	3.15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28.4	46.2	17.4	6.3	1.7	2.98	100.0(461)
없어도 괜찮다	24.0	45.6	17.5	7.7	5.2	2.90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21.5	44.6	16.9	9.2	7.7	2.85	100.0(65)
χ^2/F	26.370 **					3.528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4〉 신혼부부 주거문제 지원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8.0	44.7	17.2	6.6	3.4	2.97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8.9	40.4	16.8	8.2	5.7	2.95	100.0(280)
남성 30~39세	27.7	41.8	19.9	9.0	1.6	2.90	100.0(256)
여성 20~29세	32.2	46.0	14.9	4.0	2.9	3.10	100.0(276)
여성 30~39세	22.6	51.0	17.6	5.4	3.4	2.94	100.0(261)
χ^2/F	24.484 *					2.680 *	
최종 학력							
고졸이하	30.3	44.7	18.2	3.8	3.0	3.05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31.2	40.0	17.7	6.5	4.7	3.00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5.7	46.7	17.0	7.2	3.4	2.94	100.0(642)
대학원 이상	33.3	41.7	16.7	7.1	1.2	3.02	100.0(84)
χ^2/F	9.184					0.772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산출,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나.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지원은 생애주기상 자녀 돌봄에 앞서 요구되는 분야로서,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등 고위험 산모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 핵심과제로 추진되며, 이에 더하여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부문이 포함된다.

우선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은 72.7%로 나타났다(표 IV-3-5 참조). 해당 비율은 비혼자에 비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경우와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히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20대가 30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특히 20대 여성들의 도움 정도 인식 수준은 평균 3.15점으로 월등히 높았다(표 IV-3-6 참조). 거주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농어촌 지역에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이 77.7%로 높게 나타났는데(표 IV-3-7 참조), 이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3-5〉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모르겠음		
전체	29.0	43.7	17.4	6.4	3.4	2.99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9.5	46.7	15.0	5.9	2.8	3.03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32.9	42.0	16.3	7.2	1.6	3.02	100.0(307)
비혼	23.7	40.1	23.0	6.6	6.6	2.87	100.0(274)
χ^2/F	24.716 **					3.252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9.0	40.9	13.2	4.4	2.5	3.17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30.4	43.8	16.7	6.3	2.8	3.01	100.0(461)
없어도 괜찮다	24.5	45.1	20.1	6.4	3.9	2.91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21.5	41.5	16.9	12.3	7.7	2.78	100.0(65)
χ^2/F	22.699 *					4.643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IV-3-6〉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9.0	43.7	17.4	6.4	3.4	2.99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8.2	40.0	18.2	7.5	6.1	2.95	100.0(280)
남성 30~39세	25.8	40.2	21.9	10.2	2.0	2.83	100.0(256)
여성 20~29세	34.8	46.7	11.6	4.3	2.5	3.15	100.0(276)
여성 30~39세	26.8	47.9	18.4	3.8	3.1	3.01	100.0(261)
χ^2/F			34.984 ***			6.130 ***	
최종 학력							
고졸이하	31.1	40.2	22.7	3.0	3.0	3.02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33.5	40.9	15.3	5.1	5.1	3.08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5.9	47.0	16.5	7.3	3.3	2.95	100.0(642)
대학원 이상	38.1	31.0	21.4	8.3	1.2	3.00	100.0(84)
χ^2/F			22.852 *			1.410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IV-3-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의 도움 정도(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9.0	43.7	17.4	6.4	3.4	2.99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26.8	44.7	17.9	7.7	2.9	2.93	100.0(418)
중소도시	28.8	42.3	18.8	6.0	4.0	2.98	100.0(430)
농어촌	33.3	44.4	13.8	4.9	3.6	3.10	100.0(225)
χ^2/F			7.390			2.706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난임부부 시술비 등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이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은 68.0%로 앞서 다룬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일반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냈는데(표 IV-3-8 참조), 이는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IV-3-8〉 고위험 산모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4.8	43.2	20.6	6.2	5.2	2.91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5.4	46.5	18.3	5.1	4.7	2.97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29.3	39.7	19.2	7.5	4.2	2.95	100.0(307)
비혼	18.6	41.2	26.3	6.6	7.3	2.78	100.0(274)
χ^2/F			20.051 *			4.536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5.8	32.1	20.1	5.7	6.3	3.05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25.6	46.2	18.4	5.9	3.9	2.95	100.0(461)
없어도 괜찮다	20.1	45.4	23.2	5.7	5.7	2.85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20.0	36.9	21.5	12.3	9.2	2.71	100.0(65)
χ^2/F			29.198 **			3.370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해당 비율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경우와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이들에게서 더 높고, 특히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평균 3.05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도움 정도가 평균 3점을 초과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표 IV-3-9, IV-3-10 참조).

〈표 IV-3-9〉 고위험 산모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4.8	43.2	20.6	6.2	5.2	2.91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5.4	37.1	20.7	8.2	8.6	2.87	100.0(280)
남성 30~39세	18.0	43.8	23.4	11.3	3.5	2.71	100.0(256)
여성 20~29세	30.8	41.7	20.7	2.5	4.3	3.05	100.0(276)
여성 30~39세	24.5	51.0	17.6	2.7	4.2	3.02	100.0(261)
χ^2/F			49.588 ***			8.666 ***	

(표 IV-3-9 계속)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최종 학력							
고졸이하	33.3	39.4	17.4	3.8	6.1	3.09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28.4	41.4	19.5	5.1	5.6	2.99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1.3	45.0	21.7	6.9	5.1	2.85	100.0(642)
대학원 이상	28.6	40.5	20.2	7.1	3.6	2.94	100.0(84)
χ^2/F	13.819					3.296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IV-3-10〉 고위험 산모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도움 정도(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4.8	43.2	20.6	6.2	5.2	2.91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23.2	42.6	21.8	7.4	5.0	2.86	100.0(418)
중소도시	23.0	44.2	20.7	6.7	5.3	2.88	100.0(430)
농어촌	31.1	42.7	18.2	2.7	5.3	3.08	100.0(225)
χ^2/F	11.461					5.148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은 70.3%로 나타났다(표 IV-3-11 참조). 전반적으로 비혼자에 비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미혼자의 도움 정도 인식 수준이 높고, 특히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었다. 또한 첫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20대 여성들과 농어촌 지역에서 평균 3점을 넘는 평가를 나타냈다(표 IV-3-12, IV-3-13 참조).

〈표 IV-3-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4.3	46.0	18.6	6.4	4.6	2.92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6.2	48.2	16.9	4.9	3.9	3.00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27.7	45.0	16.0	7.8	3.6	2.96	100.0(307)
비혼	17.2	43.4	24.8	7.7	6.9	2.75	100.0(274)
χ^2/F	24.495 **					7.272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5.2	40.9	14.5	5.0	4.4	3.11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24.3	48.2	18.0	6.1	3.5	2.94	100.0(461)
없어도 괜찮다	20.9	47.2	21.1	5.2	5.7	2.89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18.5	36.9	18.5	20.0	6.2	2.57	100.0(65)
χ^2/F	38.890 ***					6.359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V-3-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4.3	46.0	18.6	6.4	4.6	2.92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3.9	43.6	18.2	6.4	7.9	2.92	100.0(280)
남성 30~39세	21.9	41.8	23.0	9.4	3.9	2.79	100.0(256)
여성 20~29세	30.1	47.1	15.9	4.0	2.9	3.06	100.0(276)
여성 30~39세	21.1	51.7	17.6	6.1	3.4	2.91	100.0(261)
χ^2/F	28.054 **					4.481 **	
최종 학력							
고졸이하	28.8	43.2	20.5	3.0	4.5	3.02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31.2	40.0	18.6	4.7	5.6	3.03	100.0(215)
4년제대 재학 및 졸업	19.9	49.5	19.0	7.0	4.5	2.86	100.0(642)
대학원 이상	33.3	39.3	13.1	11.9	2.4	2.96	100.0(84)
χ^2/F	28.280 **					2.881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IV-3-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움 정도(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4.3	46.0	18.6	6.4	4.6	2.92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21.5	46.9	19.6	7.4	4.5	2.86	100.0(418)
중소도시	23.3	46.0	19.8	6.5	4.4	2.90	100.0(430)
농어촌	31.6	44.4	14.7	4.4	4.9	3.08	100.0(225)
χ^2/F	11.071					5.021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14〉 다양한 가족(한부모 가족 등) 지원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1.7	42.6	22.3	8.0	5.4	2.82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1.7	44.3	22.8	6.3	4.9	2.86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24.8	43.3	19.5	9.1	3.3	2.87	100.0(307)
비혼	18.2	38.7	24.5	9.9	8.8	2.72	100.0(274)
χ^2/F	17.852 *					2.545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1.4	35.8	20.1	6.9	5.7	2.97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19.7	44.7	23.6	8.2	3.7	2.79	100.0(461)
없어도 괜찮다	19.3	44.8	22.9	7.0	5.9	2.81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26.2	30.8	13.8	15.4	13.8	2.79	100.0(65)
χ^2/F	33.516 ***					1.740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은 64.3%로 이외 지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는데(표 IV-3-14 참조), 이는 적용대상이 한정된 점과 일부 관련된다고 추측된다. 개인 특성별로는 비혼자들에 비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특

히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에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였다(표 IV-3-15, IV-3-16 참조).

〈표 IV-3-15〉 다양한 가족(한부모 가족 등) 지원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겠음		
전체	21.7	42.6	22.3	8.0	5.4	2.82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5.4	36.8	18.9	12.9	6.1	2.79	100.0(280)
남성 30~39세	19.1	41.8	25.4	9.4	4.3	2.74	100.0(256)
여성 20~29세	21.4	47.8	19.6	5.8	5.4	2.90	100.0(276)
여성 30~39세	20.7	44.1	25.7	3.8	5.7	2.87	100.0(261)
χ^2/F	28.623 **					1.644	
최종 학력							
고졸이하	26.5	43.2	23.5	5.3	1.5	2.92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25.6	37.7	22.3	7.0	7.4	2.88	100.0(215)
4년대학 재학 및 졸업	18.1	45.0	22.0	9.0	5.9	2.77	100.0(642)
대학원 이상	32.1	35.7	22.6	7.1	2.4	2.95	100.0(84)
χ^2/F	23.680 *					2.301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IV-3-16〉 다양한 가족(한부모 가족 등) 지원의 도움 정도(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겠음		
전체	21.7	42.6	22.3	8.0	5.4	2.82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20.3	43.5	21.5	9.1	5.5	2.79	100.0(418)
중소도시	18.1	44.4	24.9	7.7	4.9	2.77	100.0(430)
농어촌	31.1	37.3	18.7	6.7	6.2	2.99	100.0(225)
χ^2/F	18.343 *					4.869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출산을 계고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인식한 비율은 66.6%로 조사되었다(표 IV-3-17 참조). 특히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이 31.4%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각각 평균 약 3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표 IV-3-18, IV-3-19 참조).

〈표 IV-3-17〉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도움되는 편	별로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모르겠음		
전체	26.7	39.9	21.0	7.5	4.9	2.90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7.0	39.8	21.3	7.3	4.5	2.91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28.3	42.0	19.9	6.8	2.9	2.95	100.0(307)
비혼	24.1	37.6	21.5	8.8	8.0	2.84	100.0(274)
χ^2/F	10.784					1.018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1.4	37.1	20.1	6.9	4.4	2.97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27.1	42.5	20.4	6.7	3.3	2.93	100.0(461)
없어도 괜찮다	24.5	39.7	22.4	7.5	5.9	2.86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24.6	29.2	18.5	15.4	12.3	2.72	100.0(65)
χ^2/F	22.313 *					1.484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V-3-18〉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도움되는 편	별로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모르겠음		
전체	26.7	39.9	21.0	7.5	4.9	2.90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8.9	35.4	18.9	10.0	6.8	2.89	100.0(280)
남성 30~39세	20.7	41.0	26.2	8.6	3.5	2.77	100.0(256)
여성 20~29세	34.1	37.0	17.4	7.2	4.3	3.02	100.0(276)
여성 30~39세	22.2	46.7	21.8	4.2	5.0	2.92	100.0(261)
χ^2/F	32.032 **					3.541 *	

(표 IV-3-18 계속)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최종 학력							
고졸이하	25.8	47.0	22.7	3.0	1.5	2.97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33.0	34.4	20.0	5.6	7.0	3.02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3.5	41.1	21.5	8.7	5.1	2.84	100.0(642)
대학원 이상	35.7	33.3	16.7	10.7	3.6	2.98	100.0(84)
χ^2/F	26.074 *					2.625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IV-3-19〉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도움 정도(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6.7	39.9	21.0	7.5	4.9	2.90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23.7	42.6	20.3	8.4	5.0	2.86	100.0(418)
중소도시	26.0	38.4	23.5	7.4	4.7	2.87	100.0(430)
농어촌	33.3	37.8	17.3	6.2	5.3	3.04	100.0(225)
χ^2/F	10.326					3.132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다. 자녀 돌봄 지원

자녀 돌봄 지원은 2006년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추진 시 부터 가장 두드러진 재정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으로, 2016년부터는 기관보육 지원, 가정내 양육지원, 학교교육 분야가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고 응답한 비율은 76.6%로 나타난다(표 IV-3-20 참조). 이외 지원들에 비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결혼연기는 물론, 미혼자들의 경우에도 도움 정도가 평균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이들의 경우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은 80.5%에 달하였다(표 IV

-3-21 참조).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 30대에 비해 20대 청년, 남성에게 비해 여성들, 그리고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3-22, IV-3-23 참조).

〈표 IV-3-20〉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겠음		
전체	37.8	38.8	14.5	5.6	3.3	3.13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39.6	37.8	14.8	4.9	2.8	3.15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41.4	39.1	11.4	6.2	2.0	3.18	100.0(307)
비혼	30.7	40.1	17.5	6.2	5.5	3.01	100.0(274)
χ^2/F	16.018 *					3.233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42.8	35.8	13.2	5.7	2.5	3.19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38.8	41.2	13.0	5.2	1.7	3.16	100.0(461)
없어도 괜찮다	36.9	37.4	16.8	4.6	4.4	3.11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24.6	36.9	15.4	13.8	9.2	2.80	100.0(65)
χ^2/F	28.655 **					3.307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IV-3-21〉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겠음		
전체	37.8	38.8	14.5	5.6	3.3	3.13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37.9	35.0	14.3	5.7	7.1	3.13	100.0(280)
남성 30~39세	30.1	41.4	19.1	7.8	1.6	2.95	100.0(256)
여성 20~29세	45.7	35.5	13.0	4.3	1.4	3.24	100.0(276)
여성 30~39세	37.2	43.7	11.9	4.6	2.7	3.17	100.0(261)
χ^2/F	39.597 ***					5.208 **	

(표 IV-3-21 계속)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최종 학력							
고졸이하	32.6	44.7	18.2	3.0	1.5	3.08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41.9	34.9	11.2	7.0	5.1	3.18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36.3	39.6	15.7	5.3	3.1	3.10	100.0(642)
대학원 이상	47.6	33.3	8.3	8.3	2.4	3.23	100.0(84)
χ^2/F	20.196					0.875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V-3-2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도움 정도(3)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37.8	38.8	14.5	5.6	3.3	3.13	100.0(1,073)
거주지역							
대도시	32.1	43.8	14.8	6.0	3.3	3.05	100.0(418)
중소도시	38.6	37.4	15.1	5.8	3.0	3.12	100.0(430)
농어촌	47.1	32.0	12.9	4.4	3.6	3.26	100.0(225)
χ^2/F	15.803 *					4.067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가정내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놀이·소통 공간의 제공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65.3%로 기관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는데(표 IV-3-23 참조), 이는 기관 보육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인지도와 일부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 특성별로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미혼자들과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30대에 비해 20대, 특히 20대 여성들에서 도움 정도 인식 수준이 높았다(표 IV-3-24 참조).

〈표 IV-3-23〉 가정내 양육을 위한 놀이·소통 공간 제공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3.5	41.8	22.6	7.5	4.5	2.85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25.2	41.9	23.2	5.7	4.1	2.90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25.7	41.7	22.1	7.5	2.9	2.88	100.0(307)
비혼	17.9	42.0	22.3	10.9	6.9	2.72	100.0(274)
χ^2/F			17.025 *			3.936 *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3.3	34.6	19.5	7.5	5.0	2.99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23.2	44.7	23.0	6.1	3.0	2.88	100.0(461)
없어도 괜찮다	20.9	42.3	23.2	8.8	4.9	2.79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16.9	36.9	24.6	10.8	10.8	2.67	100.0(65)
χ^2/F			24.194 *			2.692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V-3-24〉 가정내 양육을 위한 놀이·소통 공간 제공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23.5	41.8	22.6	7.5	4.5	2.85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6.1	40.4	19.3	8.2	6.1	2.90	100.0(280)
남성 30~39세	18.8	38.7	28.1	10.5	3.9	2.68	100.0(256)
여성 20~29세	27.9	40.6	22.8	5.4	3.3	2.94	100.0(276)
여성 30~39세	20.7	47.9	20.7	6.1	4.6	2.87	100.0(261)
χ^2/F			23.025 *			4.214 **	
최종 학력							
고졸이하	22.7	40.2	28.0	7.6	1.5	2.79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28.8	37.7	20.5	7.0	6.0	2.94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1.0	43.6	23.4	7.5	4.5	2.82	100.0(642)
대학원 이상	29.8	41.7	14.3	9.5	4.8	2.96	100.0(84)
χ^2/F			16.381			1.587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66.5%로 조사되었다(표 IV-3-25 참조). 이외 저출산 대책들에 비해 미혼자들과 미혼자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에서 평균 3.07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고졸 이하에서 평균 3.01점, 전문대졸과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 공히 평균 3.10점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표 IV-3-26 참조).

〈표 IV-3-25〉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모르겠음		
전체	30.2	36.3	20.3	9.0	4.2	2.91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31.7	36.2	20.9	7.3	3.9	2.96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32.6	36.2	18.2	10.7	2.3	2.93	100.0(307)
비혼	24.8	36.5	21.5	10.2	6.9	2.82	100.0(274)
χ^2/F			15.267			1.955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37.7	34.0	15.7	7.5	5.0	3.07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30.2	38.6	19.5	9.3	2.4	2.92	100.0(461)
없어도 괜찮다	28.9	34.3	23.7	8.0	5.2	2.89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20.0	36.9	16.9	16.9	9.2	2.66	100.0(65)
χ^2/F			25.205 *			2.942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V-3-26〉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모르겠음		
전체	30.2	36.3	20.3	9.0	4.2	2.91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32.9	33.6	16.8	11.8	5.0	2.92	100.0(280)
남성 30~39세	27.0	35.9	20.3	12.5	4.3	2.81	100.0(256)
여성 20~29세	33.0	35.1	22.1	6.5	3.3	2.98	100.0(276)
여성 30~39세	27.6	40.6	22.2	5.4	4.2	2.94	100.0(261)
χ^2/F			20.059			1.509	

(표 IV-3-26 계속)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최종 학력							
고졸이하	31.1	40.9	18.2	6.1	3.8	3.01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38.6	32.1	17.2	6.0	6.0	3.10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5.5	37.7	22.0	10.9	3.9	2.81	100.0(642)
대학원 이상	42.9	28.6	19.0	7.1	2.4	3.10	100.0(84)
χ^2/F	28.752 **					6.571 ***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라. 일·가정 양립지원

일·가정 양립지원은 자녀 돌봄 분야와 더불어 2006년부터 대표적인 저출산 대응 분야로서, 2016년부터는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장시간 근로 개선과 육아 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의 조성, 그리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장시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고 응답한 비율은 75.1%로 자녀 돌봄 분야와 더불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표 IV-3-27 참조).

〈표 IV-3-2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42.3	32.8	14.5	7.0	3.4	3.14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43.7	33.3	14.0	6.5	2.4	3.17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46.3	30.3	13.7	7.2	2.6	3.19	100.0(307)
비혼	35.4	34.7	16.4	7.7	5.8	3.04	100.0(274)
χ^2/F	13.424					2.197	

(표 IV-3-27 계속)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47.2	30.8	13.2	6.3	2.5	3.22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40.6	34.5	15.8	5.9	3.3	3.13	100.0(461)
없어도 괜찮다	42.5	32.0	14.7	7.5	3.4	3.13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41.5	30.8	7.7	13.8	6.2	3.07	100.0(65)
χ^2/F	12.145					0.518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개인 특성별로는 미혼상태와 자녀의 필요성 여부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 특히 20대 여성들의 경우 해당 비율이 81.2%에 달하였으며,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와 대학원졸 이상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IV-3-28 참조).

〈표 IV-3-28〉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42.3	32.8	14.5	7.0	3.4	3.14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41.1	29.3	15.4	8.9	5.4	3.08	100.0(280)
남성 30~39세	35.2	35.5	18.0	8.2	3.1	3.01	100.0(256)
여성 20~29세	50.4	30.8	11.2	5.1	2.5	3.30	100.0(276)
여성 30~39세	42.1	36.0	13.8	5.7	2.3	3.17	100.0(261)
χ^2/F	23.486 *					4.754 **	
최종 학력							
고졸이하	42.4	37.9	15.2	1.5	3.0	3.25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42.3	29.3	15.3	7.0	6.0	3.14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40.8	34.7	14.2	7.8	2.5	3.11	100.0(642)
대학원 이상	53.6	19.0	14.3	9.5	3.6	3.21	100.0(84)
χ^2/F	23.605 *					0.924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의 조성이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76.0%로 앞서 다룬 장시간 근로환경의 개선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평가되었다(표 IV-3-29 참조). 해당 비율은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각각 77.5%와 79.2%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대에 비해 20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 20대 남성은 평균 3.10점, 20대 여성은 평균 3.25점, 30대 여성은 3.20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표 IV-3-30 참조).

〈표 IV-3-29〉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 조성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도움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모르겠음		
전체	41.5	34.5	14.4	6.2	3.4	3.15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42.9	34.6	15.0	5.1	2.4	3.18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45.6	31.9	13.4	6.8	2.3	3.19	100.0(307)
비혼	34.3	37.2	14.2	7.7	6.6	3.05	100.0(274)
χ^2/F	18.987 *					2.132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47.8	31.4	13.8	5.7	1.3	3.23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40.1	36.2	14.8	5.6	3.3	3.15	100.0(461)
없어도 괜찮다	41.2	33.8	15.5	5.9	3.6	3.14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36.9	33.8	6.2	13.8	9.2	3.03	100.0(65)
χ^2/F	21.449 *					0.736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한편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환경의 조성은 출산율 제고 효과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나, 40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실효성 측면에서 남녀 모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실제 직장 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 힘든 분위기이고(40대 여성A), 대체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결국 동료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나(40대 여성B), 승진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팽배하다고 지적된다(40대 여성A). 또한 남성E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국가의 추가지원이 없는 한 기업에게도 부담으로 작

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실효성 제고 노력이 부단히 요구됨을 말해준다.

〈표 IV-3-30〉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 조성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41.5	34.5	14.4	6.2	3.4	3.15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39.6	32.9	14.3	7.9	5.4	3.10	100.0(280)
남성 30~39세	31.3	38.3	18.8	9.0	2.7	2.94	100.0(256)
여성 20~29세	52.5	30.1	10.9	4.0	2.5	3.35	100.0(276)
여성 30~39세	41.8	37.2	13.8	4.2	3.1	3.20	100.0(261)
χ^2/F			36.391 ***			9.293 ***	
최종 학력							
고졸이하	38.6	38.6	16.7	3.8	2.3	3.15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41.9	30.2	16.3	4.7	7.0	3.18	100.0(215)
4년제대 재학 및 졸업	40.3	36.1	13.9	7.2	2.5	3.12	100.0(642)
대학원 이상	53.6	26.2	9.5	7.1	3.6	3.31	100.0(84)
χ^2/F			23.045 *			1.050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육아휴직이 있기는 한 대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쓰기에는 눈치가 보이거든요. 회사에서 딱 너네 이걸 해주면 이걸 해줄게. 그래 우리가 이걸 받으니까 넌 충분히 쉬고 나와라. 회사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약간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출산한 사람이 3개월만에 다시 나오고 이런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40대 여성A).

근데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제 친구도 육아휴직하고 3개월 끝나고 원래 일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삼개월 끝나고 1년 늘리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는 승진의 기회는 박탈당하는 걸 깔고 가더라고요. 그런 게 할 수 있다는 의미랑 정서적인 분위기랑은 다른 거니까요(40대 여성A)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던지 회사에서 주던지 해야 하는데. 왜 개인이 같은 직원한테 줘야하며 왜 미안해 해야 하며. 서로가 눈치를 봐야하고 그게 짜증 나니까. 솔직히 저도 나한테 한다면 일이 가중되니까 좋은 마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해결이 되면 좋게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40대 여성B)

중소기업 인원 몇 안되는 곳에서는 힘들어요. 정작 뭐 대체 인력이 양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뭐 그만큼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텀이 벌어지면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오너라면 어떨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공백이 생긴다.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회사 운영하는 측면에서(40대 남성E)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직장에 옆에 있는 동료가 힘들니까. 뭘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뭐 한정된 예산이 있는 거고, 힘들죠(40대 남성F)

마지막으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 등 남성의 육아참여의 활성화가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도움되는 편임)고 응답한 비율은 74.5%로 높게 나타났다(표 IV-3-31 참조). 해당 비율은 이의 지원들과는 달리 미혼상태와 자녀 필요성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30대에 비해서는 20대가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는 평균 3.36점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표 IV-3-32 참조). 이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가임기 여성의 출산에 결정적인 영향 요인임을 말해준다.

〈표 IV-3-31〉 남성의 육아참여(남성 육아휴직제도 등) 활성화의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모르겠음		
전체	38.3	36.2	15.8	6.0	3.7	3.11	100.0(1,073)
미혼상태별							
자발적 결혼연기	40.9	36.0	14.6	5.1	3.5	3.17	100.0(492)
비자발적 결혼연기	38.4	34.5	15.0	9.1	2.9	3.05	100.0(307)
비혼	33.6	38.3	19.0	4.0	5.1	3.07	100.0(274)
χ^2/F			14.856			1.807	
자녀필요성 여부							
꼭 있어야 한다	43.4	34.0	15.1	3.1	4.4	3.23	100.0(159)
있는 것이 낫다	38.0	36.4	15.6	6.5	3.5	3.10	100.0(461)
없어도 괜찮다	35.8	38.1	17.5	5.4	3.1	3.08	100.0(388)
없는 것이 낫다	43.1	27.7	9.2	12.3	7.7	3.10	100.0(65)
χ^2/F			16.959			1.122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표 IV-3-32〉 남성의 육아참여(남성 육아휴직제도 등) 활성화의 도움 정도(2)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	별로 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 됨	모르 겠음		
전체	38.3	36.2	15.8	6.0	3.7	3.11	100.0(1,073)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38.9	29.3	15.7	8.6	7.5	3.07	100.0(280)
남성 30~39세	25.0	42.6	19.9	9.4	3.1	2.86	100.0(256)
여성 20~29세	52.2	31.5	11.2	2.9	2.2	3.36	100.0(276)
여성 30~39세	36.0	42.1	16.9	3.1	1.9	3.13	100.0(261)
χ^2/F	74.680 ***					14.324 ***	
최종 학력							
고졸이하	35.6	42.4	17.4	0.8	3.8	3.17	100.0(1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36.3	36.7	17.2	3.7	6.0	3.12	100.0(215)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38.2	35.4	16.5	6.9	3.1	3.08	100.0(642)
대학원 이상	48.8	31.0	4.8	13.1	2.4	3.18	100.0(84)
χ^2/F	32.237 **					0.612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산출,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4. 소결

IV장에서는 출산 의향 및 조건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청년층(20~40세)의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직종, 소득 등 집단별로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의향을 물어본 결과 75%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결혼연기자는 90% 가량이 출산의향이 있으며, 비혼자는 남성 45.8%, 여성 33.5%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취업자가 구직자에 비해 출산의향이 높은 것과 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희망자녀수는 평균 2명 정도였으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희망 자녀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거주자 혹은 농림어업종사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희망자녀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조)부모나 형

제나 자매, 친인척과 같이 사는 경우 희망자녀수가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였고,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남성은 '경제적 부담'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 미혼자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출산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됨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청년 미혼자들은 전반적으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조건에서 성별, 미혼상태별, 인적특성별 그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아이 출산시기 역시 '적정소득 수준유지'를 뽑아 경제적인 조건이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자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57.8%가 '꼭 필요하다' 혹은 '있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였으나 미혼자의 경우 '없어도 괜찮다' 혹은 '없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많았다(남성 77.6%, 여성 84.5%). 이는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의 경우 출산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를 보임을 나타내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 지원 정책이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 의향을 고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인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기혼자를 보면 '행복해 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는 데는 절반이상이 동의해 기혼자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혼자가 더 크며, 자녀 필요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에 더 커진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20대보다는 30대가 그리고 대졸미만 보다 대졸이상이 기혼자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실태조사에서 30대 고학력 여성의 미혼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저출산 대책 전반과 청년층 대상 일자리와 주거대책에 관한 출산 및

결혼에의 도움 정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6년부터 추진되는 저출산 대책에서 청년층 결혼지원이 이 외 정책 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고, 그 적용 대상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청년층의 결혼지원에 대한 명확한 자리매김과 방향성의 제시가 요구된다.

둘째, 청년 미혼자들은 현행 저출산 대응정책 중 출산을 제고 효과에 대해 일·가정 양립지원, 자녀돌봄 지원, 임신·출산 지원과 청년층 대상 주거대책, 청년층 대상 일자리 대책 순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세부사업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의 조성, 장시간 근로환경의 개선,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 특정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나 정보 제공 등 청년층 일자리 지원과 안전성이 낮은 주택자금 대출이나, 대학생을 겨냥한 주거지원 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이 결혼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므로 청년 일자리 지원과 주택 문제의 해결이 출산율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결혼 이행을 촉진하여 출산을 유도하는 간접 효과는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개인 특성별로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전반적으로 이들 정책이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 이들은 모든 세부 정책들에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이 타 그룹에 비해 높은 반면, 미혼자들의 해당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에 보다 주목하여, 현행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향후 정책 대상의 핵심인 20대 여성들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20대 남성들이나 30대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이들이 향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을 감안하면, 일·가정 양립지원 부문에 양성 평등적 돌봄 문화의 형성이 보다 중요한 목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 특히 임신·출산 지원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출산 의향과 다자녀 출산 희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대응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V. 결론

이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차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미혼 청년층을 위한 결혼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의의에 대해 되짚어 보았다. 이와 함께 청년 미혼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정책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할 때 실효성이 제고될 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1. 저출산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

가. 가족됨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혼자들은 기혼자를 보면서 '행복해 보인다'는 응답에 48.4%가 동의하였으며, '힘들어 보인다'는 응답은 58.4%가 동의해, 가족됨과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결혼 연기자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 및 자녀 양육이 힘들어 보인다는 응답 뿐 아니라 행복해 보인다는 응답도 60% 내외로 높은 동의도를 보인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는 비혼자의 경우에 힘들어 보인다는 견해에는 60.6%가 동의한 반면 행복해 보인다는 응답은 15.7%에 그쳐, 결혼 연기자와 비혼자 사이에 큰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비혼자들은 1인 가구 및 비혼자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높은 반면, 결혼 연기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예를 들어, '비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비혼자 뿐 아니라 결혼 연기자도 높은 동의를 보여, 결혼 연기자와 비혼자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비혼자는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결혼 연기자의 50%이상이 동의한 반면, 비혼자는 25.9%만이 이에 동의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젊은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이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결혼 연기자의 70%이상이 동의한 반면, 비혼자의 33.6%만이 이에 동의를 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 의향이 없는 비혼자의 경우 결혼 의향이 있는 결혼 연기자에 비해 가족가치에 있어 부정적 인식 정도가 높다기보다

는 긍정적 인식 정도가 낮은(혹은 비혼 및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출산 의향과 무관하게 청년 미혼자들은 대다수가 출산과 양육의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을 1순위 조건으로 꼽고 있었으며, 결혼을 위한 조건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후라고 응답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조건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에 90%가 동의할 한 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견해에 62.6%가 동의한 점 등에서도 재확인된다. 반면,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자녀가 있어야 한다,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50%내외의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였다. 즉, 청년 미혼자들은 결혼 연기자이든 비혼자이든 가족됨 혹은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조건을 선결과제이자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 연기자의 경우에는 결혼 혹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가족 형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공존하는 반면, 비혼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인다. 즉, 효과적으로 미혼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족됨과 자녀 양육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인식 개선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인식과 가치관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으므로, 가족 가치관의 회복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를 통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입기인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가치 회복 교육부터 시작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각급 학교를 통한 차세대 인식 개선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3차 저출산 기본 계획에는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한 가족 가치관 회복이 주요 의제로 포함되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민·관 합동 홍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집중 홍보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p.84). 또한, 학령기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인 대상 인식 개선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작은 결혼식 등 고비용 결혼 문화 개선 노력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작은 결혼식 등 고

비용 결혼 문화의 개선이 청년층의 가족관 및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 이행과 출산 결정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마찬가지로, 제 3차 저출산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혼외 자녀 등에 대한 포용적 가족관의 확산 및 인식 제고 정책 또한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지만, 포용적 가치관의 확산이 과연 저출산 대책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청년 미혼자들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 자체에는 높은 동의도를 보이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작은 결혼 문화나 포용적 가족관의 필요성에는 이미 상당히 높은 동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실제 청년층의 결혼이나 출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 인식 개선 사업은 특정 사안별 홍보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가족관계 회복과 가족의 긍정적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나. 양성 평등적 육아 문화의 정착과 확산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 다음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인 항목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개선(34.4%)'과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의 분담(32.2%)'이었다. 본 실태조사에서 출산을 위한 양육의 조건으로는 양육비 절감, 자녀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 보육인프라 확충 등의 양육 환경과 관련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청년 미혼자들의 다수는 경제적 안정을 가장 우선시 했으며, 다음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꼽았다. 또한, 미혼 청년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 중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요구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욱 선호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비혼 혹은 자발적 결혼 연기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성 평등적 역할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여성의 출산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혼 청년들의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결혼 후 맞벌이를 꼭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이 약간 낮은 동의도를 보인 반면, 30대 남녀는 60%대의 동의율, 20대 여성은 70.3%의 동의도를 보였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의 분담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에도 80%대의 높은 동의도를 보이긴 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90%이상이 동의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양성 평등적 역할 분담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남녀 간의 가정 내 성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성의 비혼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보다 양성 평등적 가족관의 정립과 확산은 30대 미혼 여성들의 비혼 경향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재 미혼 상태인 여성, 특히 비혼 여성의 경우 양성 평등적 가치관이 기혼자에 비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양성 평등적 가치관 확산이 청년층의 결혼 이행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전통적 결혼 가치관이나 가족관,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가 진보적 결혼가치관이나 양성 평등의 가족 가치관을 가진 경우에 비해 결혼 의향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성 평등 의식 변환의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단기적 현상일 수 있다. 즉, 남성에 비해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결혼관과 가족관이 빠른 속도로 먼저 변화함에 따라, 양성 평등 의식이 강한 여성이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비혼화 되는 경향이 발생하였으나, 양성 평등 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이러한 역효과는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20~30대 미혼 남성의 경우 다수가 양성 평등적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성 평등적 육아 문화의 형성과 이러한 인식의 확산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청년층의 결혼 이행 및 출산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차 저출산 대책의 3대 인식·문화 개선 메시지 중 2가지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책이라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3차 저출산 대책은 기존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 중심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대한민국정부, 2016, p.24), 장시간 근로

관행 완화와 남성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또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제도적으로는 완비되었음에도 남성,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 등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의 전환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양성 평등적 육아 지원이 일부 인식개선 사업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즉, 현실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제약이 많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지원 방안을 구성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가정생활에서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지원 정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부모 참여 수업 등에 아빠의 참여율을 높인다거나, 아빠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등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함께 키우는 양육환경과 육아문화의 조성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일자리 및 주거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의 실효성 제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만혼화는 교육연한의 증가, 취업시기의 지연 등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하지만, 본고의 미혼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이면서 미혼자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평균 6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혼하게 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한편, 본 연구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연기자들의 결혼 조건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라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혼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33.0%)',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15.3%)'로 응답하였다. 이때, 20대 남성이나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컸다.

다만, 청년들은 다른 지원 정책에 비해 청년 일자리 지원과 주거 대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었다.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미 취업자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인다. 즉, 3차 저출산 대책에는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장, 기술창업 활성화 등 특별히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그대로 망라되어 있다.

이에 반해,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과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결혼 이행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혼지원 정책으로서도 일자리 정책보다는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단기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30대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의 경우 결혼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지연되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일자리 및 주거 지원 정책의 도움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및 주거 지원 정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결혼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및 결혼 이행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가족 형성 지원 방안 모색

지역별 출산율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등 지방의 경우 출산율이 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내 청년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 소멸의 위기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상호(2015)는 30년 이내 소멸의 위험에 놓은 지자체가 70곳에 달하며, 이는 가임기 여성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과 이로 인한 인구 감소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미혼 여성 표본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었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 표본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의 경우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의 비중이 높고, 출산 의향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이들의 결혼 이행을 도와 미스매치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제 3차 저출산 기본 계획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추진 기반 강화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으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 수행,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확산 등 지자체 인구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러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력이 행정적 협력 관계를 넘어, 청년 미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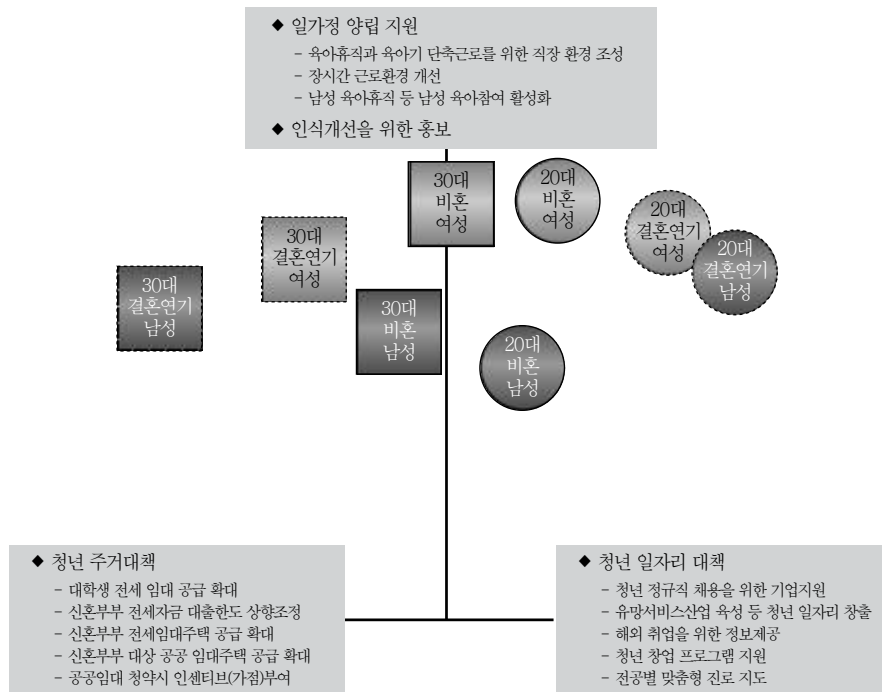
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위원회의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 육아 및 결혼 지원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봄 직하다.

2. 정책 대상별 중점 지원 방안

저출산 지원 대책의 포괄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별로 특히 효과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식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고 강화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출산 지원 정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같이 특정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사업 등 상당히 포괄적인 대상을 목표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 범위 등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청년 주거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축으로 하여, 20~30대 청년 미혼자들의 특성에 따라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목표 집단과 정책을 정리해보았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V-2-1]과 같다. 이때, [그림 V-2-1]은 미혼자 특성에 따라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되는 지원 정책 쪽에 해당 집단을 배치한 것으로, 다른 정책이 이들 집단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즉, 비혼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잘 이뤄질 때 결혼으로의 이행 혹은 출산 독려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청년 주거 대책이 비혼 여성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 개 축이 만나는 중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해당 지원의 효과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여성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필요가 높다고 사료된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미혼자가 아닌 기혼자 - 특히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 남녀 모두에게서 요구가 높았던 정책이다. 이는 현재 자신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간접 경험하게 되는 출산 및 육아 상황에 근거하여 미혼자들의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지대한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단기적으로 미혼자들의 결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확대와 보편화는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 촉진을 위해서도 가장 중점적

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특히 결혼 적령기인 비혼 여성의 비혼 의지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 1) 세 축의 중심이 만나는 중심에서 멀수록 해당 정책 대상에 대한 중점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함.
- 2)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는 여성, 검정바탕에 흰색글씨는 남성, 동그라미는 20대, 네모 30대, 점선 테두리는 결혼연기자, 실선 테두리는 비혼자를 의미함.

[그림 V-2-1] 정책 대상별 중점 지원 정책

한편, 30대 결혼 연기 남성의 경우에는 주거 지원 대책이 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비자발적 결혼 연기 상대인 30대 남성들은 결혼할 의향이 있음에도 주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림에서 30대 결혼연기 남성을 주거대책 쪽에 치우치게 제시한 것은 평면도식 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자발적 결혼연기자의 경우 취업자인 경우가 다수로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거나 주택마련 등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20대의 경우에는 성별 및 결혼 의향과 무관하게 주거지원 대책보다는 일자리 대책이 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20대 청년들은 학업 중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가 다수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결혼에 대한 고민보다 우선한다. 또한, 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20대 청년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 결혼 의향이 없는 비혼자에 비해 결혼 의향이 있는 결혼 연기자가 취업 혹은 창업 이후 결혼으로의 이행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 실업 등의 해결을 위한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별개의 정책 사업이다. 즉, 청년 일자리 대책의 간접적 파급 효과가 저출산 혹은 만혼화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저출산 대책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저출산 극복 전략으로써는 20대의 결혼 의향 고취를 위한 선결과제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2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동안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 실태, 이들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로 인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혼 청년층 결혼 지원 정책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청년 미혼자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동년배의 기혼자가 가진 결혼 및 가족관에 대한 고찰이 병행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 제시된 저출산 대책 중 결혼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하나하나가 심도 깊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과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진미정·옥선화(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135-144.
-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 김도희(2012). 청년 1인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6.
- 김미숙(2011). 미·비혼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예비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21-38.
- 김성준(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57-81.
-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종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옥(2016).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특성과 생활실태. 한국가족복지학, 52, 139-166.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24.
- 김태홍·김동식·김은지·배호중·민현주(2011).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 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영(2007). 1인 가구의 비혼 사유와 가족의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41-1057.
-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대한민국 정부(2009).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2006~2010.
- 대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정윤·김예리(2010).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자녀간 유대감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 지각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4), 13-24.
- 보건복지부(2016). 출산을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출생아 2만+@」대책
- 심경미(2003).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30대 중반이후 40대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태현(2010).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10(3), 35-64.
- 오창섭·최성혁(2012). 저출산 원인의 실증분석: 혼인율 하락과 초혼연령 상승의 경제적 요인. 복지행정논총, 22(1), 91-125.
- 원아름·박정윤(2016).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 이미지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1), 145-166.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89-117.
- 유홍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이만우·김시광·김란영(201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경제학회.
- 이삼식(1993). 한국인의 혼인행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회지, 6(2), 84-110.
- 이삼식·이지혜(2014). 초저출산 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2015).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지역고용

- 동향브리프, 지역고용동향 심층분석, 1-17.
- 이성용(201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비혼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13-621.
- 이성희·권현수(2015). 한국 30대 미혼여성의 결혼견해 영향요인: 2012 사회조사 기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 606-616.
- 이정원·유해미·김문정(2013). 가족변화에 대응한 출산·육아 지원 방안 연구-출산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경·김보화(2015). 2,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41-85.
- 이창순(2012). 한국사회 비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과학연구, 38(3), 49-71.
- 임선영·박주희(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정현희(2011). 한국사회의 여성-비혼 현상으로부터 읽기. 여성이론, 25, 233-240.
-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통계청(2015). 인구동태연보.
- 최필선·민인식(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헤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호정화(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25-59.

[홈페이지 자료]

네이버 오픈사전,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85665>, (2016. 11. 29. 인출)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4856500>, (2016. 11. 29. 인출)

나무 위키백과, <https://namu.wiki/w/%EB%8F%85%EC%8B%A0>, (2016. 11. 29. 인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B2%AD%EB%85%84>, (2016. 11. 28. 인출)

[통계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4~2016년).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1995~2015), 혼인율 및 평균초혼연령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2000~2015년), 모 연령별 출산율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2000~2015년),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2000~2015년), 합계출산율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2004~2015년), 출생아건 수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0, 2005, 2010, 2015), 연령 및 성별 인구.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2000, 2005, 2010, 2015),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

한국노동연구원, KLIPS 3차(2002년)~17차(2014년) 공개용 원자료 및 18차(2015년) 학술대회용 자료.

부록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3.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 체계적인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설립된 육아 정책연구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층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청년(만20~39세) 미혼 남녀의 비혼 인식과 가족관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주관조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실시기관:	(주) 에스티아이
▣ 담당자:		▣ 담당자:	
▣ 조사관련문의:		▣ 조사관련문의:	

선문 1. 귀하의 몇 년생입니까?

19__년생 ☞ 1977년생~1996년생(만20세~39세) 이 외의 연령은 설문 중단

선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선문 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기혼 유배우 ☞ 설문 중단
3. 이혼·사별·별거 ☞ 설문 중단

선문 4.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특별시/광역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선문 5.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께 사는 사람을 모두 응답, 조부모 혹은 부모의 경우 한분만 있는 경우도 응답)

1. 혼자 ☞ 선문5-1로 가세요.
2. 부모 ☞ 문1로 가세요.
3. 조부모 ☞ 문1로 가세요.
4. 친형제·자매
5. 기타 친인척
6. 이성친구
7. 동성친구 및 동료
8. 기타 (_____)

선문 5-1. (선문5에서 혼자라고 응답한 경우) 언제부터 혼자 살고 계십니까?

_____ 년도 혹은 _____ 만 _____ 세부터

선문 5-2. (선문5에서 혼자라고 응답한 경우) 최초로 혼자 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학업을 위해서
 2. 취업을 위해서
 3. 취업 준비 학원 등의 통학을 위해서
 4.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되어서
 5.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6. 기타 (_____)
-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사별, 이민 등)
☞ 문1로 가세요.

선문 6. (선문5에서 부모님, 조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응답한 경우 제외) 언제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게 되었습니까?

_____ 년도 혹은 _____ 만 _____ 세부터

선문 6-1. (선문6에 응답한 경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학업을 위해서
2. 취업을 위해서
3. 취업 준비 학원 등의 통학을 위해서
4.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되어서
5. 부모님과 따로 살아보고 싶어서
6. 기타 (_____)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사별, 이민 등)

문1로 가세요.

I.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결혼 계획 및 비혼 사유]

문 1. 귀하는 결혼은 꼭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해야한다.
2. 하는 편이 좋다.
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문 2. 귀하가 현재 미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2.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3.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4.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5. 소득이 적어서
6.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실업상태라서
7.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주택마련 및 결혼 비용 등)
8. 결혼생활과 직장 일 병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9. 결혼보다 일이나 자기계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0. 결혼 후의 사회적 역할(경제적 부양, 출산 및 양육)이 부담스러워서
11.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2. 기타 (_____)

문 3. [결혼 의향] 귀하는 앞으로 언젠가 됐든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의향 있음 ➡ 문3-1으로 가세요.
- 2. 의향 없음 ➡ 문3-3으로 가세요.

문 3-1.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4로 가세요.

- 1.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정규직 일자리 등)
- 2.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때(주택 자금 마련 이후 등)
- 3.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때
- 4. 결혼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 5.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 6. 기타

문 3-2. 귀하께서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나보다 낮았으면 좋겠다	→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	나보다 높았으면 좋겠다	상관 없음
학력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⑧
소득(재산)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⑧
사회적 지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⑧
	나보다 어렸으면 좋겠다	→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	나보다 많았으면 좋겠다	상관 없음
나이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⑧

문 3-3. 귀하는 언제부터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만 _____세부터

문 3-4. 귀하가 앞으로도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무런 이유 없이 결혼이 싫어서
2.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
3.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4. 직장과 가정생활을 다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 자아 계발에 제약이 생기므로
6.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싫어서
7.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8.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9. 기타 _____

문 4. 과거와 비교하여, 귀하의 결혼에 대한 생각(혹은 의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 예전에는 크게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나, 지금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 문4-1로 가세요.
2.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 문5로 가세요.
3. 예전에는 결혼이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다. ☞ 문5로 가세요.
4.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혼은 하고 싶다. ☞ 문5로 가세요.

문 4-1. 과거와 비교하여, 귀하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으로 안정되서
2.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3. 정서적 안정을 얻고 싶어서
4. 이제는 결혼 적령기가 지난 것 같아서
5. 출산 시기 등을 고려하면 지금쯤 해야 할 것 같아서
6.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서
7. 기타

문 5. [결혼 가치관] 귀하는 결혼에 관한 다음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역	구 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결혼의 의미	1)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				
	2)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3) 합법적으로 성 파트너와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				
	4) 부모가 아닌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주는 것이다.				
	5)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성년이 되는 일이다.				
	6)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영역	구 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결혼 문화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				
	2) 신혼 집은 신랑이, 살림은 신부가 마련해야한다.				
	3) 결혼식은 격식을 갖춰서 해야한다.				
	4) 나는 결혼보다 지금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				
	5)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가족 내 성역할 분담	1) 결혼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한다.				
	2)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 한다.				
	3)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결혼 시기	1)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				
	2) 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				
	3) 직업을 가질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				
결혼에 대한 태도	1)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				
	3) 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할 필요는 없다.				
	4)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문 6. 귀하는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생각하십니까?

- 남성의 적령기 만 _____세 전후
- 여성의 적령기 만 _____세 전후
- 적령기는 따로 없다고 생각함.

Ⅱ. 비혼 및 1인 가구에 대한 의견

문 1. [비혼에 대한 태도] 귀하는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1인가구가 아닌 경우도 포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 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기혼자에 비해 직장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더 뛰어나다.				
2)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롭다.				
3)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4) 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더 당하는 것 같다.				
5)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				

문 2. [1인 가구에 대한 태도]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람이 겪는 장단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내 일에 대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2) 가족에 대한 부담책임이 없어서 좋다.				
3)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4) 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5) 자유롭게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6) 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7) 부모님이나 주위의 결혼 강요가 견디기 힘들다.				
8)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9) 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10)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문 3. 결혼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경제적 능력
2. 안정적인 일자리
3. 가까운 친구나 가족
4. 취미활동
5. 독립적인 성격
6. 기타

Ⅲ. 자녀 및 가족에 대한 태도

문 1. 귀하는 자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꼭 있어야 한다.
2. 있는 것이 낫다.
3. 없어도 괜찮다.
4. 없는 것이 낫다.

문 2. [가족관] 귀하는 다음의 가족에 대한 견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 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3)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4)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5)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				
6)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7)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				

문 3. [가족 가치] 귀하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 분	전적 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				
2) 행복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3)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스럽다.				
4)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4. 만약 귀하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몇 명을 낳고 싶으십니까?

- 1. 낳을 생각이 있음 → _____명
- 2. 낳을 생각이 없음 → 문4-1로 가세요.

문 4-1. 아이를 낳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부부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서
- 2.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 3.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 4.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 5.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 같아서
- 6.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 7. 기타

문 5.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2개 고르시오.

(중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 1.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 2.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를 분담할 수 있으면
- 3. 사교육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 4.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 5.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개선된다면
- 6. 영유아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및 세제혜택) 지원이 늘어난다면
- 7. 결혼하게 되면 조건과 상관없이 아이는 낳을 것임
- 8. 기타 _____

문 6. 귀하가 자녀를 갖는다면 첫아이는 언제쯤 가지고 싶으십니까?

(보기 중 한가지만 응답)

- 1. 안정된 직장을 마련한 후에
- 2.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 3. 집장만을 한 후에
- 4. 자신과 배우자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 5.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
- 6. 배우자가 원할 때
- 7. 기타 _____

문 7. 이하는 정부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대책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역	보기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임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안됨	모름 겠음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1)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을 지원한다. 2)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임신· 출산 지원	1)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2) 난임부부 시술비 등 고위험 산모를 지원한다. 3)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4)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5)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녀 돌봄 지원	1)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가정내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 놀이·소통 공간을 제공한다. 3)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1)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2)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3)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 한다.					

문 8. 이하는 정부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대상의 결혼 및 출산지원 정책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대책들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역	보기	매우 도움 됨	도움 되는 편임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안됨
청년 일자리 대책	1)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한다. 2)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3)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를 제공한다. 4) 청년 대상 창업프로그램을 도입·지원한다. 5)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청년 주거 대책	1)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을 늘린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4)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5) 신혼부부 나이가 어릴수록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가점)를 부여한다.				

IV. 응답자 및 가구 특성

배문 1. 귀하의 최종학력, 경제활동상태, 직종, 종사상지위에 관해 응답해주세요.

1-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고졸 이하
- 2) 전문대(2~3년제) 재학(휴학 포함)
- 3) 전문대(2~3년제) 졸업
- 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포함)
- 5) 4년제 대학 졸업
- 6) 대학원 재학
- 7) 대학원 졸업 이상

1-2. 귀하의 취업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취업(휴직포함)
- 2) 구직 중 ☞ 배문 2로
- 3) 학생(휴학포함) ☞ 배문 2로
- 4) 무직/기타 () ☞ 배문 2로

1-3. 귀하의 직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전문가 및 관리자
- 2) 사무 종사자
- 3) 서비스 종사자
- 4) 판매 종사자
- 5) 농림어업 종사자
-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 단순노무직
- 9) 기타 ()

<참고> 직종 분류 기준

<p>1) 전문가 및 관리자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전문서비스, 생산, 판매 등 관리직, 군인(장교) 전문가 - 과학, 정보통신, 공학, 교육, 보건복지, 경영, 종교, 문화예술 전문가 및 관련직</p> <p>2) 사무 종사자 경영, 회계, 금융, 법률, 상담, 안내 등 일반 사무직</p> <p>3) 서비스 종사자 경찰, 소방, 보안, 미용, 예식, 운송, 여가, 조리, 음식 등 서비스직</p> <p>4) 판매 종사자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p>	<p>5) 농림어업 종사자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p> <p>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 의복, 목재, 가구,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기계, 전기, 전자, 건설, 영상, 통신 등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p> <p>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 섬유 화학 금속 기계제조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 운전(택시, 버스, 트럭 등 차량) 및 운송(철도, 전동차 등) 관련직</p> <p>8) 단순노무직 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가사,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직, 군인(사병)</p>
---	---

1-4. 귀하의 종사상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정규직
- 2) 비정규직 (임시 계약직, 단기 계약직)
- 3) 일용직
- 4) 고용주, 자영업, 프리랜서
- 5) 무급 가족종사자

* 농업인이신 분들은, 본인 농사를 지으실 경우 '자영업', 가족(부모 등)의 농사를 별도의 대가없이 지을 경우 '무급 가족 종사자', 가족이나 타인의 농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짓고 있을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표시해주세요.

배문 2. 지난 3개월 기준으로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귀하의 소득만을 응답해주시시오. 세후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없는 경우 '0'으로 표기)

세후 월 _____ 만원

배문 3. 귀하는 가족 중에 몇 번째 자녀이십니까?

_____ 남 _____ 녀 중 _____ 째

배문 4. 귀하가 14세(중학생)일 무렵 귀댁의 경제적 형편은 당시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평균보다 훨씬 높았음
2. 평균보다 약간 높았음
3. 평균수준이었음
4. 평균보다 약간 낮았음
5. 평균보다 훨씬 낮았음

배문 5. 귀하가 14세(중학생)일 무렵 귀댁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류층
2. 중상류층
3. 중류층
4. 중하류층
5. 하류층

배문 6. 귀하께서는 귀댁의 가족관계가 화목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화목한 편임
2. 화목한 편임
3. 화목하지 않은 편임
4. 전혀 화목하지 않음

배문 7. 귀하는 지금 동년배의 사람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류층
2. 중상류층
3. 중류층
4. 중하류층
5. 하류층

배문 8. 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함
2. 어느 정도 만족함
3. 별로 만족하지 않음
4. 전혀 만족하지 않음

배문 9. 향후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40대 미혼남녀 결혼 및 가족가치관 심층면담

1.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녹음진행과정 동의 안내			
소요 시간	내용		비고
5분	사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면담은 40대 미혼 남녀의 결혼 및 가족, 자녀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눈 모든 내용은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해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 면담과정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시나요?(대답 확인 후 질의 시작) 	
2. 면담대상자 자기 소개			
10분	자기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설문의 선문에 해당하는 부분) * 본인의 이름, 본인의 나이, 사는 곳(거주지), 본인의 직업(전업주부인 경우 주부), 현재 누구랑 살고 있는지, 혼자 사는 경우 언제부터 혼자 살았는지 등 	
3. 심층 면담			
80분	면담	<p><결혼> 결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가. 결혼 의향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결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귀하가 20대일 때와 30대였을 때에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언제였나요? 계기(이유)는 무엇인가요? -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몇 세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나. 현재 귀하의 미혼 생활에 관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의 하루 일과 및 주말 일과를 좀 알려주세요 - 귀하가 미혼이어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말 결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 절대 결혼 하지 말아야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p>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결혼할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언제쯤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 앞으로도 귀하는 결혼할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혹은 어떤 계기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뀔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p>라.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할 의향이 있으면서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떠한 상황에서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배우자의 조건 등에 대한 추가 질문 진행 -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결혼이 가능한 조건 등에 대한 추가 질문 진행 <p>마. 결혼에 대한 가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20대 혹은 30대인 미혼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성(혹은 여성)이 결혼을 더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주변에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p>바. 미혼자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대한 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귀하가 미혼인 것에 대해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미혼인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주변에서 미혼자에 대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p>사. 결혼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대한 의견</p>
--	--

<p>- 좀 전에 작성해주신 설문지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결혼가치관] 문항이 있었는데요, 이 문항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요?(전반적인 느낌을 질문하는 것입니다)</p> <p>-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이 가장 동의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p>- 반대로 가장 동의가 안 되시는 문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영역	구 분
결혼의 의미	1)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
	2)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3) 합법적으로 성 파트너와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
	4) 부모가 아닌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주는 것이다.
	5)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성년이 되는 일이다.
	6)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혼 문화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
	2) 신혼 집은 신랑이, 살림은 신부가 마련해야한다.
	3) 결혼식은 격식을 갖춰서 해야한다.
	4) 나는 결혼보다 지금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
	5)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가족 내 성역할 분담	1) 결혼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한다.
	2)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한다.
	3)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결혼 시기	1)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
	2) 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
	3) 직업을 가질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
결혼에 대한 태도	1)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
	3) 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할 필요는 없다.
	4)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 비혼 및 1인 가구에 대한 문항도 의견 청취	
비혼에 대한 견해	
1) 기혼자에 비해 직장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더 뛰어나다.	
2)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롭다.	
3)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4) 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더 당하는 것 같다.	
5)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	
1인 가구에 대한 견해	
1) 내 일에 대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2)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없어서 좋다.	
3)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4) 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5) 자유롭게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6) 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7) 부모님이나 주위의 결혼 강요가 견디기 힘들다.
8)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9) 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10)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가족 및 자녀>

지금부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 자녀에 대한 태도

- 결혼을 하면, 자녀는 꼭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녀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이 미뤄지거나 결혼 의향이 없어진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귀하는 결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반대로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보면,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좀 전에 작성해주신 설문지의 [가족관]과 [가족가치] 문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인 느낌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이 가장 동의되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반대로 가장 동의가 안 되는 문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 족 관
1)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3)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4)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5)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
6)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7)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

가 족 가 치
1) 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한다.
2) 행복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3)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스럽다.

	<p>4)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p> <p>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한 환경이나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p> <p><정부의 결혼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견해> - 끝으로, 정부가 비혼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자유롭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p>
4. 면담 마무리	
5분	<p>마무리 인사 - 면담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면담을 마치겠습니다.</p>

부록 3.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

심층면담 대상자

면담자	연령 (만나이)	소득수준	혼인의사	거주형태
남성A	42	400만원 이상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혼자
남성B	40	400만원 이상	없음	혼자
남성C	43	400만원 이상	없음	부모님과 동거
남성D	40	400만원 이상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혼자
남성E	40	200~300만원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혼자
남성F	40	200~300만원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혼자
남성G	42	200~300만원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부모님과 동거
남성H	43	200~300만원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부모님과 동거
여성A	40	200~300만원	없음	부모님과 동거
여성B	45	200~300만원	없음	혼자
여성C	40	200~300만원	없음	혼자
여성D	44	200~300만원	없음	부모님과 동거
여성E	44	400만원 이상	있음	부모님과 동거
여성F	40	400만원 이상	있음	여동생과 동거
여성G	42	400만원 이상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가족과 동거
여성H	44	400만원 이상	있음	동생가족과 동거

연구보고 2016-19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 2269-991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90-5 93330